

SGRA REPORT

SGRA 보고서 No. 109 한국어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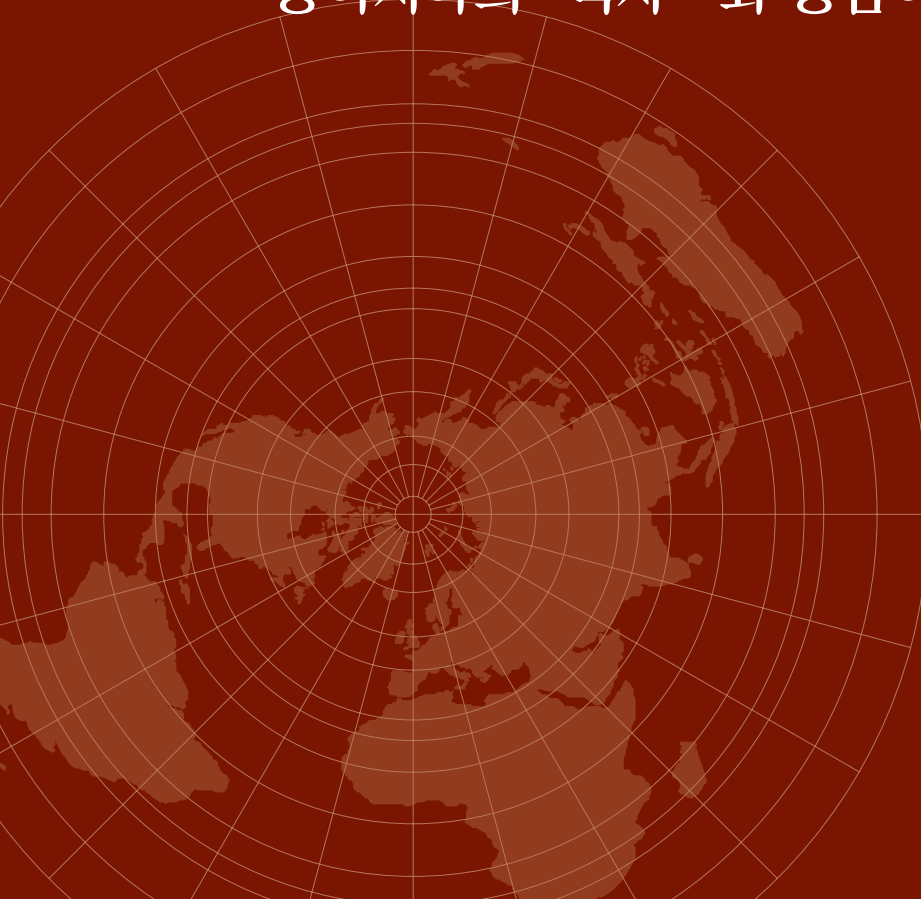
NO. 109

ISSN 1346-0382

제 74 회 SGRA 포럼

제 9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제9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

■ 개최경위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자국 역사를 전문으로 하는 각국 연구자들 간의 대화 및 교류를 목적으로 2016년에 시작되어, 지금까지 총 8회 개최됐다. 국경을 넘어 수많은 참가자가 모여, 각국 국사(國史)의 현상학과 과제, 개별적인 실증연구를 둘러싼 논의와 교류를 이어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행 속에서도 대화를 계속하기 위한 온라인 개최를 세 차례 시도했다. 지난 제8회(2023년)는 3년만에 대면으로 개최(온라인과의 하이브리드 형식)돼, 대면 대화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제9회인 이번엔 대면으로 개최해, 현장 참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참가가 가능하도록 했다. 한중일 1편씩 합계 3편의 논문이 발표됐다. 또한 이번에도 원활한 대화 진행을 위해 한국어⇄일본어, 한국어⇄중국어, 일본어⇄중국어 동시통역을 마련했다. 포럼 종료 뒤 강연록(SGRA 보고서)을 작성했고, 참가자의 에세이 등을 메일 매거진으로 사회에 널리 발신했다.

■ 개최취지

‘국사들의 대화’ 기획은 한중일 ‘국사’ 연구자의 교류를 심화시킴으로써 지(知)의 플랫폼을 구축해, 삼국 간 역사인식문제 극복에 대한 지혜 제공을 목적으로 대화를 거듭해 왔다. 제1회에서 한중일 각국의 국사연구와 역사교육 상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시작해, 그 후 13세기부터 시대를 따라가며 주제를 설정하고 대화를 심화시켜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계적으로 유행한 시기에는 온라인 대화를 통해, 역사학을 둘러싼 시의적절한 주제를 다뤘다.

지난해 대면 개최가 가능해지면서 ‘국사들의 대화’ 기획 당시부터 구상된 20세기 전쟁과 식민지 지배를 둘러싼 국민의 역사인식을 주제로 내걸었다. 다양한 측면에서 풍부한 대화가 이뤄졌고 ‘국사들의 대화’ 기획의 목표 중 하나가 달성되었다. 앞으로는 지금까지 대화로 발전시킬 수 있었던 한중일 국사 연구자의 네트워크를 어떻게 더욱 발전시켜 나갈지, 또 이를 위해 어떠한 방침으로 대화를 계속해 나갈지가 과제가 될 것이다.

이 같은 새로운 단계를 맞이해, 금번 제9회에는 개최지와 관련하여 ‘동남아시아’와 각국 국사의 관계를 주제로 삼았다. 한국·일본·중국의 국사연구는 과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왜, 어떻게 동남아시아에 주목해 왔을까? 과거 여러 단계에서 다양한 정치, 경제, 문화에서의 교류와 ‘진출’이 있었다. 이는 정부 간 관계이기도 하고, 그에 머무르지 않는 사람이나 사물의 이동이기도 했다. 이러한 모든 관계나 그에 대한 관심의 본질은, 각국에서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왔다. 이러한 직간접 관계의 해명에 더해, 비교적 조건이 비슷한 사례로 자국 내 변화 과정과의 비교도 이뤄져왔다. 원래 ‘동남아시아’라는 틀 자체도, 국민국가나 ‘동아시아’라는 틀과 동일하게 세계의 격동 속에서 태어난 것으로 역사학의 고찰 대상이 되어 왔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학계를 선도하는 연구자 중심으로 과거 연구 동향과 최근의 성과가 소개되었다. 이러한 연구는 어떠한 사회적·역사적 배경 아래에서 진행되어 온 것인가? 이러한 방법과 시각에 근거해 자국사에 어떠한 영향이 있었고, 또 향후 어떠한 전망을 그릴 수 있을 것인가? 논의와 대화를 통해 삼국 국사의 대화를 조금 더 다원적 맥락 속에 위치시키고, 보다 열린 형태로써 발전의 방향성까지 생각해보는 기회로 삼고자 했다.

SGRA는

세키구치 글로벌연구회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SGRA)는 선량한 지구시민 실현에 대한 공헌을 목표로 하여 2000년에 설립되었습니다.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소재지인 도쿄도 분쿄구 ‘세키구치’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SGRA는 일본 내 대학원에서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연구하고 아쓰미 장학생으로 함께 시간을 보낸 외국인 및 일본인 연구자가 중심이 돼, 현대 사회의 과제에 대처하는 연구와 제언을 포럼 및 보고서 등을 통해 사회에 발신하고 있습니다. 폭 넓은 연구영역을 포괄한 국제적, 학제적 활동을 펼치는 것을 목적으로, 다국적 연구자가 광범위한 지혜와 네트워크를 결집해 다면적 데이터를 활용한 분석과 고찰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

SGRA 포럼 등의 공지와 세계각지의 SGRA 회원이 에세이를 매주 목요일에 전자메일로 발신하고 있습니다. SGRA 소식은 누구나 무료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을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entry/registration_form/)에서 자동등록 하시면 됩니다.

제 9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일 시	2024년 8월 10일 (토) ~ 12일 (월)
장 소	쥘라롱껀대학 (태국 방콕) 및 온라인
주 최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가능성 실행위원회
공동주최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조 성 금	도쿄구락부



제 1 세션	[사회: 류 지에 (와세다대)]	
【시작하며】	류 지에 (와세다대) 5	
【개회사】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7	
【기조강연】	포스트식민주의 시대 ‘국족주의’ 충돌 원인에 대한 고찰 —마오 시대 및 포스트 마오 시대 중국의 대일 정책 변화를 실마리로—	15
	양 쿠이쑹 (베이징대, 화동사범대)	
	질의응답	33
	발언 (발언순):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昇, 가나가와대학) 양 쿠이쑹 (楊 奎松, 베이징대, 화동사범대) 파타짚 탕신만공 (도쿄대)	
제 2 세션	[사회: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발표 1 (태국)】	‘대나무 외교론’의 강대국 관계와 소국의식 탕신만공 파타짚 (도쿄대)	38
【발표 2 (일본)】	일본 근대사와 동남아시아 —1930년대의 평가를 둘러싸고— 요시다 마스미 (미츠이문고)	46
【발표 3 (한국)】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 —회고와 전망— 윤 대영 (서울대)	55
【발표 4 (중국)】	화교 문제와 외교—1959년 인도네시아 화인 탄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가오 옌제 (샤먼대)	62

제3세션

[사회: 펑 하오 (彭浩, 오사카공립대)]

지정토론

71

지정토론자:

【중국】정 청 (효고현립대), 정 제시 (원저우대)

【한국】정 재현 (목포대), 한 성민 (고려대)

【일본】사토 유키 (릿쿄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제4세션

[사회: 정 순일 (고려대)]

자유토론

94

토론자 (발연순):

양 쿠이쑹 (베이징대, 화둥사범대), 파타짓 탕신만쿵 (도쿄대),
 요시다 마스미 (미츠이문고), 윤 대영 (서울대), 가오 옌제 (샤먼대),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쑹 지용 (난카이대), 정 재현 (목포대),
 한 성민 (고려대)

토론 정리: 류 지에 (와세다대)

【폐회사】 쑹 지용 (난카이대) 114

발표자 약력 116

후기를 대신하여

김 경태 (전남대) 118

참가자 목록 124

※동시통역

한국어⇄일본어: 이 헤리 (한국외대), 안 영희 (한국외대)

한국어⇄중국어: 김 단실 (통번역자), 박 현 (교토대)

일본어⇄중국어: 덩 리 (베이징대), 쑹 강 (베이징외국어대)

※소속 · 직함은 개최 시점

시작하며

류 지에

와세다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연 (도요대)]



저는 첫 세션 사회를 담당할 와세다대 류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 대화 개최에 즈음해, 태국 쭈라롱콘대 관계자 선생님들, 스태프 여러분께 큰 신세를 지게 되었습니다. 먼저 감사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참가자 여러분도 전날부터 태국에 오셔서 대단히 피곤하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잘 부탁드립니다.

작년(역주: 2023년)까지 저희는 8차례 국사대화를 개최했습니다. 제8회에는 ‘20세기의 전쟁·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가 주제였습니다. 주로 교육, 미디어, 연구를 통해, 20세기 전쟁 등의 서술 방식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화를 시작할 무렵 가장 큰 관심사가 바로 작년 주제였습니다. 다만 굉장히 어려운 주제이기도 하기에, 저희가 이 대화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우회 전략이라고 할까요? 동아시아의 여러 역사 문제로부터 논의를 시작해, 가장 어려운 주제는 뒤에 남겨두자는 식으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이러한 국사대화의 네트워크가 형성되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지(知)의 공통 공간’, 혹은 ‘지의 플랫폼’ 같은 것을 만들어 내고 싶다는 것도 목적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8회 대화에서 이미 네트워크가 만들어졌다는 것을 저희가 실제로 증명해냈고, 이 지역에서 마음을 터놓고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공간이 형성됐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대화의 매우 큰 성과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의 공통 공간’은 지금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이는 국제정세의 매우 커다란 변화, 즉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나, 중동의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은 동아시아의 이른바 안보상 다양한 문제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일은 현실의 정치·외교 문제뿐만 아니라, 대부분 역사로부터 유래합니다. 이 같은 새로운 문제에 역사가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또한 동아시아 혹은 동남아시아 민주화 같은 새로운 움직임에 역사가들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다양하고 새로운 도전에, 우리는 응답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국사대화를 시작할 무렵과는 다른, 새로운 국면에 우리가 직면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 가운데, 제9회 국사대화가 태국에서 열린다는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고, 우리는 이번 기회를 살려 새로운 국사대화의 가능성을 더욱 모색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를 시작하며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도쿄대 명예교수 미타니 선생님께 개회사를 부탁드립니다.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원문은 일본어 . 번역 안영희]



우리 일중한 삼국 역사학자들은 지금까지 8 회에 걸쳐 각국에서 ‘국사’ 를 연구, 교육하는 학자들을 초빙하여 대화를 이어왔습니다. 지금은 모체가 되고 있는 ‘아시아미래회의’ 가 열리는 이곳 방콕에서 새로운 가능성을 찾고자 합니다. 장소를 제공해주신 왕립 쫘라롱껀대학, 그리고 항시 전면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아쓰미국제교류재단에, 멤버를 대표해 깊은 감사 말씀 드립니다.

우선 ‘국사들의 대화’ 의 취지와 역사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대화의 기획은 와세다대 류 지에 교수님과 아쓰미재단의 이마니시 준코 이사님이 발안하였습니다. 저는 일본의 국사학자 중 한 사람으로서 초기부터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당시의 문제 설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동북아 3 국 간에 응어리진 역사인식을 둘러싼 대립을 어떻게든 완화시킬 수 없는 것일까, 경제적, 인적교류는 날마다 심화되고 있었으며, 상호 협조가 필수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과거사와 관련된 인식’ 이 방해하고 있다.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각국에서 자국 본위의 역사를 만들고 있는 ‘국사학자’ 들을 한자리에 모아 직접 대화를 시켜보면 어떻게? 하는 의문점에서 발단된 것이 ‘국사들의 대화’ 를 시작한 의도였습니다.

지금까지 8 번 대화를 지속해 온 멤버들은 이 회의의 취지를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번에는 방콕에서 개최되며, 처음 참가하시는 태국과 동남아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국사들의 대화’ 에 관한 연혁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왜 동북아 3 국 일중한 사이가 나쁜가?” 이는 주로 20 세기 전반부에 일본이 한반도를 지배하고 중국대륙을 침략했던 역사가 발단이 됩니다. 1945 년에 일본이 패전하고 한국과 중국은 일본의 침략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국가를 만들었습니다. 일본도 새로운 헌법에 따라 평화국가가 되는 길을 선택해, 그것을 실천해왔습니다. 그러나 일본에 침략당했던 나라의 사람들은 그 당시의 고난과 희생, 굴욕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20 세기 중반, 동북아 3 국은 각자 큰 전화를 입었으며, 모두 극단적으로 가난해졌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회복한 것은 일본입니다. 일본은 무역을 통해 급격한 경제발전을 경험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한국과는 1965 년에 국교정상화했고, 1972 년에는 중국과 국교정상화했습니다. 교섭 과정에서 일본이 했던 과거 일을 둘러싸고, 격렬한 논의가 있었다고 들었습니다만, 한국, 중국 모두 정부는 표면적으로 일본의 과거를 규탄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한국, 중국 모두 일본의 경제원조를 받을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국의 최우선과제는 부흥이었으며, 당시 많은 자금과 기술을 제공할 수 있는 나라는 일본 밖에 없었습니다. 양국은 일본에게 과거사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고 싶어도,

공적으로는 침묵할 수 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일본측도 정부는 당초 사죄표명에 대해 소극적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이 바뀌게 된 것은 우선 한국, 그리고 이어서 중국의 경제발전이 궤도에 오른 후입니다. 한국의 경우 1990년대, 중국은 2000년대부터였습니다. 일본 측도 이 즈음에는 정부와 민간이 국제협조를 중시하고, 이웃나라에서 들리는 과거 책임을 추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명확해진 것은 2001년에 일어난 일본의 중학교교과서를 둘러싼 대논쟁이었습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일본이 이웃나라에 대해 했던 나쁜 과거를 가급적 감추려고 시도한 역사교과서를 검정 합격시켰을 때, 일본 국내뿐 아니라, 한국과 중국에서도 엄청난 비판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그 교과서는 거의 채택 받지 못하고 끝났는데, 이 사건은 두 개의 다른 조류를 탄생시켰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중한 3국 역사가들이 전대에는 전혀 없었던 농밀한 학술교류를 시작한 것입니다. 3국 정부가 일한, 일중 역사공동연구를 시작하는 한편 민간에서도 국경을 초월한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제 3국의 관점에서 미국의 대학도 그와 같은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 성과 중 하나가 류 지에 선생님과 제가 편집한 ‘국경을 초월한 역사인식’ (超越國境的歷史認識)입니다. 이는 2006년에 도쿄대학출판회와 중국의 사회과학문헌출판사에서 동시에 출판되어 나중에 편자의 한 사람인 양다징 (楊大慶) 선생님의 노고로 영어판도 나왔습니다 (2012년). 일한 간에도 다양한 공동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미야지마 히로시 (宮嶋博史), 임지현 선생님 등의 ‘식민지 근대를 보는 시점’ (2004년)과 일중한 3국의 공동교재를 지향한 ‘미래를 여는 역사’ (2005년)가 그 대표적인 성과입니다. 저는 일중, 일한 역사대화를 위해 전공인 페이지 유신 연구를 제쳐두고 글자 그대로 동분서주하는 날을 보냈으나 확실한 반응이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중국과 한국 학자들이 얼마나 혼을 낼지 두근거렸으나 대화를 계속하다 보니 이쪽이 ‘불편한 역사적 사실’에 귀를 기울이는 태도를 갖고 있는 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무리 역사적 사실에 대한 해석이 달랐다고 해도 왜 어긋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냉정한 학술교류를 통해 서로 전문가로서 경의를 표하고 연대감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저는 2008년에 앤드류 고든 (Andrew Gordon) 선생님의 협력으로 하버드 대학에 3국의 역사가들을 초청하여, 하루하고도 만나질 동안 역사대화를 공개적으로 했을 때 그 결론으로 역사 전문가 사이에서는 과거에 대한 인식과 대화는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치인이 ‘이상한 일’만 하지 않는다면 상호 이해는 깊어지고 나중에는 화해도 가능해질 것이라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후 실제로 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2010년에 센카쿠열도 / 다표위다오 영해에서 중국어선이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과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났고, 2012년에는 한국의 대통령이 다케시마 / 독도에 상륙했습니다. 그 직후 일본에서는 제 2차 아베 신조 정권이 성립되었습니다. 이 내각은 교과서 논쟁을 단서로 생긴 일본사가 오류 없다고 주장하는 세력이 지지하는 내각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중한 3국 모두 정부가 이웃나라에 적대적인 정책을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역사가 간의 국경을 초월한 연대감은 무력해질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부차원의 일중한 공동연구의 중국측 좌장이었던 부핑 (步

평) 선생님은 와세다대에서 했던 마지막 강연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역사 전문가들은 국경을 초월한 대화를 가능케 했다. 그러나 그만큼 역사가와 정부, 여론과의 사이는 벌어졌다”. 역사 전문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은 줄어들었습니다. 약 10 년동안 동북아에서 열광적으로 전개했던 역사의 대화는 여기서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류지에 교수님은 그 불리한 정세 속에서 굳이 역사 대화를 다시 일으키고자 했습니다. 그것도 이전의 대화의 주력은 이웃나라의 역사를 전공하는 연구자였기 때문에 이미 상대국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으나, 이번에는 자국사의 연구자를 중심으로 하자고 제창했습니다. 국사 연구자의 대부분은 외국에 무관심하고, 외국어를 할 줄 아는 사람도 적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들이야말로 각국에서 젊은 세대에게 역사를 가르치는 ‘국사’ 교과서를 집필하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내부 깊숙한 곳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제회의의 자리에 끌어내고자 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예전보다 더 깊은 상호이해가 가능해지며 국민들간의 진정한 화해의 기초도 만들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류 지에 교수님이 생각하신 거라고 추측해 봅니다.

이 국사들의 대화는 2016 년에 시작되었습니다. 1 회는 9 월에 기타규슈시에서 준비회를 열고, 중국, 한국, 일본의 국사 속에서 ‘동아시아’가 어떻게 서술되어 왔는지, 중국에서는 고차오광(葛兆光) 님, 한국은 조광 교수님, 그리고 일본은 제가 실정을 소개했습니다. 그 후 이듬해 8 월, 기타규슈시에서 제 2 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약 20 명의 역사학자들이 발표하고 토론하는 대규모 연구모임이었으나, 모든 발언에 일중, 일한, 중한 동시통역을 마련했습니다. 당시 통역을 해주신 통역사 선생님들은 헌신적으로 우수한 통역을 해주셨고, 지금도 계속 맡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제 2 회의 주제는 ‘몽고내습과 13세기 몽고제국의 글로벌화’. 이는 아주 오래된 과거부터 시작하면 오늘날의 ‘국사’ 프레임을 씌우는 비율이 적어지며, 대화하기 쉬워지지 않을까 하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의도대로 내몽골출신의 역사학자들을 포함해 다양한 배경의 선생님들이 솔직한 논의를 해주셨습니다. 저보다 하나 젊은 세대가 참가하여 국경을 초월한 친밀함을 키워가는 출발점으로 해주신 것도 큰 성과였습니다. 제 3 회는 2018 년 8 월 서울에서 개최되었으며 ‘17세기 동아시아의 국제관계 - 전란에서 안정으로’를 논했고, 제 4 회는 한 해 건너뛰고 2020 년 1 월에 필리핀 알라방시에서 “동아시아”의 탄생 -19 세기의 국제질서의 전환’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19가 시작되어, 실제로 대면하는 모임은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이를 기회로 삼아 온라인으로 대화를 계속했습니다. 2021 년 1 월에 제 5 회 ‘19세기 동아시아에서의 전염병 유행과 사회적 대응’, 9 월에는 제 6 회 ‘사람의 이동과 경계 · 권력 · 민족’으로 팬데믹이 드러낸 인류의 공통과제를 역사의 깊이에서 논했습니다. 2022 년 7 월에는 “역사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을 역시 온라인으로 개최했습니다. 이는 전통적인 역사학, 특히 민족주의적 프레임이 씌워진 정치사를 초월하는 역사를 생각

할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동시에 국가들의 대화를 시작했을 때 우려했던 각국 간의 차이와 대립은 사라지고, 오히려 국경을 초월한 공통과제에 우리들의 눈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젊은 세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연장자 세대로서 기뻐합니다. 이 3 번의 온라인 회의는 동시통역사들에게는 똑같이 힘든 통역으로 부담이 되었겠지만 아쓰미재단의 (재정적) 부담은 가벼워져, 비대면 회의라도 얼굴을 볼 수 있는 횟수가 늘어나 멤버 간의 친밀도는 더 깊어졌습니다.

2023 년 8 월에는 오랜만에 대면하는 회의를 와세다대에서 개최했습니다. 주제는 ‘20 세기의 전쟁 · 식민지 지배와 화해는 어떻게 이야기되어 왔는가—교육 · 미디어 · 연구—’. 사실 이것은 우리들이 ‘국가들의 대화’ 를 시작했을 당시 최종목표로 생각했던 주제였습니다. 20 세기 전반부의 일본이 이웃나라에 남긴 상흔, 그것을 어떻게 정리하면 국민차원의 화해가 가능해질 것인가.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논해야 할 점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발표와 토론에서는 국가마다 다른 관점이 나왔기 보다는 오히려 같은 국내에서 다양한 관점이 제시되었고, 나아가 외국 측의 입장을 깊게 이해하고자 하는 발표도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이 문제를 푸는 진정한 길이 되는 것이 아닐까요? 지금도 외국과의 과거는 정치문제가 되는 일이 있지만 그것은 상대국의 현황과 행동등이 과거 자체의 인식에 관계되기 보다는 국내의 정치문제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것은 과연 바람직한 일일까? 하는 반성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번에 개최되는 장소는 방콕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할까요? 여전히 동북아시아 3 국의 ‘국사’ 간의 대화가 과제이기는 하지만 여기에 동남아를 끼워 넣으면 무엇이 보이게 될까요?

제 4 회 대화는 필리핀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거기서는 본래 서양인들이 생각한 ‘아시아’ 라는 지리적 개념이 19 세기 동아시아에서 정치적이고 지정학적인 개념으로 고쳐져 사용되었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 후에 3 국이 새롭게 등장한 서양을 어떻게 인식했는지, 그것은 자국의 전통을 다시 인식할 때 어떤 식으로 연결되었는지?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동하기 시작했는지에 대해 논했습니다. 19 세기에 일어난 사건들이었으므로 3 국의 관계는 아직 긴밀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주목했던 부분은 ‘상호관계’ 보다 ‘비교’ 였습니다. 사실 일중한 3 국 모두 개최지인 필리핀과는 관계성이 약했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3 국 대화를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를 주제로 내걸었습니다. 이론상으로 동남아와 일중한 3 국이 어떻게 관련되었는가,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으로 어떤 상호관계를 체결하였는가, 3 국은 어떻게 경쟁하고,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났는가, 나아가 그것이 각국의 ‘국사’ 에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거기에 반성할만한 자료는 없는가 등을 논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필리핀 때와는 달리 대상으로 삼은 시대가 현대와 가깝기 때문에 각국 모두 동남아와 실질적인 관계를 갖고 있으며, 각국에서 동남아와의 관계를 논하기도 쉽습니다. 나아가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 측이 동북아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그 ‘국사’ 에 일중환을 어떻게 위치시키고, 말하고 있는가 하는 역방향의 논의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충분한 논의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동북아 각국이 동남아와 깊은 관계를 가진 역사는 매우 최근의 일이며, 나아가 일중한의 경험이 상당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 역사가인 제가 동남아와 동북아와의 관계에 대한 역사를 말하는 것은 주제넘은 일이지만 다음 회의 여러분이 오늘 발표, 토론을 이해하기 쉽도록 아래에서는 굳이 역사적인 배경을 부감해보고자 합니다.

본래 역사가들이 하는 방법과는 반대로 최근의 데이터를 보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여기서 보실 그래프는 동북아 3국과 ASEAN 가입국과의 관계가 최근 들어 어떻게 추이되었는지, 무역과 직접투자 면에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로 ASEAN이 2001년부터 간행한 통계연보에 따라 일부는 JETRO가 공개하고 있는 데이터도 참조했습니다. 또한 ASEAN의 범위는 1967년 창립 시에는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였던 것이 1984년에 브루나이가 가입했고, 그 후 냉전시대가 종결되자 1995년에 베트남, 97년에 라오스, 미얀마, 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하여, 10개국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래프를 봅시다. 그림 1은 1993년부터 2022년까지의 동북아 3국 대 ASEAN과의 무역총액(수출과 수입 합계)을 ASEAN 내부의 상호무역의 액수와 함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계재 생략) 여기서 금방 알 수 있는 것은 2002년과 2012년 사이에 단절이 있었으며, 전체금액이 급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ASEAN 가입국이 늘어나도 곧장 무역이 늘지는 않았는데 2007년 이후에는 급증했습니다. 이는 ASEAN 가입국의 수입력이 늘었다, 즉 급속한 경제발전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ASEAN 역내의 상호무역이 급증한 것을 보더라도 그것은 분명합니다.

한편 초기에는 일본과 미국, EU 등이 주된 무역상대국이었으며, 중국과 한국의 비중은 적었는데, 2007년 이후에는 중국이 급증했고, 나아가 한국도 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비하면 일본의 수출은 늘지 않고 오히려 줄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이는 일본이 ASEAN과의 경제관계가 희박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기업들은 상품의 수출보다는 ASEAN 현지로의 직접투자로 활동의 중심을 옮겼을 뿐입니다. 승용차와 가전제품, 그들의 부품 등의 공장을 만들어, 그 제품을 현지뿐 아니라 ASEAN과 일본, 세계 각지에 판매하는 쪽으로 경영전략을 바꿨습니다. 그로부터 10년 후에는 중국과 한국의 직접투자도 활발해졌습니다.

다음으로 동북아 각국과 ASEAN 국가의 관계를 수출 면에서 보도록 합시다. 그림 2입니다. (계재 생략) 일본은 당초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와 관계가 깊었고, 그 뒤를 인도네시아가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2010년 이후는 태국이 급증하여 싱가포르와 어깨를 나란히 하게 되었고, 한편 다른 나라에 하는 수출은 더 이상 늘지 않거나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대베트남 수출이 일관되게 늘고 있어 2020년에는 3번째로 큰 수출상대국이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인데, 전반부의 수출액은 미미하지만 후반부에는 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대상은 매우 편중되어 있어, 처음에는 싱가포르, 최근에는 베트남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올해 겨울 저는 베트남 달랏과 다낭을 방문했는데 어느 도시를 가더라도 관광버스를 탄 한국인 관광객으로 넘쳐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의 다른 나라가 적는데, 특히 인구가 많은 인도네시아가 눈에 띄지 않는 것은

왜 그런지 매우 이상합니다

이에 비해 중국은 모든 나라와 관계가 깊습니다. 처음에는 국내에서 소비되는 것이 많아서 수출이 많지 않았으나 먼저 싱가포르와 관계가 깊어지다가 이어서 2010 년 이후에는 모든 나라로 수출을 늘리고, 특히 베트남으로의 수출은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존재감이 있습니다.

이상을 정리해보면 동북아와 동남아의 경제관계가 깊어진 것은 일본을 제외하면 최근 십 수년 정도에 불과하고, 일본과 한국은 상대국이 편중되어 있고, 중국은 모든 나라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시대를 건너 뛰어 오래된 시대에서 현재까지 내려와 봅시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뭐니뭐니해도 화교의 존재입니다. 동남아와 가장 오래 전부터 관계를 가져온 북쪽 사람은 육지로 이어진 땅에 사는 사람들, 광의의 한족이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조선과 일본은 열악한 지리적 조건으로 말미암아 동남아와는 소원했습니다. 동남아 대륙의 먼바다에는 활 모양의 열도가 줄지어 있고, 대륙과 그 사이에 비교적 항해를 하기 쉬운 바다가 있습니다. 현지인과 한족은 이곳을 무대로 교역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한족은 나아가 송대에 해상교역이 번창했을 때 동남아 각 지역으로 바다를 따라 이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른바 화교입니다. 당시에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동남아에는 중국 기원의 사람들이 몇 층에 걸쳐 퇴적해 있습니다. 그들은 현지인들과 혼혈을 하는 한편, 아버지 나라와의 관계를 유지해 왔으나, 중화 왕조와의 정치관계는 한정적이었습니다. 동남아의 각 왕조가 중화왕조와 조공관계를 맺었을 때 교역선을 움직인 것은 그들이었으나 정치적으로 그들의 지배하에 있었는가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현재도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16 세기가 되면 일본인과 조선인도 동남아에 나타났습니다. 서양인의 등장과 함께 대륙 연변의 해상교역이 더욱 활발해져 그것이 북쪽으로 확장해갔고, 이에 편승하여 반대로 남하해 온 것입니다. 일본인은 아유타야와 베트남의 호이안 등에 상관을 설치했습니다. 또한 조선인도 류큐왕조를 통해 동남아와 관계를 가졌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북쪽과의 관계는 17 세기 초, 일본이 쇄국정책을 한 것을 계기로 일단 중단되었습니다. 상품은 동남아에서 중국의 항구를 거쳐, 류큐 내지 나가사키를 통해 일본으로 흘러 들어오고, 그와 반대로 나가사키와 류큐에서 중국을 거쳐 남하하는 움직임도 있었으나, 인적 교류는 단절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은 최근 팬데믹 기간 때 세계 각국이 실시했던 국경 폐쇄, 인적 교류의 제한을 스스로 시작했습니다.

일본과 동남아 관계가 다시 시작된 것은 19 세기 후반 일본의 개국 후입니다. 일본 상인들은 동남아의 항구에 상관을 설치하고, 매춘부도 이를 따라갔습니다. 그 후의 무역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중요한 일이었으나 저는 잘 모릅니다. 오늘 발표에서 공부하고자 합니다. 또한 조선인들과 동남아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일제 강점기 시대를 포함해 공부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후의 남북관계에서 큰 사건이라고 한다면 뭐니뭐니해도 일본의 동남아 침공을 들 수 있습니다. 일본군은 1940 년대에 중국대륙뿐 아니라 동남아로 출병

하여 싱가포르를 공략하고, 베트남을 프랑스와 분할 통치하고, 말레이반도를 지배한 후 미얀마를 거쳐 인도까지 침공하고자 했습니다. 당시 태국은 직접적인 지배를 피할 수 있었으나 말레이의 화교들은 일본군으로부터 심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중일전쟁 시작 이후 모국을 열심히 지원했기 때문입니다. 일본은 각 지역에서 민족에 따라 대응을 달리했습니다. 각 지역에서 지금 그것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지 배우고자 합니다.

일본 본국이 미국에 패퇴한 후 동남아는 일본의 지배를 벗어났습니다. 그 후 우선 구식민지 세력인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이 돌아왔습니다. 현지인들은 그들로부터 독립할 것을 과제로 삼았습니다. 그 때 일본과의 나쁜 과거의 기억은 어떻게 취급되었을까요? 아마추어 시각에서 볼 때는 많이 뒤로 물러난 듯이 보입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것일까요?

마지막으로 일본의 재등장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본 본토는 모든 도시에 폭격을 맞았고, 연합군(미점령군)은 일본의 공장설비를 해체시켜 일단 경제적으로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러나 냉전이 시작되자 미국은 태도를 바꾸어 일본의 부흥 지원을 단행했습니다. 그 당시 동남아시아를 일본의 경공업 수출 상대국으로 남겼다고 들었습니다. 또한 일본의 동남아 각국에 대한 배상도 경제관계를 강화시키는 실마리가 된 듯 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20세기 동안에 동남아와 동북아의 통상 중 초기에 일본이 돌출된 위치를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와 같은 배경이 있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당연하게 사용해 온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에 대해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는 현지인들이 지은 명칭이 아닙니다. 듣자 하니 1840년에 미국 선교사가 책을 쓰면서 이 단어를 사용한 것이 초기의 사례라 합니다. 그러나 ‘동남아시아’가 정치적 의미를 갖고 빈번하게 사용되는 것은 2차 세계대전 말기에 미국이 일본의 지배를 뒤집어놓기 위해 ‘동남아시아 사령부’, 나아가 미국무성에 ‘동남아시아과’를 마련한 후부터 인 듯합니다. 이 용법은 거의 동시에 학문적인 저작에도 사용되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만 처음부터 국제정치 상의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습니다.

그것을 더욱 강화시킨 것은 베트남전쟁이었습니다. 현지인들도 이것을 스스로의 정체성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1967년 5개국(태국,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필리핀, 말레이시아)이 ASEAN(Association of Southeast Asian Nations)을 결성했습니다. 토대가 된 것은 말라야 연방, 태국, 필리핀 3개국이 1961년에 만든 Association of Southeast Asia로 여기에 베트남 전쟁 중에 인도네시아와 싱가포르가 더해져 ASEAN이 되었습니다. 배경에는 동서냉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후의 발전이 재미있습니다. 베트남 전쟁이 종결된 후 1984년에 브루나이가 가입하고, 나아가 냉전이 전반적으로 끝난 후, 1995년에 베트남, 97년에 라오스, 미얀마, 99년에 캄보디아가 가입했습니다. 대륙부와 도서부의 거의 전역에 걸쳐 포괄적인 Region이 성립되었습니다. 거기서는 정치체제의 차이를 넘은 다각적인 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의 미얀마에 대한 태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직접적인 간섭은 피하되 무시하지도 않는다는 식으로 신중하게 운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지역적인 공동체는 역내의 통상확대라는 점에서 눈부신 성과를 올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편 ASEAN 의 또 하나의 특징은 개방성과 다층성에 있습니다. 지역공동체는 국가에서 전형적으로 그러하듯이 내부적으로 단결을 강화하기 위해 외부와는 장벽을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ASEAN 에는 반대의 행동이 눈에 띕니다. 1997 년 아시아 통화위기를 겪은 후에는 일중환을 더한 ASEAN +3 를 출범시켜 역외 국가와의 관계를 심화시켰습니다. 이는 후에 2011 년에는 호주와 뉴질랜드까지 더해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 (RCEP: Regional Comprehensive Economic Partnership) 으로 확대, 발전되었습니다. 자유무역을 통해 원하는 관계를 증진시키는 것이 이념인 듯합니다. 이에 앞서 1989 년에 아시아 태평양의 21 개국 이 보다 광역적인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을 창립했으나 RCEP 은 이를 선도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장벽을 세우지 않고, 다층적이고 유연한 협력관계를 구축해가는 것이 ASEAN 의 이념이며, 특징이겠죠.

우리 일중환 3 국의 역사가들은 오늘 이와 같은 지역과의 관계를 생각해가고자 합니다. 국가간의 관계로 한정시키지 않고, 사람들이 맺어 온 다양한 유대감, 그리고 대립에 주목하고 그것이 어떻게 처리되어 왔는지를 돌아보고 향후 유대감을 어떻게 심화시킬 것인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상 일본의 한 국사학자의 견해를 소개했습니다. 비전공자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부디 각 발표에서 정정해주십시오. 오늘의 회의가 끝나면 “생각지도 못한 지적 수확을 얻게 되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회의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1 세션

[기조강연]



포스트식민주의 시대 ‘국족주의’ 충돌 원인에 대한 고찰

—마오 시대 및 포스트 마오 시대
중국의 대일 정책 변화를 실마리로—

양 쿠이쑹

베이징대, 화동사범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박현]

SGRA 109 | REPORT

1. 머리말

먼저 한 가지 사항에 대한 설명부터 드려야 할 것 같다. 본고에서 사용하는 ‘국족주의(國族主義)’라는 용어는 일부 타이완과 일본 학자들의 용어를 빌린 것인데 이는 ‘민족주의(民族主義)’라는 용어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함이다.

한 편으로 이는 필자가 그린펠드(Liah Greenfeld)의 민족주의(nationalism)에 대한 구분에 찬성하기 때문이기도 하다. 다시 말하여, 근대 국민국가의 민족주의는 전통적 의미의 민족주의와 다르다는 것이다. 전자는 동등한 권리·지위에 기반한, 국가에 대한 동일한 정치적 인식 아래 규합된 것으로 ‘국민 민족주의’로 불러야 맞다. 예를 들어 많은 민족과 종족이 모여 결성한 ‘아메리칸 민족’이 그러하다. 후자의 경우는 전통적 의미의 단일 민족을 말하며 ‘종족 민족주의’로 칭해야 할 것이다¹. 이러한 이해에 기초함과 동시에 중국이 전형적인 다민족 국가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단순히 ‘민족주의’(혹은 ‘중화민족’)라는 용어로 중국 내 각 민족의 공통 의지를 지칭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다.

다른 한 편으로, 중국공산당은 계급투쟁론자이다. 이 때문에 계급투쟁론에서 주장하는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의 시점에서 볼 때 민족주의는 부르주아와 뺨치 부르주아의 이데올로기로 여겨진다. 중국공산당은 중국 사회의 낙후한 발전 현실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부르주아와 연합하여 민족 민주주의 혁명을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하여 ‘혁명적 민족주의’와 같은 개념을 사용하기도 했던 것이다. 하지만 중국공산당의 역량이 커지면서 1948년 말에 건국을 준비할 때는 이미 공

1 格林菲尔德著, 王春华等译, 《民族主义: 走向现代的五条道路》, 上海: 上海三联书店, 2010年; Ernest Gellner 著, 李金梅等译, 《國族與國族主義》, 臺北: 聯經出版事業有限公司, 2001年 등을 참조.

개적으로 ‘민족주의’의 주장과 개념과의 이별을 선택하고 철저하게 프롤레타리아 국제주의를 실행할 것을 선포하게 된다². 이상의 이유로 말미암아, 본고에서는 부득이하게 ‘국족주의’라는 용어를 잠시 차용하기로 한다.

필자 개인은 류지에 교수 등이 주장하는,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의 형성을 위한 일련의 학술 활동의 전개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한다. 사실상 ‘전통적인 국민국가 중심의 내러티브를 초월한’, ‘각국의 역사, 관념, 제도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연구에서 보이는 사고방식과 서술방식³, 지난 세기말부터 점차 국제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역사학계의 조류가 되었다. 트랜스내셔널 역사학, 글로벌 역사학, 인류사와 지구의 각 지역에 착안한 문명사의 연구는 이미 전통적인 국민국가의 역사 서술에 일정한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다만 분명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역사 연구와 역사 교육에만 의거해서는 국가 간, 민족 간의 역사적 갈등과 현실적 이해관계로부터 기인한 대립과 충돌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국가 정권의 강제력이 역사 연구, 특히 역사 교육에 대한 영향력이 지대하다는 점만 언급할 것이 아니다. 정치, 경제, 문화 등 여러 방면의 역량이 공동으로 작용하는 것을 떠나서, 공통적 가치관과 그에 상응한 정치, 법률 제도적 기초, 특히 이와 같은 토양에서 성장한 근대 정치 엘리트의 안목과 활동을 떠나서는, 진정한 의미의 국가적, 민족적 화해는 이루어지기 어렵다.

우리가 여태껏 ‘서방 중심론’을 어떻게 평가해 왔든, 이 세상에서 비교적 성공적으로 국가적, 민족적 화합을 실현해 낸 유일한 사례는 서방(유럽)에서만 찾을 수 있다. 몇 세기 동안의 숙적이었던 프랑스와 독일이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단계적으로 역사적 화합을 이루어 낸 것은 유럽 일체화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며 그 후 유럽의 많은 기타 국가 간에서도 역사적 화합이 실현될 수 있게 하였으며 진정한 의미에서의 국경을 초월한 유럽 연맹이 건립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는 우리에게 많은 계시와 시사를 가져다준다.

프랑스와 독일의 화합 과정을 고찰해 보면, 화합이 실현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양국의 이데올로기(혹은 가치관)와 정치제도가 기본적으로 일치하였기 때문임을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이는 세계대전 이전에는 상상할 수조차 없었던 일이었다. 다음으로 이러한 일치성의 기초 위에, 양국의 정치 엘리트는 반복되는 전쟁이 가져다주는 역사적 비극을 피하기 위하여 갖은 방법을 동원하여 양국 간에 수백 년 동안 지속되어 온 영토 분쟁 등의 문제를 해결하였다. 종전 후 몇 년이 지난 뒤, 프랑스 외무장관은 독창적인 ‘슈만플랜’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라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룩셈부르크 등 6국의 합의로 ‘파리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이 조약의 체결로 오랫동안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충돌 근원이었던 영토와 국경 문제는 일거에 해결되었다. 즉 유럽 2위의 석탄 수출 지역인 알자스-로렌 지역의 석탄, 강철 자원은 양국 공동 참여와 서유럽의 모든 국가에 개방된 연합 관리 기구 산하 소속으로 귀결된다. 이 조치는 양국이 본국의 이익만을 고려하여 독점을 위해 전쟁도 불사하던 전통 관념을 근본적으로 바꾸었다. 분쟁 사안을 내려놓고 공동 개발과 공동 수익의 해결

2 刘少奇,《论国际主义和民族主义》,《人民日报》1948年11月7日, 제1, 제4면.

3 入江昭著, 邢承吉等译,《全球史与跨国史: 过去, 现在和未来》, 杭州: 浙江大学出版社2018年, 제3-5쪽.

책을 취함으로써 '국제 체제 내에서의 민족 자체의 이익 실현이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는 기타 유럽 국가 간의 영토 분쟁 해결에 경험과 본보기를 제공하였다. 이로 하여 프랑스와 독일 양국의 정치, 경제, 문화 관계가 근본적인 개선을 가져오게 되었으며 수백 년 동안 양국 간에 누적되었던 역사적 상처와 갈등도 역사가, 교육가를 포함한 학계와 언론계의 공동 노력으로 점차적이나 전면적으로 해소될 수 있었다⁴.

프랑스와 독일 간의 역사적 화해와 유럽 일체화의 진척과는 대조적으로, 포스트식민지 시대의 중일 간의 역사적 화해와 아시아 일체화 및 기타 탈식민지 발전도상 국가와 민족 간의 화해 과정은 하나 같이 완만한 진전과 수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일 간의 역사적 화해 문제의 변천 과정을 보면 이상하리만치 납득하기 어려운 양상을 보인다. 마오 시대와 포스트 마오 시대에 있어서 중국 대륙과 일본의 관계는 점점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한 것이 아니라, 양국의 노력으로 이룩해낸 30~40년 동안의 호전을 거듭하던 상황이, 최근에 이르러서는 계속되는 퇴보로 말미암아 미래에 대한 예측을 불허하는 위험한 지경까지 이르렀다는 사실이다. 마오(쩌둥)과 저우(엔라이) 세대가 일본 정계, 상계, 군계에서 건립했던 밀접한 소통 경로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마오 시대에 건립되고 덩(샤오핑), 후(야우방) 시대에 연속성을 보여주면서 발전을 이어갔던 양국의 대규모적이고 열성적이었던 민간, 청년, 문화, 체육 차원의 교류도 더 이상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양국 국민 간에 존재했던 과거의 호감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역사 최저점을 기록하고 있다. 이와 반대로, 마오 시대에는 부르주아와 뿌띠 부르주아 계급의 반동사상으로 탄압되었던 '민족주의'⁵가 부활하여 중국 대륙의 '긍정 에너지(正能)'로 부상하면서 대접을 받고 있다. 마오쩌둥이 거듭 말했던, 일본이 사과만 거듭하게 하지 말고 과거를 들추는 일은 더더욱 하지 말자고 했던 것이⁶, 오히려 현재의 중일 관계가 날로 긴장을 더해가는 근원으로 되고 있는 것이다.

과연 이러한 판단이 정확할까?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된 것일까?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아래에 필자 개인이 직접 겪은 사건과 직접 적 견문에 비추어, 필자가 느낀 중국 측의 문제에 대해 간략한 고찰과 토론을 진행해 보고자 한다.

2. 마오 시대 및 포스트 마오 시대 중국의 일본에 대한 태도 변화

필자는 1990년부터 거의 해마다 중국 항일전쟁사 연구 관련 학술회의에 참가

4 杰弗里·帕克著, 刘从德译, 《地缘政治学: 过去、现在和未来》, 北京: 新华出版社, 2003年, 제73쪽; 戴启秀, 《和解外交: 超越历史的欧洲一体化》, 《国际观察》2007年第4期등을 참조.

5 중국공산당 중앙은 건국 전야에 류사오치의 명의로 《论国际主义与民族主义》(《人民日报》1948年11月1日, 제1, 제4면)라는 문장을 발표하여 정치적으로는 공개적으로 '민족주의'와는 선을 그었다.

6 《毛泽东会见日本国会议员访华团的谈话记录》, 1955年10月15日, 中共中央文献研究室编, 《毛泽东外交文选》, 北京, 中央文献出版社, 1994年, 제226쪽; 《毛泽东接见日本社会党议员黑田寿男的谈话记录》, 1961年1月24日.

해 왔다. 10년 가까이 계속되었던 회의 참석은 2000년 이후부터는 중단되었다.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2003년 ‘항일전쟁연구’ 제3기에 발표한 글에서 설명한 적이 있다. 요약하면, 항일전쟁사에 대한 중국 국내의 연구가 2000년 이전에는 그래도 학술적 연구 정신으로 접근하고 대화가 진행되었다면, 90년대 말부터는 점차 감정적인 비판적 언술이 이런 유의 학술회의를 지배하게 되었기 때문이다⁷.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필자가 마지막으로 참석했던 모 회의에서,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의 한 연구자가 발표를 진행하던 도중에 누군가가 그의 발표를 저지하고 훈계하던 망신스러운 장면이다. 당시 발표자가 아직도 ‘일본 민족의 열근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일본에 대한 환상을 품고 있냐고 질책하던 사람들은 주로 연배가 있는 몇몇 원로 학자들이었으며, 그 선두에 나선 이는 미국에서 퇴직한 중국계 미국인 교수였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일까? 기존의 항일전쟁사 연구는 기본적으로 역사 사실에 근거하여 진행되었다. 왜 1990년대의 마지막 몇 년 동안에 이와 같은 전환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일까? 적지 않은 이들이 평가하기로, 이는 1992년 덩샤오핑의 ‘남순강화(南巡講話)’ 이후로 중국의 개혁개방이 가속화되고 국력이 향상되면서 중국인들의 심리가 바뀌어 국족주의 정서가 급격히 고양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게다가 90년대 말부터는 인터넷의 신속하게 보급으로 포퓰리즘(民粹)의 범람과 대외적인 국족주의가 안팎으로 결을 같이하면서 민중적 기초가 전례없이 확대되었으며 국족주의의 바람은 걷잡을 수 없이 커져만 갔다는 것이다.

이러한 판단이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 국력의 급속한 향상이 중국인의 국족주의 정서의 급속한 고양을 초래했다는 논리는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왜냐하면 1990년대의 중국이 전 세계 GDP 중에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2% 정도로 그전의 70, 80년대 수준을 회복한 정도이기 때문이다. 중국의 전체적 국력은 그 전에 비해 눈에 띄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그뿐만 아니라 이 시기의 GDP 비중이 1.6%에서 2%로 상승한 것은 덩샤오핑 남순강화 이후로 시작된 경제 과열과 정부 재정의 급진적 투자와 인민폐의 과도한 발행으로 인하 환율 거품도 있었다. 1996년 이전의 몇 년 동안 광의 통화(M2)의 증가율은 30%까지 치솟았으며 CPI 연평균 증가율은 지속적으로 20%대를 초과하였으며 심지어 24%를 돌파하여 서민들의 생활에 직접적인 충격을 가져다주었다. 엄중한 재정과 금융 위기 극복을 위하여, 중국 중앙정부는 1993~1995년 사이에 몇 차례의 대규모 개혁을 감행하였으며 1995년에는 단번에 관변 공식 환율을 50%나 떨어뜨리기까지 하면서 외환 규제를 강화하였다. 2년 남짓한 시간의 각종 개혁 조치를 거쳐서야 중국 경제는 겨우 연착륙을 실현할 수 있었다. 중국 경제의 비약적인 발전은 2001년 WTO 가입 성공 이후의 일이다. 정부 관원으로부터 일반 서민에 이르기까지 진정으로 심리적 변화가 일어난 것은 대부분 21세기 전후 몇 년 동안의 일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점에 관해서는, 1990년대 말부터 2000년대 초에 이르는 신문, 잡지와 인터넷상의 기사들을 회고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1996년 장샤오보(張小波) 등

7 楊奎松, 《用历史的眼光来看待中日关系》, 《抗日战争研究》2003年第3期.

은 일본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郎)의 책 『‘노(No)’ 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를 패러디하여 『‘부(No)’ 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⁸이라는 책을 엮어 포퓰리즘을 조장함으로써 상업적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당시 신문, 잡지나 인터넷상에서 이 책에 대한 의혹과 비판의 목소리가 컸으며 이런 목소리를 억제하는 일 또한 없었다. 2000~2003년에 이르러, 마리청(馬立誠), 스인홍(時殷弘), 펑자우쿠이(馮昭奎) 등이 중일 간의 화해를 실현하고자 ‘신사유(新思惟)’⁹를 제기하였을 때에는 이미 신문, 잡지나 인터넷상의 반대 여론은 긍정과 지지의 목소리에 비할 때 현저하게 강하였다. 그 이유는 1998년 중국 지도자가 일본 방문 시에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나 일본의 역사 인식을 비판하는 일이 있었으며 2001-2003년 사이에 일본 총리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郎)가 중국 측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나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일반 네티즌들의 댓글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여론이 완전히 비판 일색으로 치우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1980년대에 덩샤오핑과 후야오방이 추진했던 중일 친선 사업이 이룩한 젊은 세대 중의 대일 호감이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음을 반영하였다고 하겠다. 1978년에 덩샤오핑이, 1983년에 후야오방이 일본을 방문하여 ‘중일우호화평조약’을 체결하고 ‘중일 우호 21세기 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써 중일 청년 간의 친선 교류를 촉진하였다. ‘그대여, 분노의 강을 건너라(중국어 번역: 追捕)’, ‘붉은 의혹(중국어 번역: 血疑)’ 등 일본 영화와 드라마가 수입되어 중국 방송을 탄 것은 그 시대에서 성장했던, 필자를 포함한 젊은 세대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로부터 우리는 한 가지 현상을 쉽게 발견한다. 즉 펑자우쿠이가 말했던 것처럼 “중일 관계에 있어서 한 가지 중요한 특징은, 지도자 개인의 역량이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한다는 점”이다¹⁰. 적어도 중국의 경우에 있어서 이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덩과 후가 추진했던 중일 친선 정책의 기본은 마오와 저우의 시대에 제정된 것이며 대대로 고수하여야 할 정책방침이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성야소하, 패야소하(成也蕭何, 敗也蕭何)’라는 말처럼, 지도자 개인 역량에 대한 과도한 의지는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이다. 중국과 같이 장기적인 위압 정치가 실행되고 있는 국가에서는 지도자의 인사 관련 변동이 중요한 변수가 된다. 덩샤오핑이 일본을 향해 말했던, 국가 지도자의 변동이 중국 대일 정책의 기정 기조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라는 약속은 지켜질 수가 없었다¹¹. 사실상 지도자 개인의 역할은 엄청나다. 세대교체로 인한 지도자 개인의 성격, 경험, 능력의 차이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하며, 서로 다른 시대적 조건과 관념, 제도, 민의, 나아가 일본 측과 국제 정치적 환경 등 여러 요소의 변화는 더 말할 나위도 없다. 동일한 이슈에 대한 전후 세대 지도자의 의중에 별 차이가 없는 경우에도 여러 요소의 변화와 작용으로 인하여 전혀 다른 두 가지 결과로 나타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했던 중국 항일전쟁사 관련 회의에 참석한 학자들 내부에서, 특히 일

8 宋强等,《中国可以说——冷战后时代的政治与情感抉择》,北京:中华工商联合出版社,1996年.

9 马立诚,《对日关系新思维——中日民间之忧》,《战略与管理》2002年第6期;时殷弘,《中日接近与外交革命》,《战略与管理》2003年第2期.

10 冯昭奎,《中日关系的“进”与“退”——基于“区分开来”原则预测的可能前景》,《日本学刊》2017年第1期.

11 裴华编著,《中日外交风云中的邓小平》,北京:中央文献出版社,2002年,제281-282쪽.

부 원로 학자들의 태도 변화를 생각해 보도록 하자. 왜 그들은 90년대 말 이전에는 감정적인 언설을 보이지 않았으나 90년대 말을 전후로 갑자기 흥분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 것일까? 이에 대해서도 역시 필자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들도록 하겠다.

필자는 1990년 연말부터 중국사회과학원 근대사연구소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근무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연구소로부터 방문단을 구성하여 일본에서 열리게 되는 근대 중일 관계사 심포지엄에 파견할 예정이라는 소식을 접하였다. 어느 날 오전, 출근하여 보니 해당 일본 심포지엄에 파견될 선생님들은 모두 회의실에 소집되어 가 있었다. 회의가 끝난 후, 심포지엄에 파견되기로 내정된 같은 연구실 선생님이 자리로 돌아왔는데 얼굴색이 말이 아니었다. 이야기를 들어 보니 외교부 아시아사(司) 일본처(處)의 한 부처장이 소집한 회의였는데 상부의 명령으로 오로지 ‘외교 기율’ 강조를 목적으로 연구소까지 찾아온 것이었다. 그 ‘기율’이라는 것의 주요 내용은, 중국 측 심포지엄 참석자들로부터 분쟁을 일으킬 만한 어떠한 주제의 학술 발표 혹은 관련 언설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중일 친선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구체적으로 어떤 주제가 분쟁을 불러오고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지에 관하여, 그 부처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하기를, 예를 들어 난징대학살을 말해서는 안 되고 심지어 노구교사변에서 어느 측이 먼저 발포하였는 지도 언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당시 필자가 소속되어 있었던 중외관계연구 제1연구실의 몇몇 선배 연구자들은 오랫동안 ‘제국주의 중국 침략사’를 연구하고 있었으며 문화대혁명이 종결된 이후에는 공동연구로 ‘일본 중국 침략사’를 집필 중이었는데 이미 60만 자 정도의 『일본 중국 침략 70년사(日本侵華七十年史)>』 원고가 완성되어 있었다. 그러한 연구자를 근대 중일 관계사 심포지엄에 파견하면서 그들이 심혈을 기울인 업적이자 관심사인 연구 테마들을 일본 학계의 연구자들과 토론하는 것을 금하는 것은 깊은 불만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공산당은 항상 당을 관리하는 방식으로 국가를 통치한다는 것이 문제이다. ‘외사 기율’이 학술 분야에까지 영향을 미칠 경우 그것은 당의 ‘선전 기율’이나 다름없다. 중국사회과학원과 같은 절반 국가기관 성격을 띠는 기구에서 오래 근무하다 보면 마오 시대에 이런 유의 ‘기율’이 얼마나 엄격했는지 모를 수가 없다. 그 당시, 한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해야 하고 무엇을 연구하지 말아야 하는지는 ‘기율’의 관리를 받아야 했다. 모두가 이를 당연하게 여겼고 어떤 불만도 있을 수가 없었다. 개혁개방 이후에는 이런 규정들이 느슨해지면서 ‘연구에는 금지구역이 없고 선전에는 기율이 있다’는 식으로 변하게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상부에서는 더 이상 연구자가 무엇을 연구해서 안 되는지를 제한하지 않게 되었고, 오직 ‘선전’에 한해서만 제약이 존재한다는 것이었다. 당의 ‘선전 기율’의 범주에 있어서는 어떠한 발표, 출판, 공개 석상에서의 언설이든 반드시 기율을 지켜야 했다. 그러기 때문에 외교부가 외교 사무를 진행하는 현실적 필요로 인하여 해외 회의에 참석하는 학자를 향해 무엇을 말할 수 있고 무엇을 말할 수 없는지를 규정하는 것은 별로 이상한 일이 아니었다. 이에 대해 일부 연구자들이 불만을 가지게 된 가장 중요한 원인은 시대가 변하였고 개혁개방이 되어 사상 해방이 제창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제국주의 중국 침략사를 연구하는, 더욱이 일본의

중국 침략사를 연구하는 학자로서는 일본 우익 세력들이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고 있다는 뉴스들이 계속하여 나오는 상황에서 역사 진실을 규명하고 회복하려는 사명감이 강렬해지는 것 역시 자연스러운 일이다. 상부와 하부 간의 이런 충돌이 결국에는 그 반작용으로 머지않아 새로운 세대의 국가 지도자의 판단에까지 영향 주게 될 것은 뻔한 일이다.

3. 마오 시대와 포스트 마오 시대의 ‘여론’ 과 ‘민의’ 의 역할 변화

필자는 중앙당교에서도 여러 해 동안 근무한 적이 있다. 거기에는 도서관 한 군데가 있고 각 교학연구실마다에 자체로 관리하는 전문 자료실이 있는 외에, 중국 전역의 최신 동향을 비교적 빨리 접할 수 있는 ‘자료관’ 이 하나 있었다. 이 자료관에는 전국의 각 성, 시, 자치구와 중앙정부의 인민대표대회, 정치협상회의, 국무원 각 부서 및 위원회, 중국공산당 중앙 각 부서 및 위원회와 신화사 등을 포함한 기관들로부터 정기적으로 중국공산당 중앙에 보고하는 내부 간행물과 상황 보고서가 들어 있었다. 중요한 사안에 관해서는 그 상황 진전에 대해 반달 1보고, 하루 1보고, 2~3일 1보고 등의 형식을 취하는 경우도 있었다.

바꾸어 말하면, 마오 시대부터 이미 중국공산당 고위층은 ‘여론’ 과 ‘민의’ 를 굉장히 중요시하였으며 전국 범위의 ‘여론’ 과 ‘민의’ 의 동향을 기본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방대하고 엄밀한 정보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오가 경솔하게 여러 가지 재난성 사건을 초래한 것을 보면 이러한 사태와 그의 개성, 경력, 전쟁 경험과의 연관성을 부인할 수가 없다. 전쟁 시기의 마오는 뛰어난 전략지휘가이자 모략에 능한 정치가였지만, 전략과 모략으로 신속한 성공을 거둔 그의 경험은 동시에 그가 날이 갈수록 자신의 주관적 판단을 더욱 견지하도록 만들었다. 마오가 당내에 존재하는 다른 목소리에 대해 “보수”, “작은 발 여인(小脚女人)” 게다가 “우경기회주의” 라고까지 하면서 거듭 비판한 것은 관련 부문에서 진실을 말할 수 있는 용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화사의 ‘내부참고(內部參考)’ 를 예로 들면 그 창간 자체는 마오쩌둥이 지시했던 일이며 목적은 소수의 고위 간부만이 읽을 수 있는 매체 설립을 통하여 언론에 공개하기에는 부적절하나 고위층에서 마땅히 알고 있어야 할 사안들에 대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그 실상은, 마오가 처음부터 ‘내부참고’ 의 기사를 선택적으로 읽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내부참고’ 의 보도가 자신의 정책을 반영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매우 불쾌하게 여겼다. 특히 1956년의 ‘경솔함을 반대함을 반대한다(反反冒進)’ 는 운동과 1957년의 반우파운동 전후쯤, 마오는 여러 차례나 신화사 책임자 우령시(吳冷西)를 암시하여, ‘내부참고’ 가 우려의 목소리만 보도하고 좋은 소식을 보도하지 않는 것은 맞지 않다고 압력을 가하였다. 1958년에 대약진운동이 폭발한 이후, ‘내부참고’ 역시도 ‘인민일보’ 와 마찬가지로 대약진을 선전하는 대열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다. 국내외로부터의 여러 의혹의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마오는 여전히 ‘내부참고’ 가 신문 매체로

서의 선전과 지침의 역할을 충분히 해내지 못했다고 여겼다. 1959년 2월에 열린 각 성, 시, 자치구의 당위서기 회의에서, 마오는 ‘내부참고’를 지명하여 “보지 않으면 안되지만 많이 봐도 안 좋다”라고 비판하였다. 그 이유인즉 ‘내부참고’가 성과와 문제와의 관계는 “아홉 손가락과 한 손가락의 문제”임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여 독자로 하여금 옳고 그름의 경계를 혼동하게 했다는 것이었다. 그 뒤 1년 남짓한 시간의 내부 조정과 시행착오를 거쳐 ‘내부참고’는 마침내 중국공산당 중앙으로부터 “성과 선전이 主, 문제 반영이 輔”인 사업방침에 기본적으로 부합한다고 인정을 받게 되었으나 이로부터 문제를 폭로하고 반영하는 기능은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다¹².

정보 전파에 대한 엄격한 관리 이외에, 마오 시대에는 대중 여론에 대한 장악도 매우 효과적이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단위나 가도(街道)와 같은 조직에 속해 있었기 때문이다. 중대한 정책적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간부와 군중에 대한 층층의 사상 검증을 통해 공통적인 문제를 찾아내어 이를 겨냥한 각종 형식의 회의를 열고 강사를 파견하여 토론을 조직함으로써 선전과 교육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1971년 중미회담 직전과 1972년 중일 수교 이전에 중국공산당 중앙이 전당과 전국 범위에서 위로부터 아래에 이르는 설명과 설득 작업을 진행함으로써 신중하게 준비 작업을 진행했던 것이 그 전형적인 예이다.

어떻게 중국공산당 중앙의 베이징 지도자들을 설득하여 미국 대통령 특사 키신저와 비밀리에 사전 회담을 진행할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하여 저우언라이는 우선 중미회담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마오쩌둥에게 제출함으로써 결재를 구하였다. 다음으로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토론을 거쳐 저우의 보고서를 통과시켰다. 이어서 중앙사업회의의 명목으로 베이징 각 방면의 고급 간부들을 소집하여 십여 일 동안 마오쩌둥과 에드거 스노의 담화 기록과 스노가 발표한 중미 관계 관련 문장 몇 편을 학습시키고 단체 토론을 진행함으로써 사상과 인식을 통일하였다¹³. 저우언라이와 키신저가 회담을 가지고 기록을 공개하기 전후에, 마오쩌둥이 결재한 저우언라이의 중미회담 관련 보고서를 각지의 당, 정, 군, 학 기관에 전달함과 동시에 각종 형식의 학습과 토론을 조직하였다.

중미회담에 앞서 비밀리에 사전 회담을 가졌던 것과 마찬가지로, 그다음 해에 일본의 신임 수상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가 중국과의 수교 준비 중임을 기본적으로 확정한 저우언라이는, 바로 마오쩌둥의 동의를 구하고 정치국회의를 소집하여 토론을 진행하였으며 회의 토론에서 통과된 ‘중일연합성명요점(초안)’을 마오쩌둥에게 보고하여 결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먼저 해와 다른 점이라면, 일본은 마오쩌둥과 저우언라이 모두가 수교를 위해 다년간 힘썼던 나라였다는 것이다. 중일 양측의 민간, 경제무역, 및 문화와 체육 분야의 교류는 매우 빈번하였으므로 사전에 각 급 당정 간부와 군중을 향해 설명과 설득 작업을 할 필요가 없었다. 다만 중국공산당 중앙에서는 일본에 전쟁 배상금을 요구하지 않기로 내부 결정이 나 있었기 때문에, 양국의 수교 시에 이 사안이 문제가 될 수

12 《新华社〈内部参考〉研究—基于部门利益的视角1949-1967》，复旦大学2024年博士论文，제154-186쪽.

13 《毛泽东年谱(1949-1976)》第6卷，北京：中央文献出版社，제382-386쪽；《周恩来年谱(1949-1976)》第3卷，北京：中央文献出版社，제463, 467-469쪽 등 참고.

있었다. 일본의 중국 침략 전쟁으로 피해받은 민중의 숫자가 방대하며 이에 따라 가능하게 폭발할 불만에 대비하여, 저우언라이는 사전에 전국 중점 지역을 선정하여 조사와 설득 작업을 배치하였으며 이 사안을 군중들에게 해석하고 설명하도록 지시하였다. 해당 지시 내용에 따르면, 미국과 소련은 전 세계 인민의 공통한 적이지만 현재 우리의 가장 직접적인 적은 소련이라고 하였다. 최근 소련은 미일 모순을 이용하여 일본을 쟁취하고 있으며 일본을 중국 반대의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고 하였다. 중일 국교 정상화는 소련의 음모를 타파하는 것이며 일본 군국주의의 부활을 억제할 수 있으며 중국이 대만을 해방하는 데에도 유리하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는 마오 주석과 당 중앙의 중요한 전략적 배치”라고 하였다. “일본 군국주의는 중국을 수십 년 동안 침략하였으며 중국 인민에게 거대한 재난을 가져다주었으며 그 역사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감정으로 정책을 대신할 수는 없다¹⁴.”

마오-저우 시대로부터 시작하여 덩-천 그리고 후-자오 시대에 이르기까지 중국공산당의 3세대 지도자들의 대일 문제에 대한 정책 방침은 거의 지속적으로 ‘중일 친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대만 문제에서는 절대 양보할 수 없지만 조어도(釣魚島) 문제에서는 분쟁을 내려놓을 것을 주장하였으며 중일 간의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지나간 일은 지나가게 두고 앞을 내다보아야 한다”¹⁵고 주장하였다. 마오쩌둥은 일찍이 1955년에 중국에 온 일본 국회의원 방문단을 향해 “과거의 일은 이미 지나갔다”, “당신들이 과거에 진 빚을 가지고 돈을 갚으라고 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다. 당신들이 이미 사과하였으므로 아직도 날마다 사과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는가? 한 민족이 허구한 날 화만 내는 것은 좋지 않다. 이 점에 관해서 우리는 충분히 이해한다.”¹⁶라고 하였다.

바로 이러한 점에서, 마오-저우 세대와 덩-천 세대 모두 전쟁 책임에 대한 사회 문제나 전쟁 피해에 대한 배상 문제에 집착할 필요를 느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마오와 저우는 중일 수교 담판 과정 및 ‘중일연합성명’의 문구 작성에서도 가급적이면 일본 측의 난처한 부분을 고려하여 주었다. 중국 측에서 제기했던 요구 중이었던, 1952년 4월 28일에 장제스가 중일 양국의 전쟁 상태의 종결을 위해 체결했던 ‘중일화평조약’의 철회 선언을 포기한 것, 일본의 전쟁 책임 문제 검토 시에 “깊은 반성”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 정식으로 “일본국에 대한 전쟁 배상 요구의 포기”를 선언할 것 등이 이런 부분에 포함된다¹⁷. 마오-저우 세대가 진심으로 과거의 일은 지나간 일로 하고 묵은 장부는 다시 청산할 필요가 없으며 미래지향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음을 명백히 알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상황은 중국공산당이 건국 이래 일본 정부와 항일전쟁 역사 선전과 기념 사업에 대한 태도에서도 여실히 드러난다. 마오 시대의 관영 매체를 조사해 보면, 한국전쟁 기간에 미국이 일본을 기지로 삼아 한반도와 대만해협에서 개입하려는 위협적 시도에 대해 강도 높게 반대한 적이 있으며 1950년대 초의 선전 사업에서는 심지어 일본 정부를 미국 제국주의의 ‘괴뢰’라고 질타하기도 하였다. 하지

14 《血債 对日索赔纪实》，高平等编著，国际文化出版公司，1997年，제306-307쪽 참고.

15 张宝忠，《跟随邓小平四十年》，北京：中央文献出版社，2015年，제218쪽.

16 《毛泽东会见日本国会议员访华团的谈话记录》，1955年10月15日，《毛泽东外交文选》，제226쪽.

17 《中华人民共和国政府和日本政府联合声明》，1972年9月29日，《人民日报》1972年9月30日，제1면.

만 1954년 이후부터 마오가 사망하기까지 중국의 관영 매체에서 더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기사를 찾아보기 어렵다. 이와 동시에 중국 관변에서 항일전쟁을 기념하는 선전 행위도 1949년 이전과 비교해 볼 때 현저하게 줄어들었으며 1950년대 이후에는 10년에 한 번 통일적으로 진행하는 정도에 그쳤다. 그 내용 또한 주로 중국공산당의 항일 공적에 대한 선전이 위주였으며 일본군의 난징대학살을 포함한 전쟁 만행에 대해서는 1950년대 초에 공개적인 폭로와 보도가 있는 정도이다¹⁸. 이뿐만이 아니라, 관변 여론에서 가끔은 일본 군국주의 부활 위험성에 대한 경고성 메시지를 날리기는 하였으나 마오쩌둥, 저우언라이, 덩샤오핑으로부터 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이르기까지 시종일관하게 ‘이분법’을 견지하였다. 즉 일본의 우익과 군국주의 세력들은 “극소수”이고 “한 줌의 세력”일 뿐이며 일본 인민들이 중국공산당의 항일전쟁을 도와주고 전쟁 이후 보여준 평화에 대한 열망을 높이 평가하면서 중국 인민더러 일본 인민들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하였다.¹⁹ 이러한 선전 교육은 거의 포스트 마오 시대의 초기에까지 일관되게 이어졌다.

중국의 제2대와 제3대 지도자도 마오와 저우가 제기했던 중일 친선을 대대로 전승하고자 결심하였음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건 바로 1983년에 중국공산당 중앙의 결정으로 후야오방이 직접 나서서 일본 청년 3,000명을 중국에 초청하여 1984년에 중일 청년 친목대회를 개최하려 한 사건이었다. 당시 후야오방은 약간의 아쉬움이 섞인 어조로, 아직은 우리의 여건이 부족하여 안 되지만, 이번은 시작에 불과하고 향후 접대 여건이 더 좋아지면 3만 명, 30만 명도 초청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진행해 갈 것이라고 하였다²⁰.

하지만 마오 시대와 포스트 마오 시대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마오가 사망하고 나서 당내에 ‘한 사람이 결정하는’ 상황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화궈핑이 정권을 주관한 몇 년은 차치하고, 11기3중전회에서 개혁개방 정책을 실행하기로 결정한 후, 덩샤오핑마저도 개인독재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주주의를 제창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정치체제 개혁을 추진하고 있었다. 따라서 당시 당내 최고 권위자였던 덩샤오핑의 의견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과 마찬가지로 반대 의견을 낼 수 있었던 시기였다. 더욱이 해당 시기는 ‘사상해방’ 조류가 한창이었고 청년들과 대학생들이 수시로 대자보를 붙이거나 길거리에 나가 시위하던 때였다. 그 결과 1984년에 중일 청년 정치적 축제가 성대하게 거행된 지 1년도 채 지나지 않아서, 1985년 8월 15일 나카소네 일본 총리가 각료들과 함께 야스쿠니 신사를 집단 참배한 것이 계기가 되어 중국의 10여 개 도시에서 갑자기 청년 학생들의 대규모 반일 시위가 폭발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의 출현은 당시 주요 지도자들에게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었다. 수일간 중국 공산당 중앙부터 외교부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졌다.

18 周丹, <《人民日报》抗战胜利纪念报道的历史叙事研究——以逢十周年报道为样本>, 湘潭大学 2017 年新闻学硕士论文.

19 일본 내부에 대한 적아의 ‘이분법’은 처음에는 “일본 인민과 일본 정부를 구별”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나, 1953년 이후에는 일본과 ‘극소수’ ‘한 줌의 세력’에 불과한 일본의 우익 및 군국주의 세력을 구별하는 방침으로 바뀌게 되었다. 刘建平, 《战后中日关系: 不正常历史的过程与结构》, 北京: 社会科学文献出版社, 2010 年, 제-쪽(역자 주: 원문에 쪽수가 없음).

20 高伐林, 《1984 年胡耀邦邀请三千日本青年访华的来龙去脉》, 《伐林追问》第 24 期, 2019 年 11 月 22 日.

후차오무(胡喬木)가 직접 지휘를 맡아 전문 집필팀을 조직하여 『인민일보』에 학생들을 설득하는 기사를 신속히 게재하고자 했다. 그러나 지식인 집필자들은 학생들의 분노를 더 자극하지 않는 표현 방식을 두고 고심했음에도 만족스러운 원고를 완성하지 못했다. 이 소동은 공산주의청년단 중앙위원회와 교육부 등 관련 부처가 각각 인원을 파견하여 설득과 설명 작업을 수행한 결과 빠르게 진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중국 국민의 고조된 민족주의 정서 앞에서 대일 우호 정책의 취약성이 의도치 않게 적나라하게 드러난 계기가 되었다.

후-자오 세대 지도자가 선후로 물러난 뒤, 경력이 더 짧은 새로운 세대의 지도자가 집권하게 되면서 여러 방면으로부터 받게 되는 압력은 날로 커져만 갔다. 일본 측에서는 새로운 상황들이 속출하여 역사 교과서를 수정하고 조어도 문제가 터지며 수상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가 이어지고 정부 고위직 관원이 공개적으로 전쟁의 침략적 성격을 부인하는가 하면 전쟁 중의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가 노출되면서 한국의 피해자들이 법률 경로로 일본에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등 사건들로 하여, 이미 많은 압력을 받고 있던 중국 지도자는 일본 방문 기간에 공개 석상에서 여러 차례나 일본 측을 비판할 수밖에 없었다. 다만 이러한 조치가 일본 민중의 커다란 반감을 사게 되면서 마오, 저우, 덩, 후가 일관적으로 견지했던 일본 인민과의 단결을 도모한다는 대일 정책 원칙에 어긋나게 되자 새로운 지도자는 재빨리 정책 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1년 뒤에 다시 일본을 방문한 중국 지도자는 역사 문제로 일본을 '자극' 하지 않는다는 내부 관례적 방침에 따라 출발 전 일본 기자단과의 담화에서 이번 방문의 주요 목적은 중일 간의 관계 회복에 있음을 밝히었다. 놀랍게도 이 한마디는 당일 저녁으로 중국 인터넷상에서 노출이 되었으며 민족주의 정서가 고양된 네티즌들로부터 날카로운 비판을 받았고 항의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에 따라 홍콩 '대공보(大公報)'는 상부 명령으로 부득이하게 전날 보도했던 지도자의 담화 내용에 대해 "중요한 수정"을 진행하게 되었으며 네티즌의 반감을 살 만한 일부 용어나 구절을 삭제하였다²¹.

1950년대 중기로부터 시작하여 마오-저우 시대의 중국공산당 지도자는 끊임 없이 중일 관계를 개선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중일 친선의 실현과 유지에 대해 날이 갈수록 자신감을 보였다. 이러한 자신감의 형성에는, 양측 관계 개선에 따른 양국 간의 문화적, 민족적, 지리적 친근감의 상승이 있었지만, 그 세대 지도자들이 계급이론과 전쟁경험에 근거하여 제기했던 '이분법' 적 접근 방식의 기여가 컸다.

중국의 외교 노선이 평화 외교로 이행한 뒤, 저우언라이는 중국에 온 일본 국회의원 방문단 접견 시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이야기한 적이 있었으며 그 뒤로도 여러 장소에서 여러 차례나 반복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다. "우리는 15년 동안 전쟁을 치렀으나 일본군이 항복하자 일본인과 중국인은 화해하였다." 저우에게 가장 큰 감동을 준 사건은 동북 지역에서 일어났다. "당시 많은 일본 군인은 무기를 내려 놓은 후에 바로 귀국(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 일본 교민들과 함께 중국인민 해방군에 가담하였다. 그들 중에는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가 있는가 하면 공장의

21 津上俊哉, 《构筑“求大同, 存小异”的中日关系》, 《日经telecon21》인터넷 칼럼, 2000년 11월 2일 기사를 참조.

엔지니어도 있었으며 학교의 교원도 있었다.” “대다수의 일본 친구들은 능력이 뛰어났으며 우리를 도와준 데 대해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들은 자진하여 도와 준 것이며 우리가 그들을 포로하여 강제적으로 일을 시킨 것이 아니었다.”²²

마오쩌둥도 이와 비슷한 감사의 말을 한 적이 있다. 다만 그는 군인의 사유 방식에 따라 전략적 측면으로 문제를 설명한 적이 더 많을 뿐이다. 예를 들어, 일관적으로 직설적인 방식을 선호하고 지나친 상투와 예의를 싫어하던 마오는, 일본에서 온 방문자가 번번이 일본이 발동한 중국 침략 전쟁에 대해 사과하는 것에 대해 귀찮게 생각했다. 마오의 입장에서, 전쟁은 전쟁일 뿐이며 상처와 피해는 불가피한 것으로 승부가 판가름 난 이상 과거의 일은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었다. 더욱이 “당신들 황군이 절반 이상의 중국을 침략한 일이 없었더라면 중국 인민은 단결하여 대항하지 않았을 것이며 중국공산당도 정권을 탈취할 수 없었을 것이다. 당시 우리는 2만 5천 명 정도의 병력밖에 없었으며 일본 황군이 쳐들어왔기 때문에 우리는 장제스와 다시 합작할 수 있었다. 8년 간의 전쟁을 통해 우리는 120만 병력으로 증가하였고 1억 인구가 사는 근거지를 얻을 수가 있었다. (우리가 일본 황군에게) 감사해야 할까 감사하지 말아야 할까?”²³

마오-저우 세대와 비교해 볼 때 1990년대 새로운 지도자들은 대일 문제에 대한 태도와 생각이 달랐다. 새 세대의 지도자들은 전쟁 연대를 경험했던 이전 지도자들처럼 생사와 영육 간에서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여유, 대일 외교상의 정책적 강행력, 당내와 국내의 이의를 두려워하지 않는 패기와 같은 자질들을 갖추기 어려웠다. 여러 방면에서 오는 압력에 직면하게 될 때, 특히 중국인들의 국족주의 정서를 자극하기 가장 쉬운 중일 관계 문제에 있어서, 새 세대 지도자들은 더 이상 마오-저우 시대의 정책과 처리 방식으로 돌아갈 수가 없었다.

4. 역사학자는 무엇을 해야 하며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만약 필자의 상기 고찰과 분석이 대체로 정확하다고 하면, 그것은 오늘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을 위한 학술 활동이, 확실히 가와시마 신(川島眞) 교수나 류지에 교수가 제기한 바와 같은 단점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즉 역사 속의 당사자와 그들이 남긴 사료가 지닌 주관성의 차이가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본국 역사학자의 역사 해석에 대한 분쟁이 생기기 너무 쉬운 구조라는 점이다. 언어, 문화와 정서에 있어서 더욱 많은 차이가 있는 서로 다른 국가와 지역의 역사학자들이 학술 교류를 통하여 사료의 진실성에 대한 대화를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각자가 자기 관점만 서술하는 모자이크식의 성과물에 그칠 확률이 높다. 중일 관계와 같이, 항상 가해자와 피해자의 엇갈린 입장으로 감정적 차이가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경우에는, 일부 역사학자들 사이에서만 형성된 공감대에 기초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양국의 대다수 국민에게 영향을 주려

22 《中日关系的关键是和平共处》，1954年10月11日，《周恩来外交文选》，제88쪽.

23 《毛泽东》接见日本社会党人士佐佐木更三，黑田寿男、细迫兼光等的谈话》，1964年7月10日，《毛泽东思想万岁》，1969年716页版本，제138, 139쪽.

고 하는 것은 좋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다²⁴. 필자가 믿건대, 이러한 걱정에는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역사 사실에 대한 연구만을 가지고 자기의 감정과 정서적 입장으로 문제에 접근하는 대다수 일반 민중의 ‘역사 인식’을 바꾼다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우리는 모두 역사를 연구하는 자로서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역사 연구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임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한 국가와 한 민족의 진실만을 추구한다면 아마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에는 영원히 가닿을 수 없을 것이다. 이는 우리 역사학자들이 선인들을 연구함에 있어서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하며, ‘입장을 바꾸어 사고’하는 방법으로 선인들이 ‘부득이하게 이리 할 수밖에 없었던 노심초사’를 이해하고자 한다. 그러나 대다수 역사학자가 진정으로 ‘공감과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이 속한 한 당파, 한 국가와 한 민족이다. 예를 들어 필자가 앞서 언급했던 항일전쟁사를 연구하는 몇몇 원로 학자들은, 일본 이야기만 나오면 화가 치밀어 올라오므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연구를 진행할 수 없는 것 또한 자연스러운 결과일 수밖에 없으며, 자신의 연구 대상인 일본 선인과 일본 민족에 대해 ‘공감과 이해’의 태도로 ‘입장을 바꾸어 사고’하는 것은 더욱 기대할 수가 없다.

필자가 생각건대, 류지에 교수 등이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을 제창하는 것의 중요한 목적 중의 하나는, 우리와 같은 역사학자들이 자신의 국가와 민족을 충분히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와 동일한 노력으로 기타 국가와 민족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에 있을 것이다. 설령 상대방의 국가와 민족과 자신의 국가와 민족 사이에 많은 갈등과 충돌이 존재한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이렇게 사고하고 노력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여러 가지 학술 연구 분야 중에서 오직 역사 연구만이 자기 자신을 이해해야 하고 이해할 수 있음과 동시에 자신의 적수를 이해해야 하고 또 이해할 수 있는 학문이기 때문이다. 우리와 같은 역사학자들마저도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사고와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같이 오직 한 당파, 한 국가와 한 민족의 변호인으로 전락하여 버린다면 역사학이란 학문 자체의 존재 이유가 사라질 것이다.

중일 관계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논쟁을 예로 들어 보겠다. 1990년대에 있었던 한 차례의 중국 항일전쟁사 연구 회의에서 필자는 난징대학살 사망자 수 문제를 검토한 발표의 토론자를 맡은 적이 있었다. 발표자의 기본 논점은, 일본 우익 학자들이 난징대학살을 부인하는 각종 주장을 정리하고 비판하면서 난징 국방부전범심판군사법정에서 진행했던 전범 관련 판결을 통하여 당시 중국 관변에서 인정한 30만이란 숫자가 충분한 근거를 가지고 있다고 논증하는 것이었다.

이에 대해 필자는 두 가지 질문을 하였다. 첫째는, 왜 종전 이후 두 군데의 군사법정의 기소장과 판결문 중에 사망자수에 관하여 큰 차이(예를 들어 10만과 30만 등)가 존재하는가 하는 것이었다. 남징국방부전범심판군사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제일 작은 수치였던 ‘3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인정하였으나, 거의 동시에 재판을 시작하여 조금 늦게 판결을 마친 극동국제군사법정에서는 “20

24 刘杰、三谷博、杨大庆编,《超越国境的历史认识:来自日本学者及海外中国学者的视角》,北京:社会科学文献出版社,2006年,서문 제3쪽, 제351쪽.

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채택하였으며 심지어 “10만 명 이상”이라는 더 작은 숫자를 제시하기까지 하였을까?²⁵ 둘째는, 종전 이후 국민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난징대학살 피해자수 조사 사업을 개시한 것은 1945년 12월이었다. 당시 난징은 전쟁 폐허 속에서 복구 작업이 시급한 상황이었으며 국민정부는 반년이 지난 뒤에야 난징으로 다시 천도했다. 이 기간의 1945년 2월과 6월에 선후로 몇 가지 통계조사 수치를 얻은 적이 있었다. 그러나 같은 해 10월에 다니 히사오(谷壽夫)의 재판이 정식으로 시작될 때까지도 국민정부의 조사위원회는 아직 조사를 완수하지 못했고 확실한 조사 수치를 계산해 내지 못했다. 그 결과로 법정의 여러 문서 중에는 서로 다른 사망자수가 등장하는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 필자는 발표자가 당시 두 조사위원회가 난징대학살에 대한 최종적 통계조사 자료를 확인하였는지, 그중의 일부 자료에 데이터 중복 등 부실한 부분이 있는지 질문하였다.

발표자가 어떻게 답변하였던지에 대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 다만 필자가 상기 두 가지 질문을 한 목적은 분명하다. 난징군사법정에서 서로 다른 검찰관들이 서로 다른 수치를 제시하였고 법정에서는 “3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만을 인정하였다는 점이다. 극동국제군사법정의 검찰관의 경우는 더욱 신중하였고 “2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선택하였으며 각국 법관이 연합으로 구성한 합의 법정에서는 최종적으로 법리적 근거 상 신빙성이 있는 이 숫자를 인정하였으며 전쟁 주범인 마쓰이 이와네(松井石根)의 판결문 중에서는 “1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를 사용하기도 하였다²⁶. 이러한 사실이 설명해 주다시피, 당시 국민정부의 통계조사 사업은 급하게 진행되면서 면밀하지 못하고 정확하지 않은 정황이 존재하였으며 일부 증거와 숫자가 엄밀하지 못하였음은 명백하다. 이와 같은 정황은 당시 국민정부의 관련 기관에서 제출한 조사 문서 중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²⁷.

필자가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이유는 당연히 진실을 추구하기 위해서이며, 동시에 항일전쟁을 연구하는 동료 학자들이 중일 관계 문제의 연구에서 쟁점이 되는 문제에 대해 아직 더 깊이 있고 상세한 연구가 중국 학자들에게 요구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필경 근대 중국은 일본에 비해 많이 낙후하였으며 완전한 호적 제도조차 없었다. 이런 상황은 1937년 연말에서 1938년 연초까지 난징이 점령되었을 때나 1945년 연말부터 1946년까지 국민정부가 난징으로 다시 이사해 오던 시기에나 변함이 없었으며, 인구 통계나 인구 유동에 관하여서는 신빙성 있는 기록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대학살이 발생하였을 때든지 재판 이전의 조사와 통계에서든지 교회에서 진행한 대규모 시체 매장 시의 기록 외에는 정확한 통계가 아예 불가능하였다. 이런 상황에

25 《中外军事法庭对战犯松井石根、谷寿夫等审判概况》，中国人民政治协商会议江苏省南京市委员会文史资料研究委员会编，《史料选辑（侵华日军南京大屠杀史料专辑）》，1983年8月，제57, 59, 65-66쪽 참조. 난징대학살 관련 판결서에는 “그 후의 추산에 따르면, 일본군 점령 이후의 최초의 6주 동안, 난징 성내와 부근 지역에서 학살된 평민과 포로의 총 숫자는 20만을 초과하였다”라고 하였다. 마쓰이 이시네에 대한 판결문에는 “6-7주의 시간 동안, 천을 단위로 한 부녀들이 강간을 당했으며 10만 명 이상이 학살되었다”라고 나와 있다. (张宪文主编,《南京大屠杀全史》，南京：南京大学出版社，2012年，제1194, 1197쪽)

26 张宪文主编,《南京大屠杀全史》，南京：南京大学出版社，2012年，제997쪽 참조.

27 그 후 대량의 새로운 자료의 발견과 현지 발굴에 따라 당시 국민정부의 조사 자료와 통계 수치가 정확하지 않다는 점은 많이 증명되었다. 孙宅巍,《论南京大屠杀新史料》，《民国档案》2008年第3期 등을 참조.

서 당시의 조사 수치에는 필연적으로 문제가 존재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수치를 근거로 논점을 펴는 것은 일본의 우익 학자들에게 약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하나를 논박한다고 하여도 전체로 파급되지 않은 것 역시 당연하다. 여기서 문제점은, 중국 학자들이 국민정부의 통계 수치에 문제가 있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오랫동안 이 사료들에 대해 세밀하고 전면적인 연구와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3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만 고수해서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²⁸

마지막으로 언급되어야 할 것은, 필자 개인이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의 제기와 사고방식에 대해 찬성하는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여 이러한 문제의식 자체가 우리에게 역사의 진실을 환원하는 더 좋은 방법을 제공하는 데 있지는 않다는 점이다. 필자는 역사와 현실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연구함에 있어서, 혹은 우리가 관심하고 있는 국민국가 간의 역사적 화해 문제에 있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새로운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글로벌 역사학과 인류사와 같은 연구 방법 역시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는다. 개인적으로 역사 연구가 반드시 “국경을 초월” 해야 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가 우리의 역사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데 있다고 이해하고 있다. 바꾸어 말하면, 어떠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역사 인식’ 이든지 그 제한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본 민족과 본 국가의 역사를 연구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인간’이라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항상 본 민족과 본 국가의 역사를 지구 전반의 인류사회 발전 역사의 과정 속에 자리매김을 하고 그 장단점을 고찰하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는 의미이다. 다른 표현으로, 역사의 안광으로 역사를 인식하고 역사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말이다. 이른바 역사의 안광이란, 발전과 변화의 관념으로 고금에 일어난 모든 일들을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늘날 크게 발전하고 변화된 가치관으로 선인들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여서는 안 되며, 선인들이 그들이 처해있던 시대의 관념을 초월하여 오늘날 우리의 관념에서 그들이 해주기를 바라는 일을 해야 한다고 가정하여서도 안 된다. 오히려 이와는 정반대로, 선인들이 처한 시대와 교육과 구비한 지식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었던 일은, 필연적으로 그들이 생활했던 시대와 나라와 환경 그리고 사회 발전 단계의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근대 국민국가의 형성을 예로 들어 보자. 주지하다시피, 가치 판단의 기초를 어디에 두는지를 막론하고, 근대 국가의 건립은 몇 가지 국제 통용 원칙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러한 원칙에는 국가 간의 평등적 관계, 주권과 영토 무결성에 대한 상호 존중, 내정에 대한 상호 불간섭, 국제 조약을 법적 근거로 한 행위와 교류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국제법적 의미를 지닌 국제 질서가 형성되는 데에는 긴 시간이 필요했다. 이와 같은 새 질서는 1648년 ‘베스트팔렌 조약’의 체결로

28 특별히 언급해야 할 것은, 오랫동안 난징대학살의 역사를 연구해 온 장련홍(張連紅)은 2023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당시 국민정부에서 진행했던 난징대학살 관련 조사에는 많은 미비한 점, 지어는 오류가 있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다. 난징군사법정에서는 “30만 명 이상”이라는 숫자에 대해 확인은 하였으나 전체 심판 과정을 놓고 볼 때 난징대학살에서의 피해 인수는 재판의 주요 쟁점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 하므로 단순히 가져다가 법적 효력을 가진 증거로 쓰기에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했다. 논문에서는 또한 “30만이란 사망자 인수에 대해서는 확실한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 있으며 현재 우리의 연구에서는 195,000여 명의 피해자 숫자에, 분산적으로 학살된 사례에서 통계된 858명의 사망자를 더한 수치가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인수 통계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완곡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张连红, 《战后南京大屠杀遇难人数的调查与法庭审理》, 程兆奇主编, 《战争审判研究》第1辑, 上海: 上海交通大学出版社, 2023年, 제-쪽[역자 주: 원문에 쪽수가 없음])

부터 시작된다. 조약 체결 당시, 유럽은 아직 10개 국가밖에 없었다. 그로부터 100년이 지난 뒤에도, 이 체제에 참여할 수 있는 주권 국가는 겨우 한 배 정도 늘어났을 뿐이었다. 20세기에 진입하고 난 뒤인 1920년, ‘국제연맹’의 설립 당시 회원국의 숫자 역시 20개국에 불과하였고, 1945년 유엔 설립 시에 이르러서도 이 숫자는 두 배 남짓한 51개국으로 증가하였을 뿐이었다. 근대 국제 체제의 역사적인 대전환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의 수십 년 사이에 발생하였다. 유엔 설립 이후 불과 50년도 채 되지 않는 기간 동안 그 회원국은 190개 정도로 늘어났다. 세 배 정도 증가한 새로운 주권 국가의 대다수는 과거의 식민지 지역 독립국이였다. 이런 상황으로 말미암아, 제2차세계대전 이후 건립된 식민지·반식민지 국가와 민족들은 불가피하게 유럽과 미국의 선진국과는 구별된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에 진입하게 되었다.

경제적으로 현저하게 낙후한 이외에, 신흥 국가들은 선진국과는 뚜렷하게 구별되는 두 가지 특징을 지니고 있다.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신흥 국가의 ‘국족’의식은 반식민지와 반제국주의 운동 중에서 형성된 것이며 그로부터 독립하여 건국하였다는 점이다. 다른 하나는 신흥 국가의 영토 범위가 식민 당국의 관리와 통치 편의에 근거하여 확정되었던 것으로 약소 민족과 약소 부족의 완전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다수의 신흥 국가는 몇 개 혹은 더 많은 숫자의 민족이나 부족의 집합으로 형성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민족과 부족은 각자의 영지와 세력 범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신흥 국가는 보편적으로 매우 강렬한 국족주의(혹은 민족주의) 의식을 지닐뿐더러 각 민족이나 부족 내부에서도 강렬한 종족 민족주의 혹은 부족 의식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신흥 국가가 건립된 이후, 한 편으로는 주변 국가와 여러 가지 형태의 영토 분쟁이 생길 뿐만 아니라, 다른 한 편으로는 내부에 있어서 민족 간, 부족 간의 토지 자원의 분쟁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으면서 새로운 독립전쟁으로 이어지기까지 한다.

중국과 일본도 포스트식민주의 시대에 진입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그나마 다행인 것은 양국이 종전 이후에 새로 건립된 신흥 국가는 아니라는 점이다. 양국은 상대적으로 유구한 역사와 독립적인 국가 의식을 가지고 있으며 천 년 이상의 문화 교류 역사가 존재한다. 이는 양국 간의 역사적 화해에 큰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으며 실제로 중요한 성과를 거둔 적도 있었다. 그러나 프랑스와 독일이 화해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우선 양국의 발전 정도가 비슷하고 관념 문화, 이데올로기, 나아가 사회, 경제 및 법률 제도까지도 기본적으로 일치하였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제2차세계대전 이후 미국과 소련의 냉전으로 프랑스, 독일 및 전 유럽까지도 반드시 미국과 동맹하여야만 러시아의 위협에 대항할 수 있었다. 따라서 먼저 미국이 주도하는 나토의 성립이 있었고, 이어서 슈만플랜의 제기와 실시가 있었으며 나아가 이는 유럽 경제 공동체의 형성을 촉진하여 프랑스와 독일만이 아닌 전 유럽 자본주의 국가의 거의 모두가 신속하게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었다.

이런 면에 있어서는, 중일 양국이 진정으로 지속적인 역사적 화해를 실현할 수 있는 기초는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우선 정치와 외교 면에서 양국은 서로 다른 진영에 소속되어 있다. 비록 양국의 민간 차원에서의 교류는 진전을 보여 주었지만 국가 차원의 관계가 정식으로 건립된 것은 중소 관계가 파열되고 중미 관계가 완화된 후에 마오와 저우의 적극적인 추진과 타협이 있어서야 비로소 가능하였다.

다음으로 프랑스와 독일의 역사적 갈등은 상호적인 것이었다. 프랑스는 여러 차례나 독일을 침공하고 점령하였고 일부 영토를 할양받기도 하였으며, 독일도 마찬가지로 여러 차례나 프랑스를 침공하고 점령하였고 일부 영토를 할양받기도 하였다. 양국의 역사적 화해에 있어서는, 이른바 ‘가해국’ 과 ‘피해국’ 의 심리적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반드시 한쪽이 다른 한쪽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 해야 하는 문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이와 반대로 중일 간에는 침략과 피침략, 가해와 피해로 인한 ‘사과’ 심지어는 ‘배상’ 의 문제가 불가피하게 양국의 역사 화해 과정에 가로 놓인 뛰어넘기 어려운 깊은 골로 존재하고 있다. 비록 마오와 저우가 주동적으로 선의를 베풀고 타협하여 수교의 목적을 달성하였으며 20년의 친선 관계를 이어왔지만, 강한 권력자였던 마오가 사망하고 나서부터는 민족주의가 점차 회귀하였고 ‘대대로 중일 친선’ 을 지켜 가려던 소망은 얼마 지나지 않아 사라지게 되었다.

이 밖에도 중국이나 일본을 막론하고 사회 발전 수준을 놓고 볼 때, 프랑스와 독일과는 아직 거리가 멀다.

프랑스, 독일, 일본, 중국의 사회발전에 있어서 시간적 구분과 그 정도의 차이에 대해서는 아래 표를 통해 간단히 비교해볼 수 있을 것이다.

	1894	1963					1977			2023		
	문해율	1인당 GDP (\$)	농촌인구 비율	문해율	대학 이상 학력	1인당 GDP (\$)	농촌인구 비율	대학 이상 학력	1인당 GDP (\$)	농촌인구 비율	대학 이상 학력	1인당 GDP (\$)
프	78%	1030	26.9%	99%	6.8%	1600	22.9%	8.8%	8370	18.9%	36.7%	40329
독	90%	1250	15.4%	99%	7.9%	1400	9.4%	9.6%	8710	9.5%	39.5%	47470
일	50%	152	49.6%	98%	5.2%	550	17%	21.2%	1720	14.2%	42.6%	33790
중	15%	60	82%	52%	1.1%	100	75%	2.4%	156	36.1%	15.8%	12199

자료 출처: 일본 문부과학성: <https://www.mext.go.jp/>; 프랑스 국민교육부: <https://www.education.gouv.fr/>; 독일 연방통계국: <https://www.destatis.de/>; 양귀전: 「청말민초 중국 문맹률 추산」 『중국사회과학원 원간』 1986년 제3호; Maddison Project: Maddison Project Database; Angus Maddison: Historical Statistics of World Population, GDP and Per Capita GDP, 2008; 중국 국가통계국: <https://www.stats.gov.cn/>; 일본 총무성통계국: <https://www.stat.go.jp/>; 프랑스 국립통계경제연구소: <https://www.insee.fr/langue/en>; 세계은행: <https://data.worldbank.org/indicator/NY.GDP.PCAP.CD> 등.

주1: 표의 1894년은 청일전쟁 시점, 1963년은 ‘프랑스 · 독일 협력조약’ 체결 연도, 1977년은 중국의 개혁개방 직전, 2023년은 최근 시점이다.

주2: 표의 ‘농촌인구’ 는 농촌에 거주하는 인구를 가리키며, 반드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를 한정하는 것은 아니다.

위 표에서 알 수 있듯이, 프랑스와 독일의 경제발전은 항상 같은 수준으로 진행되었으며, 급속한 성장과 낮은 농촌인구 비율이 지속되었다. 이는 두 나라가 오랜 도시화의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인문주의와 계몽사상이 이미 깊이 침투해 있음을 보여준다. 인간성, 인도, 인권이라는 이념에 기초한 사회문화와 자유, 민주주의의 법치 기반이 이미 정착된 것이다. 두 나라는 이민자가 많기 때문에 고등교육을 받은 인구의 비율이 후기 일본만큼 급증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이 공통된 이념과 제도적 조건하에서 역사적 화해를 달성하는 데 영향을 미치지지는 않았다.

이에 비해 일본과 중국은 과거에는 모두 농업사회였고, 전통적 관념의 색채가 짙으며, 도시화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두 나라 모두 개성 해방과 자유 평등을 기본 가치관으로 하는 인문주의 운동이나, 이성을 숭상하고 계급, 종교 및 전통적 관념의 속박을 타파하는 사상 계몽운동을 경험하지 못했다. 따라서 일본이 19세기 말에 단숨에 열강의 반열에 올라 오히려 전체주의적 극단 민족주의(군국주의, 애국주의)를 받아들인 것처럼, 중국도 20세기 말 21세기 초에 단숨에 세계 제2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전체주의에 기반한 민족주의(애국주의)의식이 급속히 팽창하였다. 여기에 “신냉전” 시대의 도래로 중일 양국이 다시 각자 다른 편에 서게 되면서, 이는 앞으로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중일 양국이 국가, 민족, 사회 차원에서 “국경을 초월한 역사 인식”을 형성하고 역사적 화해를 달성할 가능성이 단혀버렸음을 의미한다.

만약 위의 고찰과 분석이 대체로 틀리지 않다면, 중일 양국 학계의 노력은 과연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 않다. 부핑(步平) 선생이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역사적 화해를 추진하는 최초의 단계는 바로 양국 학자들에 의해 시작되었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이미 그러한 노력이 시작되어 있었다²⁹. 학계가 먼저 나설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첫째, “과학에는 국경이 없기” 때문이며, 오직 과학적 방법을 활용하여 과학 연구에 종사하는 사람들만이 국가적 한계를 초월하여 인간과 인류 문제를 바라보는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인류가 야만에서 문명으로 나아가는 사상 계몽 과정은 항상 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단계적으로 진화해 왔기 때문이다.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는 근대 유럽 사상 계몽운동의 주요 발원지일 뿐만 아니라, 칸트가 주장한 공민권이 국가주권보다 우위에 있으며 자유국가는 마땅히 세계 공민법적 권리의 지위를 보장하는 국제연맹을 구성해야 한다는 이론³⁰이 최초로 전개된 무대이기도 하다. 따져보면, 프랑스와 독일 두 나라의 역사적 화해 및 유럽 민주국가연맹의 최종 실현을 위해, 양국 지식계의 선각자(先覺者)들은 사상의 형성에서 주장의 제시에 이르기까지 반프랑스동맹전쟁, 보불전쟁,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 등 일련의 참혹한 전쟁을 경험했다. 그러나 두 나라가 공통의 가치관에 기초하여 동일한 제도를 선택하고, 공통의 위협에 직면하며, 공통의 이익과 이상을 찾아내고, 선량한 인성이 깨어나 더 이상 국가적 한계에 머물지 않게 되었을 때, 역사적인 원한과 앙금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었다.

이러한 과정은 중일 양국도 예외가 될 수 없다고 믿는다. 양국 학계가 한 발 앞서 국가적 한계를 초월하여 역사를 인식하고 문제를 해명한다면, 어떤 경우에도 앞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장애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29 부핑(步平): 《동아시아 역사의 서술은 국경을 초월할 수 있는가》, 《중화독서보》 2013년 6월 26일, 제9판.

30 리추링(李秋零) 주편: 《칸트 저작 전집: 1789년 이후의 논문》 제8권, 중국인민대학출판사, 2010년, 제34-36, 395-363페이지; 조나단 트레호-메시스 저, 류위셴(劉玉賢) 역: 《칸트, 하버마스 및 인권에 기초한 글로벌 법질서 촉진의 의무》, 《현대철학》, 2016년 제2기.

【질의응답】 제1세션

사회: 류 지에 (와세다)

발언: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발언순) 양 쿠이쑹 (베이징대 · 화동사범대)
파타짚 탕신만쿵 (도쿄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 재언 (일본어), 홍 용일 (중국어)]



류 지에 감사합니다. 양 선생님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가의 대화에서 10여 년 전부터 활약하고 계시고, 양국 역사가의 교류에도 큰 공헌을 해오셨습니다. 양 선생님은 민의와 정치의 관계, 특히 마오쩌둥 시대와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의 중국 여론과 정치인의 역할에 대해 매우 심도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미타니 선생님과 양 선생님, 두 분 선생님께서 매우 거시적인 관점에서 귀중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서 잠시 질의응답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참가자 여러분께서 한두 가지 정도, 질문이나 감상, 코멘트, 어떤 것이든 괜찮습니다. 그러면 히라야마 선생님부터 부탁드립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학 히라야마 노보루라고 합니다. 지정 토론자 중 한 명입니다. 미타니 선생님, 양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내일 토론에서 코멘트를 하기 전, 한 가지 사실 확인을 하고 싶습니다.

양 선생님 논문 주 8번을 봐주십시오(P18).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慎太郎)의 저작 『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NOと言える日本)』을 따라해, 중국에서도 『NO라고 말할 수 있는 중국』이라는 책이 나왔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한 것은 이 책 출판사가 중화공상연합출판사(中華工商聯合出版社)라는 점입니다. 주에 있는 다른 문헌 출판사를 보면, 중앙문헌출판사(中央文獻出版社)나 대학의 출판사처럼, 학술계 출판사가 많은 것 같습니다. 이 주 8번에 있는 공상연합은 공업과 상업에 관련된 출판사라는 것인가요? 어떤 출판사인지를 여쭙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드린 이유는, 실은 제가 연구하고 있는 전전(戰前) 시기 일본에서도, 다이쇼 시대, 즉 1920년대 정도부터, 그때까지 천황이나 신사에 대해 그다지 시끄럽게 말하지 않던 산업계 기업가들, 즉 공업, 상업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천황을 반드시 공경해야 한다’거나, 천황의 조상을 모신 이세신궁에 가야 한다는 것을 역설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담론들이 산업계, 실업계의 미디어, 잡지와 같은 문헌에서 대량으로 유통되기 시작했습니다. 100년 정도 전, 192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이 같은 일이 1990년대 중국에서도 일어났는지,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 질문을 드렸습니다.

류 지에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양 선생님께 답변을 들을까요?

양 쿠이쑹 말씀하신 출판사와 책은 사실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당시 몇 사람이 합작하여 쉽게 화제를 끌 수 있는 주제를 잡아 급하게 책을 편찬하고 출판사를 찾아 인쇄하는 것이 유행했는데, 목적은 빠른 돈벌이였습니다. 해당 책도 그런 식의 상업적 과열이었습니다. 그들은 해당 주제를 발견하고 몇 명이 합작하여 급하게 이런 책을 편찬했습니다.

책의 원형은 일본에서 1989년 나온 거의 같은 제목의 『노(NO)라고 말할 수 있는 일본』이라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일본 경제 버블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갑자기 매우 인기를 끌었습니다. 1996년에는 중국 경제도 시작 단계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 기회를 포착해 책을 출간했고, 단번에 수백만 위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에도 비슷한 제목의 책을 만들어 계속 과열 현상을 일으켰습니다. 이는 중국의 상업적 과열 출판으로 돈을 버는 매우 전형적인 사례였지만, 당시의 경제, 정치와는 큰 관련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1996년이라는 시점은 중국 경제가 비약적으로 발전한 시기가 아니라 막 시작 단계에 있을 때였기 때문에, 나중에 비약적으로 발전했을 때는 상황이 또 달라졌습니다.

류 지에 그러면 한 분 더 말씀을 듣겠습니다.

파타지 양 선생님께 직접 중국어로 질문하겠습니다. 양 선생님, 훌륭한 발표 감사합니다. 제가 질문하고 싶은 부분은 방금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질문하신 것과 비슷합니다. 선생님께서는 1990년대 인터넷 세계가 포퓰리즘적 광기를 낳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일본 민족의 열근성(劣根性, 역주: 근본적 결함)에 대해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당시 인터넷 세계에서 이러한 주장들이 어떤 근거와 논리로 제기됐는지입니다.

사실 태국도 1970년대 반일운동이 있었는데, 주로 경제적 격차 문제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반일감정이 가장 격렬했을 때에도, 태국 여론은 일본의 민족성을 칭찬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인들이 매우 근면하고 규칙을 잘 준수한다는 등의 평가였습니다. 다만 당시 일본인들이 현지 사회에 융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강렬한 반일감정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반일감정은 어떤 원인으로 형성된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양 쿠이쑹 정말 감사합니다. 말씀하신 주제는 매우 흥미롭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두 가지 쟁점으로 나뉩니다. 일본 민족의 열등성 문제를 제기한 사례를 제가 처음 들은 것은, 오늘날과는 달리 1990년대 후반 인터넷이 보급되기 전, 항일전쟁 연구토론회에서였습니다. 그때는 민간이나 네트워크가 아닌 자리에서, 미국 출신 화교 교수, 아주 유명한 교수께서 그런 의견을 제시하셨습니다. 물론, 당시 미국에서 중국의 항일전쟁 연구토론회에 참석한 여러 화교 교수들도 대체로 비슷한 견해를 가지고 있었고, 한동안 중국 항일전쟁 연구회 분위기가 그들 영향 아래 크게 좌우되기도 했습니다.

원래 저희 연구토론은 오로지 역사적 사실과 그에 대한 논증에 집중했기에, 민족성 문제는 전혀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들 교수들은 점차 논점을 이쪽으로 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일본인은 독일인과 달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뉘우치지 않으며, 심지어 과거의 행동과 대외 침략까지 옳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일본인들이 오랜 기간 동안 중국인을 미개하고 뒤처지며 야만적인 민족으로 규정하는 선전을 해왔고, 스스로는 문명화된 민족이라고 주장해 왔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선전은 역사 자료에서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그래서 몇몇 교수들은 오히려 일본인이 바로 그런 민족, 즉 자신의 잘못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민족이라고 역설하게 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류 지에 괜찮으신가요? 시간이 되었지만, 마지막으로 한 분 더 부탁드립니다.

청중 양 선생님께 질문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선생님의 논문과 방금 하신 발언 모두 매우 훌륭했습니다. 선생님의 논문과 발언을 통해 느낄 수 있었던 것은, 역사학자가 한편으로는 역사적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동정적 이해’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대인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 국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 둘 사이 긴장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선생님께서는 연구 과정에서 이 둘 사이 긴장관계를 어떻게 다루시는 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양 쿠이쑹 이것은 꽤 큰 주제이므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역사 연구를 할 때는 아무런 의심 없이 사실에 기초해야 합니다. 만약 역사가 근거하는 사실과 사료가 진실하지 않다면, 그 역사 서술이나 연구 결과는 분명 허구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역사적 진실은 연구자로서 제가 보기에 다층적이고 여러 측면을 포함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중국 항일전쟁의 역사를 연구할 때, 일본의 침략 속에서 중국인들이 겪은 감정, 희생, 헌신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일본인의 잔인함, 야만성, 약탈, 그리고 상처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역사를 연구하면 중국인들이 보고 경험한 한 단면의 진실을 잘 재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침략자’로서의 일본을 다루려면, 단지 중국 항일전쟁의 관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일본의 역사를 따로 연구하고, 일본이 왜 그런 행동을 했는지, 그리고 중국에서 보여준 야만성과 학살의 원인이 무엇인지, 우리가 앞서 언급한 ‘일본의 열악한 본성’ 때문인지에 대해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합

니다.

반대로, 일본 학자들이 중일 전쟁의 역사를 오직 일본의 입장에서, 일본이 어쩔 수 없었던 상황만을 근거로 해석한다면, 아무리 잔혹한 행위라도 동정적 이해를 통해 그 원인을 찾아내어 심리적 균형과 논리적 설명을 얻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국가, 민족, 당파 간 갈등에 대한 역사를 연구할 때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역사 연구자에게 동일한 노력과 방법으로 갈등 당사자들, 또는 다양한 입장의 역사를 연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언어 문제나 사료 확보의 어려움뿐 아니라, 문화적 차이만으로도 진정한 입장 교환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역사학자가 반드시 유념해야 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인간성은 대체로 비슷하며, 어떤 민족이나 당파의 모든 사람이 악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믿어야 합니다. 저는 여러 번 방군의 저서 『내가 알던 귀자병』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는 중국 본토에서 ‘홍(紅) 2세’로 불리며, 아버지가 항일전쟁 당시 팔로군에 참여해 일본에 대해 강한 원한을 품고 있었음에도, 일본인이 왜 그때 그렇게 잔혹했는지를 명확히 알고자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는 몇 년간 일본에서 생활하며, 한때 중국에 파견되었던 일본 병사들을 직접 찾아가 관찰하고 인터뷰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과거 중국에서 한 치의 망설임 없이 살인을 저질렀던 ‘귀자병’들이 사실은 일본의 아주 평범한 시민들이었음을 발견했습니다. 그들은 일본에서 보통의 삶을 살며, 부드러운 말투와 성실한 행동, 좋은 이웃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군대에 징집되어 전장에 나서면서 전쟁 기계의 한 부분이 되어 살아남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악행을 저질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과거 쓴 글에서 “전쟁은 사람을 귀신으로 만든다”는 주장을 강조한 바 있습니다.

둘째, 인류 사회는 고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점진적으로 진화해 온 과정을 믿어야 합니다. 사회 발전 단계마다 사람들의 가치관은 달라지기 마련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민족은 저마다의 ‘열악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각 민족은 원래 무지하고 야만적인 시대에서, 점차 현대의 비교적 문명화된 시대로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본이 과거에 “악했다”고 할 때, 동시에 거의 같은 시기 벌어진 국공 전쟁이나 중국 내부 야만적 학살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과거 생사를 건 싸움 속에서 살아남은 선조들을 다시 살펴보면, 그들 대부분은 평소 평화롭고 선량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당시 각기 다른 당파에 속해 있고, 서로 다른 이념과 가치관을 받아들여, 자신들이 가장 높다고 여긴 이상을 위해 상대방을 악으로 규정하면서 무자비해졌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역사를 연구할 때 공통된 인간성과 사회 발전의 단계성을 바탕으로, 모든 역사적 당사자에 대해 동정적인 이해를 가져야 보다 진실하게 역사적 진실을 복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

류 지에

두 분 선생님 강연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가 도출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대화 속에서 역사 속 사건에 대해 다양한 각도로 논의해 왔지만, 또 하나의 큰 문제는 ‘역사가와 정치’입니다. 그리고 ‘역사가와 역사’입니다. 이 관계에 대해, 즉

역사가 본연의 자세 역시 매우 큰 문제의 하나라는 점을 이 세션을 통해 매우 분명하게 밝힌 느낌이 듭니다. 이에 대한 논의는 오늘의 다음 세션 및 내일 논의 중에서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더욱 심화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1 세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자 미타니 선생님과 양 선생님께 박수로 감사드리고 싶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2 세션

발표 1



‘대나무 외교론’의 강대국 관계와 소국의식

탕신만콩 파타짖

도쿄대

[원문은 일본어. 번역: 조국]

1. 서론

태국은 오랫동안 외교에 능숙한 나라로 알려져 왔으며, 그 외교 자세는 ‘바람에 흔들리는 대나무(Pai-Lu-Lom, Bamboo Diplomacy)’라는 속담으로 자주 비유되어 왔다. 즉, 역대 태국 지도자들이 조공 시대의 중국,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 제2차 세계대전 시대의 일본, 냉전 시대의 미국이라는 각 시대에 맞는 ‘바람’에 현명하게 따른 결과, 태국을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로 만들었다는 주장이다. 이는 태국 민족주의를 조장하고 태국 외교의 유연성을 태국 예외주의로 취급하는 역사 서술이기도 하며, 대외관계를 이야기할 때 사용되는 틀이기도 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주류 외교 담론을 해체해 ‘대나무 외교론’의 개요와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논하고, 그 이면에 숨겨진 ‘소국의식’과 그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나무 외교론’의 개요와 문제점

대나무 외교론의 메타내러티브(줄거리)는 다음과 같다. 근세 이전 태국은 강대국 중국이라는 바람을 따라 중국에 조공 사절을 파견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 중국 세력이 약해지자 태국은 동남아시아에 진출한 영국과 프랑스라는 바람을 따라 불평등한 조건을 감수하며 양국을 포함한 서구 국가들과 조약을 체결하고 국가의 근대화를 시작했다. 태국 측의 세력이 너무 약해 영국과 프랑스에 일부 영토를 할양하게 되었지만, 결과적으로 유럽 열강에 의한 식민지화를 회피하는데 성공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당시 피분 총리는 일본의 승리를 예상하고 일본이라는 바람을 따라서 그 동맹국이 되는 것을 선택했다. 그러나 1943년 일본의 열세가 분명해지자 반일 조직인 자유태국의 지도자가 총리에 취임하고 연합국측 바람을 따랐다. 그리고 일본이 무조건 항복을 표명한 직후인 8월 16일, 연합국에 대한 선전포고를 포함해 태국이 전시에 체결한 모든 조약은 무효라는 선언을 발표하며 패전국으로의 전략을 피했다.

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다음으로는 미국의 바람을 타고 공산화를 피했다. 그

러나 1970년대에는 미군 기지가 동남아에서 차례차례 철수하고, 이번에는 베트남이 태국의 가장 큰 위협으로 여겨지게 되자 태국은 중국 바람을 타고 1975년 국교를 수립, 1980년대에 태국-중국 밀월기를 맞이한다. 그러나 1990년대부터는 중국 바람이 거세지면서 대나무인 태국은 그 바람에 휘둘리며 미국, 일본 등 다른 강대국들과 우호 관계를 유지했다. 위와 같은 내러티브이다 (Pavin 2012, Kislenko 2002, Pongphisoot 2016).

즉, 비교적 소국의 입장에 서 있던 태국이 어떻게 역사상 수시로 등장하는 강대국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의 세력과 위협, 즉 각 강대국의 '바람'을 절묘하게 따르며 성공했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태국인의 대외인식을 규정하는 주류적 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서 대나무 외교론을 조금 더 분해해 보면 반복적으로 이야기되어 온 세 가지 메시지가 부각된다. 첫째, 대나무 외교론은 '동남아시아에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던 유일한 나라'라는 성공 결과를 태국의 특수성으로 강조하고 있다. 요컨대 다른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서구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고 제2차 세계대전 시기에는 일본에 점령당했으며 냉전 시기에는 공산주의화되었다. 그러나 태국은 이웃 국가들과 달리 항상 승자의 편에 서서 독립을 지킬 수 있었다는 독자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둘째, 태국의 지정학적 목표나 원칙 및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이다. 태국은 국가 존속, 주권 유지, 영토 보전, 외국의 간섭 최소화를 최대 목표로 삼고 실용주의, 기회주의, 강인성, 유연성을 원칙으로 삼아왔다고 여겨진다. 그 중에서도 성공을 이끈 가장 큰 요인은 외세의 위협 속에서 자국의 위치 짓기를 예견한 총명한 지도자의 선견지명과 유연한 외교술이라 여겨져 왔다.

셋째, '대나무 외교'는 태국의 문화와 종교에 뿌리를 둔, 시대를 관통하는 전통적 외교술이라는 주장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태국의 외교술은 시대에 따라 유화정책, 동맹 맺기, 승자편에 서기, 견제, 중립 유지 등으로 구분되어 왔지만, 이 담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나무 외교'로 귀속시키는 경향이 강하다 (Likhit 1974, Prapas 2000). 이러한 서술 패턴이 보여주듯, 대나무 외교는 태국의 수백 년 전부터 시작된 외교의 전통 문화로 이야기되며, 근대 외교사를 논하는 작법으로 정착했다.

넷째, 이 틀은 각 강대국에 대한 고정관념을 심어주고 있다. 이 틀 속에서 중국은 전근대 시대에는 머리를 조아려야 할 조공대국, 냉전 시대에는 미국의 힘을 빌려 대항해야 할 공산주의 대국, 1980년대에는 함께 베트남과 싸운 우방대국, 그리고 1990년대 이후에는 굴기하는 경제대국이라는 인상을 심어주었다. 또한 영국과 프랑스는 '어린 양' 삼이 소유한 일부 영토를 할양케 해 불평등 조약을 맺게 한 '큰 늑대' (Thongchai 1994), 일본은 전쟁 중 태국을 침략한 아시아의 강대국, 미국은 냉전 중 함께 공산주의에 저항한 동맹국이라는 위치를 부여하게 했다. 이러한 고정관념이 생겨나면서 '바람'에 순응할 수밖에 없었고 강대국 세력에 대한 타협과 굴복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는 점이 강조되어 왔다.

이 외교 담론에는 다양한 문제가 숨겨져 있다. 예를 들어 대나무 외교론이 제시하는 외교술의 정의나 범위는 애매모호하고, 이러한 언설에서 거론되는 역사

적 사례는 현재를 사는 사람들의 관점에서 선택되어 그 결과로부터 과거를 정당화하는 ‘사후약방문(後知惠)’이 되어 버렸다. 요컨대 대나무 외교가 말하는 역사관은 성공의 지속을 강조하며 이 흐름에 부합하지 않는 일탈 사례는 취급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그 결과 대나무 외교의 역사관은 역대 외교 성과를 얻기 위해 취한 수단과 과정을 정당화하는 ‘승자의 논리’에 빠지기 쉽다.

역사를 살펴보면 대나무 외교가 상정하는 것처럼 지도자가 실용주의와 기회주의를 내세워 실용적이고 유연하게 정책을 결정했다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 적지 않다. 예를 들어, 강대국의 요구에 타협하는 것이 대나무 외교의 핵심인데, 왜 태국 지도자는 1946년까지 태국과 국교 수립을 원하는 중국의 요구를 계속 거부했을까? 혹은 분쟁 회피가 대나무 외교의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태국은 왜 강대국 프랑스와 두 번이나 전쟁을 벌였을까? 중립유지나 ‘강대국 간의 분쟁에 휘말리지 않는 것’이 대나무 외교의 기술 가운데 하나라면, 왜 태국은 제2차 세계대전 중 영국과 미국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었을까? 유연성이 대나무 외교의 주요 개념임에도 전후 태국은 왜 1970년대까지 ‘미국 일변도’라고 할 정도로 미국에 의존했고, 지도자들은 미국의 베트남 정책 전환에 충격을 받았는가? 시류에 편승하고 국제질서에 순응하는 것이 태국 외교의 상투적 수단이라면, 왜 피분은 1956년에 이르러서야 조공 제도의 관례를 채용해 친구의 자녀를 ‘살아 있는 공물’로 중국 지도자에게 보내는 방법을 택했을까? 실제로 태국은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자세를 보이며 바람에 순응하는 것이 아니라 바람 자체가 되고자 한 적도 있었다. 또한 세계정세의 격변에 잘 적응하지 못해 정권 자체의 붕괴로 이어진 ‘대나무 갈라지기’에 가까운 상황에 빠졌던 역사도 있다.

위와 같이 대나무 외교론은 성과를 강조하고 실패 사례는 무시하는 사후약방문적 성향을 가진 것으로, 태국 외교의 유연성을 지나치게 찬미하고 태국을 일률적으로 취급하며 역사를 단순화시키는 이야기에 불과하다. 또한 이 담론은 태국의 성공이나 특수성 및 그 연속성, 현명한 지도자의 선견지명과 태국 외교의 유연성을 강조하며 태국 예외주의에 입각해 태국을 다루기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국가, 불교, 왕실’을 높이 평가하는 태국 민족주의 육성에 이용되기 쉽다. 그러나 이 담론은 서서히 캐치프레이즈로 사용되어 시간이 지날수록 그 설명의 타당성이 엄밀하게 검토되지 않은 채 ‘암묵적 전제’로 정착해 왔다. 많은 연구자들도 담론의 재생산에 가담하면서 이는 태국 외교의 ‘만들어진 전통’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Kislenko 2002, Pavin 2012).

3. ‘대나무 외교론’의 산물 - 소국의식

앞서 언급했듯, 대나무 외교론이 말하는 것은 태국이 어떻게 각 강대국의 ‘바람’에 능숙하게 대처하여 성공했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필자는 대나무 외교론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가 본고에서 언급하는 ‘소국의식’이라고 주장하고자 한다. 여기서 말하는 ‘소국의식’이란 약자의 입장에서 국제환경, 대외관계, 자국의 정치, 경제, 행정, 군사력에 대해 주어진 자신의 ‘한계’ 안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약소함’의 자각에서 출발한 자기인식이라고 정의한다.

인구, 경제력 등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면 태국은 중견국으로 분류되는 경우가 많으며¹ ‘소국외교’라는 학문 분야에서도 태국을 사례로 다룬 연구는 전무에 가깝다. 그러나 역대 태국 지도자들은 태국을 ‘소국’으로 취급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은 흥미롭다. 그러한 소국의식이야말로 역대 지도자들, 언론, 일반인들의 대외의식 저변에 공통(通底)하는 것이었다. 그 사고방식은 지도자들이 정책을 전환할 때 특히 뚜렷하게 드러난다. 그 예로 다음과 같은 발언을 들 수 있다.

1969년부터 외무부에 입사해 주요 요직을 거쳐 2008년 외무부 장관을 역임한 테이트 분나크는 2021년 다음과 같이 태국의 외교를 평가했다.

소국인 우리는 강풍에 휘둘리는 위험한 세계에 살고 있으며, 우리 스스로 ‘주체성(Agency)’을 가질 수 없다. ‘주체성’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운명의 주인이 되는 것을 의미한다. 대국이라면 정세나 자신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지만, 우리와 같은 소국은 대국과의 관계에서 스스로 ‘주체’가 될 수 없다(Anuson 2021: 20).

역사를 돌이켜보면, 전쟁 중이던 1942년 12월 일본군대가 태국 경찰과 총격전을 벌였을 때 피분 총리는 “어느 쪽이 잘못했는지, 진상을 규명하지 말라. 우리나라는 소국이다. 가만히 참아 달라”고 명령하고 태국군을 이동시키기로 결정했다(吉川 1982: 381).

또한 1955년에 전후 태국을 미국 진영에 편입시키기로 결정한 피분은 적대 관계에 있던 ‘붉은 중국’과도 우호관계를 맺을 필요성을 느껴 ‘지하사절단’을 파견하고, 절친한 친구의 자녀를 ‘살아있는 공물’로 중국에 보내 저우언라이(周恩來) 총리나 라오청즈(廖承志)와 친자(親子)와 같은 친교를 맺으려고 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중국과 비공식 외교 루트를 모색했다. 피분 총리(당시)가 이러한 결단을 내린 동기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옛날에 우리 소국은 통치자의 자녀를 중국에 보내 황제에 대한 충성과 헌신의 증표로 삼았다. (중략) 강대국 사이에 있는 소국으로서 태국의 존속, 완전성과 독립성 유지는 한 외국의 악마를 다른 악마와 싸우게 하는 전통적 능력을 요구했다(시린 1994: 36-37).

그리고 ‘지하 사절단’의 비서를 맡았던 카르나 쿠사라사이는 1978년 인터뷰에서 사절단 파견의 필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우리는 소국이기 때문에 정세 변화에 순응해야 한다. 20년 전만 해도 대부분의 태국인들은 중국과 국교를 맺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태국이 중국의 적이 될 수 없다고 항상 확신했다(Karuna 2002: XII).

1 소국의 정의는 다양하지만, 세계은행은 인구 150만 명 미만의 국가를 ‘소국’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따르면 약 7,000만 명의 인구를 가진 태국은 결코 소국이 아니다.

그 외에도 피분 정권을 이어받은 사릿 정권에서 주미대사, 외무장관을 역임하고 1980년대까지 외교고문 등을 지낸 타나트 코만은 태국의 외교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했다.

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중견국도 아니다. 태국은 소국이다. (중략)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이어야 하고, (중략) 타이밍과 능력에 맞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 (Thanat 2016: 37-38).

또한 사릿 정권을 이어받은 타놈 총리도 1967년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지속할 필요성을 역설할 때 ‘태국은 소국’이라는 이유를 사용했다.

우리는 소국임을 자각하고 있다. 우리는 사람, 무기가 부족하고 우리 힘만으로는 우리보다 더 큰 힘을 가진 공산주의 강대국의 침략에 저항할 수 없을 것이다(Thanom 1967: 25-26).

이러한 사고방식은 정치 담당자뿐만 아니라 1970년대에 정부의 친미 노선을 비판한 좌파 지식인들에게도 침투해 있었다. 일례로 좌파 지식인을 대표하던 람캥 대학의 신청년클럽은 다음과 같이 태국의 미군기지 설치를 비판했다.

태국의 미군기지는 (중략) 하나의 독립된 소국의 국가적 수치를 상징한다. 대학생들에게 기대하는 것은 단결하여 태국에서 미군기지를 진지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쫓아내는 것이다. 이는 대학생들이 1973년에 이행해야 할 의무이며, 성공할 때까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Praesai 1973:32).

또한 후일 중국에서 천안문 사건이 발생한 1989년에는 이 사건에 응해 당시 정부 대변인이었던 스윗 요트마니가 다음과 같이 태국 정부의 태도를 표명했다.

우리는 중국 정부에 폭력행위의 종단을 원하지만, 이는 중국의 내정 문제 이기에 간섭할 수 없다. 태국은 소국으로 애초에 세계 경찰의 역할을 할 수 없다(Matichon Chapokit 1989: 64).

이처럼 당시 태국 정부는 ‘내정 불간섭’을 이유로 이웃나라로서 걱정은 하지만 소국 태국은 중국 정부를 비판하지 않는다는 자세로 일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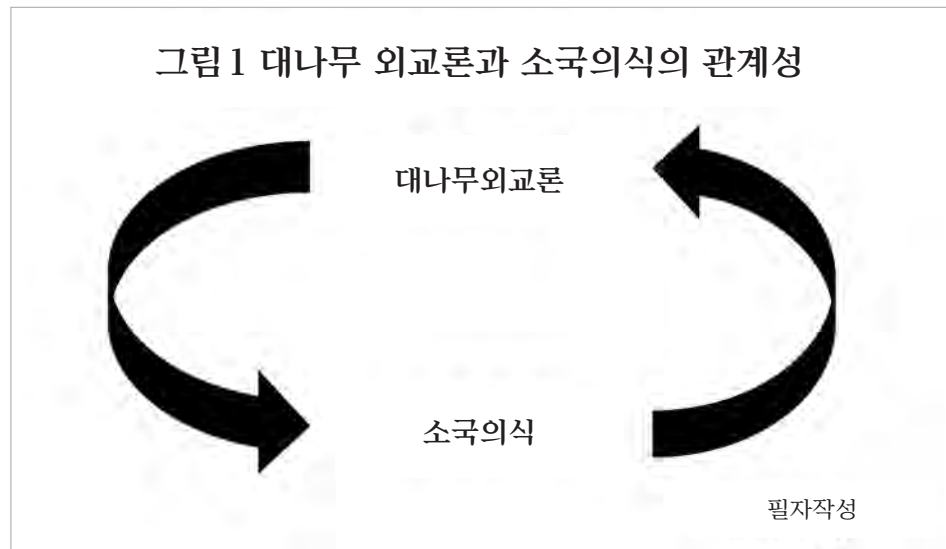
소국 의식은 2014~2019년 태국 총리를 지낸 빠라웃 짠오차 총리의 발언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 2019년 리커창 중국 국무원 총리가 태국을 방문했을 때 양국의 협력에 관한 회의가 끝난 후 빠라웃 총리는 리커창 총리를 향해 태국을 개미에 비유하며 “작은 개미도 백수의 왕인 사자나 코끼리를 도울 수 있다”며 태국-중국 우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상과 같이 소국의식은 시대를 초월하고, 정치적 입장을 초월하며, 정반대 사상을 가진 행위자들 사이에서도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읽을 수 있다(예외는 후술). 역대 태국 지도자들, 언론, 일반인들의 의견에는 통주저음(通奏低

音)으로 ‘소국의식’이 존재했다. 각 행위자들은 무의식적으로 약자의 입장에서 국제 환경, 대외관계, 자국 정세에 대해 주어진 ‘한계’ 내에서 행동해야 한다는 ‘약소함’의 자각에서부터 세계 정세를 인식하고 있었다.

이데올로기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강대국’으로 간주되는 국가는 변화해왔지만, 대부분의 경우 각 행위자들은 소국의식이라는 참조축을 통해 우호적인 강대국을 항상 찾았고, 위협이 될 강대국을 피해왔다. 그리고 대외 인식이 자기 인식의 연장이자 반영인 것처럼, 강대국에의 접근과 회피라는 과정은 도리어 스스로가 소국이라는 인식을 재생산하고 스스로 당연한 것처럼 믿게 만들어 버렸다. 바람이 불면 반드시 휘어진다는 대나무 외교론 그 자체와 그 사상의 ‘신봉자’들은 그 과정에서 탄생한 산물인 것이다. 태국이 소국이라는 ‘소국의식’은 구축, 전승된 자기 인식이며 대나무 외교론은 그 소국의식이 뒷받침한 담론이다.

다시 말해 태국은 바람에 순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대나무 외교론은, 태국이 강대국에 순응해야 하는 ‘소국’이라는 전제에 서 있으며, 동시에 대나무 외교론을 재생산함으로써 소국의식이라는 전제를 무의식적으로 수용하고 소국의식의 설득력을 높인 것이다. 소국의식은 대나무 외교론의 이야기를 지탱하는 전제이자 결과라 할 수 있다.



태국은 중국, 영국, 프랑스, 일본, 미국이라는 강대국을 바라볼 때는 스스로를 소국으로 자각하지만 라오스, 캄보디아 등 이웃나라를 바라볼 때는 스스로를 인접한 왕조를 합병할 수 있는 강대국으로 인식한다. 소국의식이나 대나무 외교에서 벗어나 근린 지역의 리더가 될 수 있다는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는 가능성은 제2차 세계대전 중 범태국 운동을 환기해 태국의 ‘대국화’를 이야기한 피분(1938-1944), 태국을 인도차이나 반도의 리더로 삼고 캄보디아 분쟁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한 차트차이(1988-1991), 동남아시아 지역의 리더가 되기 위한 방침을 추진한 탁신 정권(2001-2006)의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이처럼 ‘태국=소국’이라는 것은 진실이라기보다는 유동적이고 상대적인 자기 인식이었다.

그러나 ‘태국=소국’이 ‘인식’이지 ‘진실’이 아니라고 주장한다고 해도

이 이미지에 힘이 없다는 뜻은 아니다. 자기인식과 이를 통한 타자에 대한 반사 이미지는 외교적 행동을 좌우할 만큼 중요했다. 타나트의 “태국은 강대국도 아니고 중견국도 아니다. 태국은 소국이다”라는 인식이나 대나무 외교론이 지금까지 유력한 담론으로 지속된 것은 지금까지 태국의 외교정책이 작은 자신의 ‘한계’에서 출발한 경우가 많았음을 말해준다. 그 한계를 믿음으로써 ‘현실적’이어야 하고, 타이밍과 능력에 맞는 정책을 추구해야 한다(Thanat 2016: 37-38)는 생각이 태국의 유일한 활로처럼 보이기 쉬웠던 것이다.

외교정책은 세계의 ‘형세’ 보다는 각 행위자가 자신과 세계를 ‘보는 방식’에 따라 좌우된다. ‘세상은 당신이 보는 대로이다’라는 명언은 개인의 세계관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외교정책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외교적 판단과 사람의 인식은 불가분한 관계이다.

4. 소국 의식의 함의

대나무 외교론은 ‘강대국으로부터 많은 피해를 입었지만, 소국인 태국이 바람을 능숙히 타서 여러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전제에서 성립하고 있다. 따라서 이 이야기는 무의식적으로 ‘승자의식’, ‘소국의식’, ‘피해의식’을 동시에 양성하고 있는 것이다.

태국이 ‘여러 위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부분은 생존자로서의 승자의식을 강조하고 지도자의 영웅성을 내세워 민족주의를 조장하기 쉽다. 동시에 ‘강대국으로부터 여러 피해를 입은 소국’이라는 부분은 태국의 ‘비주체적 소국’, ‘작은 약자’, ‘어쩔 수 없는 피해자’의 입장을 암시적으로 호소하고 있다. 실제로는 다양한 장면에서 대국을 상대로 능동적 외교행동을 취했고 이웃나라에 실질적인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된 측면도 있었다. 그러나 소국의식은 국가로서 가져야 할 주체성과 책임감을 왜소하게 했고, 피해의식은 가해자의 일면을 망각하게 했던 것이다.

대나무 외교론의 메타내러티브가 제국주의 시대의 영국과 프랑스를 무자비한 제국주의자로, 삼을 소국으로 묘사함으로써 캄보디아 왕국의 합병, 라오스 왕국의 멸망 등 삼에 제국주의적인 일면이 있었다는 사실을 애매모호하게 했다. 냉전 시대에 태국 정부는 자신을 위기에 처한 소국, 베트남을 피에 굶주린 사나운 악마로 묘사하고 선전함으로써 ‘공산주의자’로 낙인찍힌 사람들에 대한 태국 정부의 잔혹한 탄압을 정당화했다. 동시에 태국이 라오스 내전에 간섭하고 미국에 인도차이나 거주민을 죽일 수 있는 기지를 제공했다는 자신의 사나운 면모를 감추었다. 그리고 1980년대에는 베트남을 피에 굶주린 침략자로 묘사함으로써 캄보디아에서 대학살을 자행한 폴 포트 정권을 지지할 필요성을 입증했고, 여론도 그 결정을 지지했다. 이러한 역사상의 의도적 망각은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즉, 외부의 제국주의자, 악마, 침략자라는 타자의 존재를 환기시킴으로써 자신은 제국주의자, 악마, 침략자가 아니라 오히려 그 위협을 받아온 무고한 피해자이자 약자라는 암묵적 전제로 설득된 것이다. 결국 가해자의 일면은 약자의

일면으로 말살되고, 역사상의 냉혹한 한 페이지는 각주로 밀려나 ‘대나무 외교론’에 묻혀 버린 것이다.

5. 맺음말

본고는 ‘대나무 외교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 저변에 있는 ‘소국의식’을 가시화하여 그 함의와 위험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대국의식이라고 하면 전전(戰前) 영토 확장주의를 내세운 일본, 현재 남중국해로 진출해 국방 예산을 점점 늘리고 있는 중국,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의 사례에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위험한 사고방식임은 두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태국의 경우 ‘소국의식’은 폭력에 정당성을 부여할 정도로 강력한 것이다. 대국의 대국의식과 비교하면 파괴력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결코 건전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중국사에는 ‘국치 백년’, 한국사에는 ‘희생자 의식 민족주의’ (임지형 2022), 일본사에는 ‘피해자 의식’이라는 논의가 있듯이, 약자의 입장에서 출발한 사고방식도 태국에만 국한된 것은 아닐 것이다.

참고 문헌

- Anuson Chinvanno. (2021). Thai Diplomacy: In Conversation with Tej Bunnag. International Studies Center, Ministry of Foreign Affairs.
- Karuna Kusalasai. (2002). Khana Thut Taidin Su Pakking [秘密使節団が北京へ]. Sukkhaphapchai
- Kislenko, A. (2002) “Bending with the Wind: The Continuity and Flexibility of Thai Foreign Policy”, International Journal, 57 (4), 537-561. <https://doi.org/10.1177/00207020020570040>
- Likhit Dhiravegin. (1974). “Thailand’ s Foreign Policy Determination”. Sangkhomsat, 11(4), 37-65.
- Matichon Chapokit. [マティション特別班]. (1989). Kawao Na Tian’ anmen [天安門広場の危機]. Matichon.
- Pavin Chachavalpongpun. (2012). “Thailand: the Enigma of Bamboo Diplomacy.” In Mckercher, B.J.C. (ed.), Routledge Handbook of Diplomacy and Statecraft. Routledge, 204-214.
- Pongphisoot Busbarat. (2016). “Bamboo Swirling in the Wind: Thailand’ s Foreign Policy Imbalance between China and the United States.” Contemporary Southeast Asia, 38 (2), 233-257. <https://doi.org/10.1355/cs38-2c>
- Praesai Namdamrong. (1973). “Chao Mahawitthayalai Kap Thanthap Amerikan Nai Prathetthai” [大学生とタイにおける米軍基地] in Chomrom Khon Runmai (ed.), Mahawitthayalai Thi Yang Maimi Khamtop [回答がまだ見つからない大学]. Bopit.
- Prapas Thepchatri. (2000). Nayobai Tangprathet Khong Thai: Chak Yuk Wikrit Settakit Su Sahatsawat Mai [タイの外交政策——経済危機時代から新千年紀へ]. Chulalongkorn University Press.
- Thanat Khoman. (2016). Riroem Kotang Samakhom Prachachat Echiatawan-okchiangtai (ASEAN) [ASEANを創立したきっかけ]. Thammasat University Press.
- Thanom Kittikachorn. (1967). Kanbanyai Bang Rueang Doi Chompon Thanom Kittikachorn [タノーム・キッティカジョーンによる講演選集]. Office of the Prime Minister's Printing Workshop.
- Thongchai Winichakul. (1994). Siam Mapped: A History of the Geo-Body of a Nation.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シリム・パタノタイ (1994) 『ドラゴン・パール (上)』 (田村志津枝訳) 講談社
- 吉川利治 (1982) 「タイ国ビブーン政権と太平洋戦争」『東南アジア研究』19 (4), 363-387.
- 林志弦 (2022) 「犠牲者意識ナショナリズム：国境を超える「記憶」の戦争」澤田克己訳 東洋経済新報社

제 2 세션

발표 2



일본 근대사와 동남아시아-

—1930년대의 평가를 둘러싸고—

요시다 마스미

미쓰이 문고

[원문은 일본어. 번역: 윤재언 (도요대)]

1. 들어가며

이번 발표에서는 전후 일본근대사 연구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¹의 관계가 어떻게 논의되어 왔는지를 시대배경과 학계조류를 바탕으로 소개한다². 일본에서는 제1차 세계대전 후 ‘동남아시아’ (현재와 거의 같은 지역을 가리킨다)라는 말이 교과서에 등장한다³.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남방(南方)’, ‘남양(南洋)’이라는 말로 이 지역을 나타내는 경우가 많았다⁴. ‘남양’이라는 말이 널리 사용되었음은, 1928년 설치된 타이베이 제국대학 문정학부(文政學部) 사학과에 ‘남양사 강좌’가 설치된 데서도 알 수 있을 것이다. 당시 일본에서 유일한 ‘남양사’ 전문 강좌로 전쟁 전 동남아 연구 · 교육의 하나의 거점이 됐다⁵. 그러나

1 이번 발표에서 ‘동남아시아’라 하는 경우, 현재 국가로 말하자면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미얀마(버마),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필리핀, 브루나이를 포함하는 영역을 가리킨다.

2 일본사에서 ‘근대’라 하는 경우, 이전에는 19세기 후반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제2차 세계대전 종결까지 기간을 가리켰지만, 현재 그 범위는 논의자에 따라 약간 달라, 1960년대나 70년대가 포함되기도 한다. 이번 발표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부터 각국과 배상 협정이 조인되는 1950년대까지를 ‘근대’로 본다. 또한 전후 일본 근대사 연구의 발자취에 대해서 영어로 쓰인 것으로는 Fumitaka Kurosawa, *Historical Perceptions and the Consciousness of War Responsibility: Scholarly Interpretations of Modern (Japanese) History in Postwar Japan*.

3 清水元『アジア海人の思想と行動』(NTT出版, 1997)

4 다만 ‘남방’, ‘남양’이 가리키는 지리적 범위는 시대와 사용자에 따라 다르며, 대만, 화남(푸젠), 남양군도(미크로네시아제도), 호주, 뉴질랜드, 동남아, 인도 중 하나, 또는 복수를 뜻하는 말이었다.

5 처음 강좌를 담당 한 사람은, 일본 정부 하에서 일본에 관한 해외 사료 수집과 대만사 관련 업무에 종사하던 무라카미 나오지로(村上直次郎, 1868~1966, 제국대학 문과대학 사학과 출신)였다. 무라카미의 전문은 대만사가 아니라 일본과 유럽 관계사라 부를 수 있는 것으로, 무라카미는 국외에 남아 있던 16, 17세기 일본 관계 사료를 정력적으로 수집, 번역, 간행해 바타비아 등 동남아 항구도시를 결절점으로 한 일본과 유럽의 접촉과 키리시탄사(역주: 일본 내 기독교 역사)를 연구하였다. 그에 대해 무라카미 밑에서 조교수를 지낸 이와오 세이이치(岩生成一, 1900~1988, 도쿄제국대학 사학과 출신)는 국사 출신이면서 학생들에게 동남아 연구의 기초를 친절하게 가르쳤다고 한다. 中村孝志「台北帝大のころ」大江志乃夫ほか編『岩波講座 近代日本と植民地』第4巻、月報(岩波書店、1993年).

이는 1920년대까지 일본에서 동남아에 대한 주목도가 반드시 높지는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실이기도 하다.

하지만 1930년대 이후 이 지역의 중요성은 계속 커졌다. 즉, 1931년 만주사변, 1932년 만주국 건국, 1934년 국제연맹 탈퇴 후, 중국, 소련과의 긴장 관계가 계속되고 있던 일본은, 1936년 8월 소련의 위협 배제와 함께 ‘남양=동남아’로의 진출을 국책으로 결정했다(‘국책의 기준’). 그 후 1937년 7월 시작된 중국과의 전쟁은 장기화되어, 1939년 7월 미국이 미일통상항해조약의 파기를 통고함으로써 자원 문제에 직면해 있던 일본은, 1939년 9월 유럽에서의 대전쟁 발발을 동남아에 대한 진출의 호기로 파악했다(1939년 2월에는 하이난섬을 점령하고 있었다).

1940년 7월에는 자급자족 태세의 확립을 목적으로 동남아에 대한 무력 행사를 정부 방침으로 정함과 동시에, 외무대신이 대만, 조선, 가라후토(樺太), 관동주, 만주국에 중국, 동남아를 더한 ‘대동아 공영권’ 확립을 향후 외교방침으로 삼을 것을 표명했다. 그리고 일본군은 9월 북부불인(北部佛印, 역주: 북베트남)에, 41년 7월에는 남부불인(南部佛印)에 진주하였고, 이후 자원 확보, 병참확보를 목적으로 동남아 각지를 군사 점령 하에 두고 군정을 세웠다. 1945년 9월 항복문서가 조인되고 전쟁이 종결된 후,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 의해 일본이 동남아 각국 6에 배상책임을 지도록 정해졌다. 각국과의 배상 협정은 1950년대 체결돼, 일본이 배상금 지불, 경제차관, 경제협력(역무 제공, 생산물 제공 등)을 하기로 약속했다.

이상은 지극히 정치외교사에 치우친 정리이지만, 근대 일본과 동남아의 주요 접점으로서 (1) 남진(론), (2) ‘대동아 공영권’ ≡ 군정, (3) 전후 배상과 같은 세 가지를 들어도 틀림없을 것이다. 19세기 후반 이래의 경제적 진출, 1940년 이후의 ‘대동아공영권’을 내세운 군사침공과 점령, 그리고 전후의 배상이다. 모두 현대의 역사인식으로도 이어지는 중요한 주제이지만, 지면 분량과 발표자의 전문 분야와 관련해 이번 발표에서는 (1)의 연구사를 (2)와의 접속에 유의하면서 정리하고자 한다⁷. 그러나, 그 전에 우선 ‘남진(론)’이라는 말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이다.

‘남진론’이란 일본의 남방진출의 중요성, 필연성을 주창하고 장려하는 사상이다. 19세기 후반, 독일, 영국, 프랑스, 미국 등 구미열강이 태평양으로 판도를 확대⁸하던 중 “일본이 국제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통상입국(通商立國)으로서 남쪽으로의 경제진출이 필요하다”라는 주장이 일본 국내 논단에 잇따라 등장했다⁹. 다만 19세기의 시점에서 이민지, 교역상대로서 주로 상정되었

6 버마,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다만 라오스, 캄보디아는 배상 청구권을 포기하고, 일본으로부터의 경제기술협력의 형태를 취하게 되었다.

7 덧붙여 번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이번 발표의 성격상, 문헌명 기재는 최소한으로 하고, 그 외는 연구자명만을 나타내기로 했다. 공개되고 있는 연구 성과의 상세는 성명을 바탕으로 조사해 주셨으면 한다. 2010년대까지의 연구 정리로 安達宏昭『日本の東南アジア・南洋進出』和田春樹ほか編『岩波講座 東アジア近現代通史』(岩波書店, 2011)가 있다.

8 1874년, 영국이 피지 제도를 식민지에 편입. 1887년부터 프랑스가 인도차이나 반도 동부를 서서히 식민지화. 1899년, 독일과 미국이 사모아 제도를 나눠가지는 형태로 식민지에 편입. 1898년, 미합중국이 하와이를 병합.

9 『자유교역 일본경제론(自由交易日本經濟論)』(1878년)을 저술한 경제학자 타구치 우키치(田口卯吉)와 『남양시사(南洋時事)』(1887년)를 출간한 시가 시게타카(志賀重昂) 등이 대표적이다.

던 것은 남서태평양 섬들이었고, 동남아 진출이 주제가 되는 일은 1910년대까지 거의 없었다고 봐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육군이 러시아의 위협을 염두에 두고 조선 · 만몽(滿蒙)을 일본의 세력권으로 확보할 필요가 있다(이를 위한 군사비 확대가 필요)며, ‘북진론’을 내세우자, ‘남진론’은 그에 대한 안티 테제(해군확장론≡무역입국론)였고, 또한 제1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이 위임통치령으로서 남양군도¹⁰를 실질적으로 획득하자, 그 섬들은 동남아 도서부라는 ‘보고금장(寶庫金藏)’으로의 ‘징검다리’로 인식되었고, 이 이후 본격적으로 ‘남진론’의 사정권이 동남아까지 넓혀지게 되었다.

‘남진론’이라는 하나의 말로 표현된 주의주장에는, 영토적 야심을 수반하는 쪽과 경제적 진출만을 주창하는 쪽이 있었고, 그 안에서도 상정하는 수단에 차이가 있었다. 전후의 연구에서는 이들 ‘남양론, 남진론’이라는 사상의 형성, 전개, 변화를 따라가는 것이 일본의 동남아 국가관계 특질을 찾아가는 중요한 시각’으로 간주되었다¹¹. 이는 전후 직후부터 구체적 국면에 관한 실증연구가 거듭된 중국에 비해 동남아 여러 나라와의 직접적인 접촉이 근대 일본에서는 적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남방진출을 주창하는 사상과, 일본이 군사 침공에 이르게 된 데 어떠한 관계가 존재한다는 전제가 존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사상으로서의 ‘남진론’에 대해, ‘남진’은 실천으로서의 남방진출을 일컫는 말이다. 메이지 시기 이래, 일본인은 동남아에 농업이민, 상업이민으로 건너갔고¹², 국내산업이 성장하면 상사가 각지에 지점을 설치하거나 농업, 임업, 광업의 개발을 목적으로 한 자본이 진출하기도 했다. ‘남진’은 이러한 개인 혹은 민간기업의 남방으로의 경제적 진출을 나타내는 말이며, 다른 한편으로 1940년 이후 일본군의 진주나 침공을 가리키는 말이기도 했다. 이 용법도 상술한 전제를 강화한 것으로 생각된다.

2. 일본 근대사에서의 ‘남진론’의 지위

그렇다면, 일본 근대사 연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동남아를, 또 남진(론)¹³이라는 현상을 각 시대 속에서 규정해 온 것일까?

전후, 일본 · 동남아 관계사 연구는 전시하 일본군정의 실태 해명과 그 역사적 평가-동남아 여러 나라 독립의 전사(前史)로서-를 논의의 초점으로, 1950년대 시작됐지만, 선두에 선 것은 서구권 연구자들이었다¹⁴. 당시 일본은 동남아 국가들과 배상 협정을 교섭 및 체결하는 단계였으며¹⁵, 일본인 연구자가 일본 점

10 마리아나, 캐롤라인, 마셜 각 군도로 이루어진 미크로네시아 제도(전 독일령).

11 正田健一郎「まえがき」、正田健一郎編『近代日本の東南アジア観』(アジア経済研究所、1978)

12 다만, 동아시아는 물론 아메리카 대륙과 비교해도 동남아로의 이민 수는 한정적이었다.

13 이하, 번잡함을 피하기 위해「」는 붙이지 않는다.

14 M. A. Aziz, *Japan's colonialism and Indonesia*, The Hague, M. Nijhoff, 1955, W. H. Elsabee, *Japan's role in Southeast Asia nationalist movement, 1940-1945*,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54, H. J. Benda, *The Crescent and the Rising Sun: Indonesian Islam under the Japanese Occupation 1942-1945*, Hague: Van Hoeve, 1958 등. 이하, 전후 직후의 일본-인도네시아 관계사의 연구사에 대해서는 後藤乾一『昭和期日本とインドネシア』(勁草書房、1986)、中野聡『東南アジア占領と日本人』(岩波書店、2012)을 참조했다.

15 차례로 버마(1954년), 필리핀(1956년), 인도네시아(1958년), 남베트남(1959년). 그 밖에 라오스, 캄보디아, 태국과의 여러 협정도 이 시기에 체결되었다.

령하 동남아를 순수학문적인 입장에서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¹⁶(물론 냉전 하 서구권 연구자의 일본군정 연구가 이데올로기나 정치적 입장에서 자유로웠다고 상정하는 것도 적절하지는 않다). 예외적으로 1959년 와세다대학 내 연구소가 『인도네시아에 있어서의 일본군정 연구』를 출판¹⁷했지만, 서구권 연구자의 자료 발표 요구와 록펠러재단의 원조가 간행 이유였다. 국내 곳곳의 공문서와 현지 일본어 신문자료 수집, 공청회 성과가 수록돼 있지만 일본 내 연구자들에 의한 일본·동남아사 연구가 본격화되지는 못했다¹⁸.

또한 전후의 일본정치외교사 연구에서는, 우선 ‘대미(영국·네덜란드) 전쟁으로 가는 길’ 혹은 전쟁책임이라는 관점에서 개전에 이르는 정치지도(指導)나 정군(政軍)관계, 대미외교의 실증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으며, 동남아에 관한 것으로는 대미개전의 전사(前史)로서의 불인(佛印) 진주에 이르는 정치과정의 분석이었으나, 동남아 그 자체에 초점이 맞춰진 것은 아니다¹⁹. 또한 경제사의 실증연구에서, 1950년대는 전쟁 전의 일본자본주의 논쟁을 재개하듯 에도막부 말기·유신사나 토지제도와 같은 자본주의사회로의 이행기에 초점을 맞춘 것이 주류이며, 이어 1960년대 산업혁명기 연구로 시대를 따라가도록 진전되고 있었다. 일본과 동남아의 경제적 관계가 긴밀해진 것은 1920~30년대였기 때문에, 전후 한동안 동남아가 일본 경제사 주류로 등장하는 일은 없었다.

1970년대에 이르러 전쟁 전·전시 동남아에 관한 사료(정부·군부의 공문서, 관계자의 회고록 등)의 공개가 진행되어, 실증연구의 길이 열리게 된 동시에, 1975년 출판된 야노 도오루(矢野暢) 『‘남진’의 계보』(주오코론사)가 메이지 이후 일본의 동남아와 관계를 하나의 연구 주제로 확립시켰다²⁰. 이 책은 지금도 전쟁 전 일본·동남아 관계에 관심을 갖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접하는 책이다. 원래 동남아 연구를 전문으로 하던 야노(1936년생)는 1970년 전후부터 근대 일본과 동남아의 관계에 대해 글을 발표하기 시작해, 『‘남진’의 계보』에 이어 『일본의 남양사관』(1979년)을 출간했다. 야노가 말하기를, 메이지 시대 일본과 동남아 관계는 주로 ‘서민의 자연 유출’이며, 언론 공간에 있어서의 ‘남진론’도 ‘기본적으로는 선의의 사상’으로서 ‘평화주의적인 뉘앙스를 두르고 있었다’. 그러나 정부가 남방으로의 세력 진출을 국책으로서 채용한 1936년 8월 이후의 ‘남진론’은, ‘위에서부터 인위적으로 조작된’ 붐으로, 동남아 지역으로의 정치적·군사적 팽창을 도모하는- ‘대동아 공영권’에 도

16 1950년대, ‘일본군이 남방에서 무엇을 했는가? 이러한 물음을 제기하는 것은 정말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졌다.’ 또 서구연구자는 1945년 8월 17일(독립선언) 이후 인도네시아 정치, 경제, 사회에 ‘일본군정 충격의 잔재를 발견’했지만, ‘1955년 당시 일본에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 것에 많은 이론이 있었다’. 「はしがき」 早稲田大学大隈記念社会科学研究所編 『インドネシアにおける日本軍政の研究』(紀伊国屋書店, 1959).

17 상동.

18 다만 1958년에는 재계·학계의 요청, 통상산업성 주도로 ‘아시아경제연구소’가 설립되어 대중국, 대조선반도, 대동남아 관계의 자료 수집,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통상산업성이 주도한 것에서 보듯, 아시아로의 무역확대와 경제개발을 위한 연구기관이라는 색채가 강해, 현상 분석이 그 주축이었지만, 일부에서는 해당 연구소가 적극적으로 수집한 자료는, 남방군정자료(기시 코이치 컬렉션)를 포함해 현재까지도 일본 근대사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1963년에는 국립대학인 교토대학 내에 동남아연구센터가 설치되어 많은 일본·동남아 관계사 연구자를 배출했다(현재는 동남아 지역연구연구소=CSEAS).

19 日本国際政治学会太平洋戦争原因研究部編 『太平洋戦争への道：開戦外交史 第6(南方進出)』(朝日新聞社, 1963)

20 이 책 및 야노의 연구 의의에 대해서는 시미즈 하지메의 ‘해제’ (『『南進』の系譜 日本の南洋史観』千倉書房, 2009)가 있으며, 이번 발표도 그 내용에 기반하고 있다.

달하는 - ‘악(惡)’의 사상이었다.

야노가 이렇게까지 국책을 뒷받침한 이데올로기로서 쇼와시대 남진론을 규탄한 배경에는, 동남아 연구자로서의 그가 놓여 있던 동시대 국제정세가 있었다.

일본은 1970년대 초부터 동남아 각국에 대한 자본수출을 본격화해, 각지에서는 일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 ‘경제 침략’에 대한 반감이 관과 민에서 쏟아지고 있었다. 야노가 『‘남진’의 계보』를 출판하기 전 해인 1974년 1월, 다나카 가쿠에이 수상이 동남아 각국을 순방했을 때에는 각지에서 데모가 발생해, 이 중 자카르타에서 폭동을 체험한 것이 『‘남진’의 계보』출판 계기의 하나였다고 야노도 적고 있다²¹. 눈 앞에서 반일감정을 야기시키는 전후 일본의 동남아로의 경제적 진출, 그 배경에 있는 일본인의 ‘정신’에 야노의 관심이 있었다.

『‘남진’의 계보』나 『일본의 남양사관』은 일반서이고, 실증성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근대 일본과 동남아 관계에 관한 복수의 주제를 제시하고²², 이후 역사학 연구자가 근대에 있어서의 일본 · 동남아 관계를 다각적으로 논할 소지를 형성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거기에 강렬한 편견이 개입돼 있다는 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야노는 메이지시대 남진론과 쇼와시대의 단절을 강조하는 한편, 통상을 목적으로 하는 남진론이 고조된 다이쇼시대 잡지 등에 나타난 ‘남양 붐’이 쇼와시대 ‘국책으로서의 ‘남진’에 ‘실질적인 힘과 대중적 기반을 부여’하는 ‘복선’이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야노가 ‘국책으로서의 ‘남진’으로 제시하는 각의 결정이나 북부불인(佛印) 진주의 실행, 대동아공영권구상, 남부불인 진주는, 영미와의 외교 교섭이나 중국 대륙에서의 전황을 함께 상정한 고도의 정치판단 결과로, 다이쇼 시대 ‘남양 붐’을 이러한 복선으로 파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동시에 야노는 일본의 동남아로의 경제적 진출(상업자본, 산업자본)이 현지에서는 미미했다는 사실을 근거로, ‘제국주의적’이었던 중국대륙으로의 진출과의 차이를 지적하고 있다. 즉 야노의 저작은, 그 주장과 달리 일본의 동남아 침공과 그 이전까지의 통상입국적인 남진론 및 남방 관여의 관계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었다. ‘근대 일본의 도리에 어긋난 역사’에 있어서의 ‘남진’이라는 꺼림칙한 현상’의 ‘계보’를 찾아내겠다는 문제의식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야노는 논의에 있어서 비약을 내포할 수밖에 없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²³.

3. 일본 · 동남아시아 경제관계에 대한 주목

그 후 남진에 초점을 맞춘 연구 중에서, 일본의 동남아 진출은 장기화되는 일

21 『「南進」の系譜』まえがき.

22 메이지 초기부터 동남아로 건너간 ‘카라유키 씨’라 불리는 일본인 항부, 남진론의 내용과 사회적 배경, 현지에서의 상업·이민사회의 실태, 해군의 남진론 등.

23 야노는 명시하지 않지만, 1936년 8월 ‘국책의 기준’이 일본의 남방침략으로 가는 길을 결정적으로 만들었다는 평가는, 전후 극동국제군사재판의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야노 뒤에 남진론 연구를 축적해 간 시미즈 하지메(清水元)의 논지도 쇼와 시대 남방에 대한 침공과 그 이전 남진론의 연결을 강조하는 것으로, 야노의 문제의식을 계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중전쟁의 계속능력 유지를 위한 자원(석유) 확보라는 현실적 요청의 결과로 보는 견해(오하타 도쿠시로(大畑篤四郎))나, 1936년 8월 ‘국책의 기준’ 시점에서 구체적인 남진정책은 구상되지 않았다는 지적(하타노 스미오(波多野澄雄))이 있었고, 1980년대에는 일본의 남방 군사침공의 복선이나 기원을 다이쇼 시대나 1930년대 남진론에서 찾는 것은 어려워졌다. 그리고, 오히려 야노가 주목하지 않았던 민간의 경제적 진출을 국제관계 속에 자리매김하려는 연구가 등장한다.

전간기 연구가 최전성기를 맞이한 1980년대 일본경제사에서는 1931년 12월 금 수출 금지 후 환율 하락과 노임 저하에 의해 일본의 면 제품의 대동남아 수출이 급증한 것²⁴이, 일본의 세계공황에서의 회복을 신속하게 한 하나의 요인이었다는 점이 지적되고, 또 일본제품 유입에 대해 동남아에서 대일봉쇄책(對日防遏策)이 취해진 것에 의해 일만지(日滿支) 블록의 중요성이 높아진 것, 혹은 화북으로 한층 더 자본 진출이 이루어졌음을 시사했다²⁵. 즉 1930년대 동남아와의 경제관계 변용이, 무역·재정 구조에 있어서 일본의 전시 경제나 대륙 진출과 연결되어 있다고 여겨졌던 것이다. 이 평가는, (마르크스 경제학, 특히 레닌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주석이 붙지만) 경제를 통해 대동남아 관계와 대중관계(대륙 진출)가 연동되어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같은 시기에는, 일본·동남아 경제관계-특히 일본의 진출에 따른 경제마찰 발생-에 착안한 실증연구도 이뤄졌다²⁶. 1930년대 동남아에서의 일본의 경제 활동을, 일본 정부, 기업의 동향뿐만 아니라, 식민지-종주국 관계나 현지 자본, 상인의 이해관계를 시야에 담은 이러한 연구는 동남아로의 일본의 경제적 진출을 영미 및 네덜란드와의 관계에서 파악하고자 한 점에, 앞서의 일본 경제사 연구와 차이가 있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1930년대, 즉 만주사변, 일중전쟁 발발, 자원문제의 직면과, 일본을 둘러싼 국제환경이 격동하는 시대에 일본의 동남아 경제적 진출을, 아시아·태평양전쟁의 여정 속에 자리매김시키는 것에 급속적이었던 점도 특징이다.

Ian Brown은 이렇게 말한다. “태평양전쟁의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동남아에서 일본과 서구국가의 통상마찰이 전쟁을 사실상 불가피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 동시에, 부수적인 요인이었다 볼 수도 있고, 혹은 1930년대 말 일본과 서구 국가 간 긴장관계 증대 속에서 상대적으로는 중요한 요인이 아니었다고 볼 수도 있다²⁷.”

물론, 일본 제품이 일본 상사와 일본 해운에 의해 동남아로 수입돼, 일본 상인이 현지에서 그것을 판매하는 조직적 진출은, 일본이 정치적 야심을 갖고 있

24 이는 이미 지적되고 있었다. 林健久・山崎広明・柴垣和夫『講座 帝国主義の研究』第六巻(青木書店、1973)。

25 橋本寿朗『大恐慌期の日本資本主義』(東京大学出版会、1984)。

26 먼저 시작된 연구로 村山良忠「第1次日蘭会商-日本の有和的經濟進出の転換点」、清水元編『兩大戰間期日本・東南アジア關係の諸相』(アジア經濟研究所、1986)。또한 스기야마 신야(杉山伸也)-Ian Brown을 필두로 일본, 영국, 필리핀, 싱가포르의 역사학 연구자가 모이는 공동연구가 이뤄졌다. 그 성과는 杉山伸也・イアン・ブラウン編『戰間期東南アジアの經濟摩擦-日本の南進とアジア・欧米-』(同文館)으로서 1990년에 출판되어 후에 영어판으로서 S. Sugiyama and M. C. Guerrero (eds), *International Commercial Rivalry in Southeast Asia in the Interwar Period*, New Haven: Yale Center for International and Area Studies, 1994가 출판되었다(일부 내용이 다르다)。

27 이언·브라운「エピローグ」、『戰間期東南アジアの經濟摩擦』293-294。

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경계를 식민지 정부에 갖게 했지만, 가장 대립이 심각했던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무역 마찰을 둘러싼 외교 교섭도 연착륙하여 경제관계는 이후에도 유지되었다(일본은 경제적으로 고립되지는 않았다)는 평가를 받는다²⁸.

특히, 일본 · 인도, 일본 · 네덜란드령 동인도와 경제적 상호의존 관계의 계속성을 강조하는 카고타니 나오토(籠谷直人)는 1930년대 후반 일본의 대외 관계 악화는 ‘정치’의 문제였다는 견해를 나타내, 통상 문제를 분리해 파악한다²⁹. 이는 Ian Brown이 유보한 경제 마찰의 평가에 대한 하나의 답변이지만, 동남아로의 수출 공세와 그로 인해 생긴 대립을 국제수지나 자본 동향에 주목하면서 대중 관계(대륙 진출)와의 연동을 그려낸 일본 경제사 연구와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이 점에 대해 현시점에서 논의의 진전은 보이지 않는다.

또한, 남방에서의 일본 기업의 상거래, 투자 등을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검토한 일본 경제사가의 공동연구³⁰는 군사침공 이전의 기업활동이 침공 이후 정부 · 군으로부터의 사업 수명(受命, 역주: 낙찰)과 연결되어 있음을 지적했지만, 1930년대 경제활동과 군사적 · 정치적 진출의 직접적 관련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³¹, 오히려 경제활동의 정체가 일본을 1940년 이후 무력행사에 이르게 했다는 논지다. 이는 최근 연구에서도 재차 강조되고 있다³². 지금까지 내용을 정리하면, 1930년대 일본의 동남아 경제적 진출에 대해, 1940년 이후 군사 침공의 연속성 내지 직접적 인과관계는 부정되고 있지만, 1930년대 대중 관계나 대서구 관계에 대한 영향의 유무에 대해서는 아직 공통 견해가 형성되어 있지 않다고 할 수 있다. 후자에 대해서는 20년 이상 연구가 정체돼 있다.

4. 맺음말

사실 필자가 거론한 ‘1930년대 일본의 동남아 진출’은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도, 일본 · 동남아 관계사 연구에서도 방류에 있는 주제다. 그럼에도 이번 발표에서 이 문제를 다룬 이유를 설명하기 전, 일본 · 동남아 관계사 연구의 ‘본류’에 대해 지극히 개설적인 소개를 해 두고자 한다.

야노 도오루가 남긴 연구를 발표했을 무렵, 야노와 동일하게 인도네시아 현대사를 전문으로 하는 고토 겐이치(後藤乾一)가, 1930년대 후반부터 점령까지

28 村山. 籠谷直人『アジア国際通商秩序と近代日本』(名古屋大学出版会, 2000)

29 카고타니는 ‘아시아교역권’ 연구를 수행하는 학자의 한 사람으로, 스기하라 가오루(杉原薫)가 제시한 ‘아시아 무역(inter-Asia trade)’ 논의를 전제로 동남아 화교·인교(印僑)의 상업 네트워크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도, 이 통상질서 유지 평가의 배경에 존재한다. ‘아시아교역권’론은 1980년대 중반 등장한 연구 조류로, 유럽의 우위와 비유럽지역의 수동적 대응이라는 ‘서양중심주의’를 전제로 한 종래의 경제사에 대해, 아시아 지역에는 유럽 세계로부터 상대적으로 자립한 경제질서가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주요 논지로 삼는다. ‘아시아간 무역’이 이끈 ‘아시아 경제사’라고 하는 틀은, Kenneth L. Pomeranz, *The great divergence* (2000) 이후 ‘글로벌·히스토리’가 대두하기도 해 현재는 정착돼 있다.

30 正田康行編『南方共栄圏：戦時日本の東南アジア経済支配』(多賀出版, 1995)

31 이 점에 대해서 자원 개발·조달이라는 관점에서 1930~1940년대 일본 기업의 동남아 진출, 외교 교섭을 검토한 安達宏昭『戦前期日本と東南アジア-資源獲得の視点から-』(吉川弘文館, 2002)도(아마도 저자의 당초 전망과는 달리) 1930년대 기업 진출은 현지의 정치경제, 법규 제약 때문에 협조적이고 한정적인 것이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32 河西晃祐『帝国日本の拡張と崩壊-「大東亜共栄圏」への歴史的展開-』(法政大学出版局, 2012)

일본·인도네시아 관계의 실증 연구를 진전시키고 있었다³³. 이번 발표에서는 경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관계로 지금까지 고토의 연구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그것이 일본·동남아 연구의 수준을 단번에 끌어올린 것은 틀림없다. 일본과 인도네시아 쌍방향의 영향을 파악하려는 고토는 실증에 있어서 일본 사료, 네덜란드 사료, 인도네시아 사료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일본인, 외국인으로부터의 청취 조사를 실시했다³⁴.

고토와 함께 일본·인도네시아 관계, 특히 일본 군정과 그 치하의 인도네시아 사회에 대해 실증 연구를 거듭해 온 것이 쿠라사와 아이코(倉沢愛子)다³⁵. 또 말레이 연구에서는 하라 후지오(原不二夫), 나카하라 미치코(中原道子), 태국 연구에서는 요시카와 도시하루(吉川利治), 필리핀 연구에서는 하야세 신조(早瀬晋三), 나카노 사토시(中野聡), 버마 연구에서는 네모토 케이(根本敬) 등이, 전후 연구의 제1세대 아카시 요지(明石陽至)에 이어 근대 일본·동남아 관계사 연구를 이끌어 왔다.

이러한 연구는 특히 일본 점령기의 일본군, 일본인과 현지사회의 관계, 배상, 나아가 그 경험을 전후의 일본사회·동남아사회의 관계를 쌍방향으로 파악하는 실증연구를 거듭하고, 또한 전후 일본에 존재하는 ‘해방사관’, 즉 전쟁 전 일본이 동남아 국가들을 서구 종주국으로부터 ‘해방’ 시켜, 전후 독립으로 이끌었다고 하는 역사인식의 오류를 지적해 왔다³⁶. 일중, 일한, 일대(日臺) 역사 인식 문제에 일본 근대사 연구자가 대치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상황이다. 대략적으로 말하면, 일본·동남아 관계사의 핵심인 ‘대동아공영권’ 연구는, 현지 사회에서 일본군의 지배 실태를 그려내는 동남아 연구자와 정치 지도나 정책 결정으로부터 일본 정부의 전시외교·전시경제정책을 분석하는 일본 연구자³⁷라는 분업체제가 적용됐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나치게 충분할 정도로 연구가 축적되어 있다. 게다가 전후 80년을 앞두고 있는 현재, 적어도 일본 연구에서 역사학자의 연구 대상은 본격적으로 전후로 옮겨가고 있고, 대동남아 관계도 예외는 아니다³⁸.

그러나, 전쟁 전 연구에서 과제나 진전의 가능성이 남아 있지 않은 것은 아니다. 2000년대부터는 이민·이동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활발히 발표되고 있으며, 동남아에 대해 지금까지의 분업을 잇는 등 새로운 축적이 이루어지고 있다

33 後藤乾一『昭和期日本とインドネシア』등. 논문집 등에서도 성과를 발표. 그 논점은 일본 육해군에 있어서 남진론 정책화의 여정, 아시아주의 단체와 남진론의 접속(단 야노와 같은 논의는 아니다), 인도네시아 거주 일본인의 의식·지위, 인도네시아의 민족주의 운동에 있어서의 일본의 위치설정 등 다방면에 걸쳐 있다. 고토는 전쟁 전 일본의 ‘인도네시아관’을 경제보완론, 일본맹주론, 인도네시아 민족에 대한 우월감 등 3가지로 집약해 이 3가지로 1940년대 논리가 구축됐다고 결론 내렸다. 오늘날까지 고토의 연구는 後藤乾一『日本の南進と大東亜共栄圏』めこん, 2022에 정리되어 있다.

34 이는 전후 이래 일본근대사의 연구 조류와 맞물려, ‘일본근대사에서의 동남아’ 연구를, 동남아 전문 연구자가 주도해 가는(현지어를 이해 못하는 일본근대사 연구자가 이 테마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지는 않는다) 이유의 하나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35 쿠라사와의 저작은 그 숫자가 매우 많지만 여기에서는 倉沢愛子『資源の戦争—「大東亜共栄圏」の人流・物流』岩波書店, 2012를 소개한다.

36 예를 들어, 倉沢愛子編『東南アジア史のなかの日本占領』(早稲田大学出版部, 1997)

37 정치외교사에서는 하타노 스미오, 경제사에서는 야마모토 유조(山本有造), 하라 아키라(原朗) 등.

38 八代拓『蘭印の戦後と日本の経済進出—岸・池田政権下の日本企業—』晃洋書房, 2020 등.

³⁹. 또한 2010년 출간된 『이와나미 강좌 동아시아 근현대 통사⁴⁰』(역주: 강조는 필자)는 동북아뿐만 아니라 동남아, 남아시아, 극동 시베리아까지도 대상으로 했다. 기존에 ‘동아시아’로 여겨져 온 중국, 조선, 대만, 일본의 근현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보다 광범위한 지역과의 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는 인식은 ‘글로벌 히스토리’라는 말을 내세우지 않는 연구자에게도 공유되고 있다.

필자는 ‘일국사적(一國史的)’이나 ‘글로벌 히스토리’라 이름을 붙이는 데 특별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한다. 각국간 혹은 제국(帝國) 내 정치경제관계 변동이나 각 주체의 존재를 살피며 근대 일본과 동남아 관계를 묻는 것에는, (방대한 실증연구가 거듭되고 있는 대중 관계에 비해) 충분히 심화의 여지가 남아 있어⁴¹, 이번 발표에서는 그 일례로서 1930년대 일본의 동남아로의 경제적 진출을 다루었다.

39 아라라기 신조(蘭信三)의 일련의 편저 등. 다만 현 단계에서는 각론이 많으며, 예를 들어 일본 근대사에서 의 塩出浩之『越境者の政治史』(名古屋大学出版会、2015)와 같은 체계적 연구에 대응하는 데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남방 이민의 최신 연구로 오쿠보 유리(大久保由里)의 것이 있다.

40 和田春樹·後藤乾一·木畑洋一·山室信一·趙景達·中野聡·川島真編『東アジア近現代通史』全11卷(岩波書店、2010-2011)

41 자바당(糖), 대만당(糖)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면서 일본 식민지 경제의 한 측면을 그린 平井健介『砂糖の帝国』(東京大学出版会、2017)은 일본식민지 경제사와 아시아 경제사의 간극을 메우려는 것이다.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회고와 전망—

윤 대영

서울대

1. 서론 -8세기~19세기초

한반도는 언제부터, 어떻게, 왜 동남아 지역과 관계를 형성하며 이 지역을 주목하게 되었을까? 전통시대에 두 지역 사이에는 공식적인 교섭이 없었지만, 양자의 인연은 대략 8세기 무렵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新羅의 승려 慧超(704~787)가 고국을 떠나 唐나라에 건너간 때는 719년으로 추정된다. 그는 廣州에서 金剛智(Vajrabodhi, 671~741, 南印度 출신의 密敎僧)를 만나 공부 하던 중, 스승의 권유로 723년에 광주를 떠나 日南¹, 閩蔑, 수마트라(Sumatra), 裸形國² 등지를 거쳐 인도로 求法 巡禮 여행을 떠났다.

이후에 동남아 관련 정보는 주로 중국을 통해 한반도에 들어왔다. 신라 시대의 문장가이자 학자인 崔致遠(857~?)은 868년에 당에 건너가 과거에 급제 하여 880년대 초반까지 관리 생활을 했다. 그는 884년에 귀국한 후 중국 체류 당시의 견문을 바탕으로 ‘交趾’의 사방 경계와 唐代 ‘安南都護府’의 연혁을 알리는 과정에서 베트남 북부의 역사, 지리, 문화 등을 개략적으로 소개 하기 시작했다(『桂苑筆耕』[886]). 이후 高麗 시대(918~1393)와 朝鮮 시대(1392~1910)를 거치면서 南越의 역사와 풍물, 後漢 시기 馬援의 베트남 원정과 쯡(Trưng, 徵) 자매의 저항 운동, 베트남과 중국의 관계, 중국의 ‘安南’ 지배 양상, 明의 베트남 정벌 등과 같은 사실들이 차츰 알려지게 되었다.

두 나라 사이의 비공식적인 접촉으로는 항해하던 중 표류한 베트남인이 한반도에 이르든가 조선인이 베트남에 표류한 경우를 들 수 있다. 12세기와 13세

1 혜초의 오언 율시「在南天路」에는 “일남에는 기러기도 없으니(日南無有雁) 누가 계림으로 날아가리(誰爲向林飛)”란 구절이 나온다. ‘일남’은 현재 베트남의 꽝 빈(Quảng Bình)에서 다 낭(Đà Nẵng)까지 포괄하는 지역이다.

2 ‘각덜’은 ‘크메르’의 음차로 추정되고, 현지인들이 벌거벗었다는 의미의 ‘나형국’은 오늘날의 말레이반도 北西岸으로 추정되고 있다. 高柄翊, 「혜초의 인도 항로에 대한 고찰」, 『불교와 諸科學』, 서울: 동국대학교 출판부, 1987, pp. 876, 882-885.

기에 각각 高麗로 표류했다가 정착한 江原道の 旌善李氏와 黃海道の 花山李氏는 두 집안의 족보를 통해 당시의 상황과 정착 과정을 알려준다. 그리고 17세기 후반에는 濟州島 사람들이 漢陽으로 말을 進上하러 가다가 베트남 중부 호이 안(Hội An) 근처의 꾸 라오 찰(Cù Lao Chàm) 섬에 표류한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 시대에 北京으로 파견된 사신들은 외국, 특히 베트남 사신들과 교류하면서 현지 ‘찬탈’ 왕조에 대한 중국의 대응, 寶貢科 출신의 士人들, 특산물 등과 같은 정보를 귀국 후 조정에 보고하거나 개인의 문집에 남겨 놓았다. 특히, 조선 중기의 문신으로 세 차례나 중국을 다녀온 李睟光(1563~1629)은 현지의 문화 뿐만 아니라 安南·琉球·暹羅 사신들과 교류하면서 국제적인 안목을 키울 수 있었다. 그의 『芝峯集』에는 베트남 레(Lê) 왕조(黎朝)의 사신 풍 각 코안(Phùng Khắc Khoan, 馮克寬, 1528~1613)을 만나 필담을 통해 알게 된 安南의 풍속과 제도 등이 상세히 소개되어 있고, 『芝峯類說』의 卷2「諸國部」는 安南, 暹羅, 眞臘 등 동남아 국가에 대한 정보를 소개하면서 자연환경이나 경제 상황, 역사, 문화, 종교 등을 가능한 객관적으로 서술하면서 실용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이수광의 노력은 18세기 후반의 조선 사신들에게로 이어졌다. 그래서 1766년의 洪大容, 1777년의 李押, 1780년의 朴趾源 등은 安南의 조공, 지리, 문화, 풍물, 물산, 학문 풍토에 관한 글을 남겼고, 1790년의 徐浩修는 레 왕조를 ‘찬탈’ 한 떠이 썬(Tây Sơn, 西山) 정권을 비판했다. 그리고 19세기 전반의 使行團은 새로 등장한 응우옌(Nguyễn) 왕조(阮朝, 1802~1945)를 ‘安南’에서 ‘越南’으로 지칭하기 시작하면서 이 왕조의 건국과 관련된 캄보디아와 태국의 역사와 문화도 알렸는데, 이러한 노력은 라오스와 미얀마, 그리고 필리핀으로도 확대되었다. 이수광의 실용적인 학문을 계승했다고도 평가되는 李肯翊(1736~1806), 丁若鏞(1762~1836), 金正喜(1786~1856), 李圭景(1788~1856) 등도 중국 빈공과 출신의 안남 사인들, 어물 장수 文順得의 안남 표류, 南越과 交趾를 정복한 중국의 장군들과 중국 관리가 안남에 소개한 농법, 아이 찌우(Ái Châu, 愛州)의 비단, 벼 품종, 양잠, 浙江省이나 福建省에 창궐한 안남의 해적, 12-18세기 베트남의 역사와 참고 문헌 등을 소개했다.

2. 위기의식에서의 변화-19세기~20세기초

그런데 동남아에 대한 이러한 조선 관리들과 사인들의 관심은 제1·2차 中英戰爭 시기(1839~1842, 1856~1860)부터 當代의 정치적 현안으로 옮겨졌는데, 이 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1874년 사행단이 보고한 베트남의 식민지화와 대외 정세에 대한 조선의 위기의식이었다. 1880년대 초에 일본에 파견된 修信使 金弘集(1842~1896)은 청나라 주일 공사관의 참서관 黃遵憲의 『朝鮮策略』(1880) 등을 근거로 베트남의 위기에 주목하면서 일본에 의한 仁川 開港을 경계했고, 중국으로 파견된 營繕司 金允植(1835~1922)도 베트남의 국제 정세를 소개하면서 조선의 장래를 걱정했다. 또한, 지식인 尹致昊(1865~1945)는 淸佛戰爭의 여파로 甲申政變이 발발하게 된 경위를 설명하

고 있었다. 이처럼 베트남의 정세가 당시 조선의 현안과 긴밀히 연결되던 시기에, 멸망한 베트남 및 미얀마와 독립을 유지하던 태국을 비교하거나, 갑신정변 및 甲午更張 당시의 일본과 프랑스의 대조선·대베트남 전략을 비교하는 관점도 등장했다. 아울러, 大韓帝國 시기(1897~1910)의 『독립신문』은 1899년에 영국의 인도 통치가 프랑스의 식민지 개발 의욕을 자극했고, 이 야욕의 첫 번째 대상이 베트남이었음을 밝혔다.

러일전쟁 이후 일본으로 東遊運動을 떠난 베트남의 독립운동가 판 보이 찌우(Phan Bộ Châu, 1867~1940)가 梁啓超(1873~1929)의 도움으로 上海에서 간행한 『越南亡國史』(Việt Nam Vong Quố Sử, 1905)가 한국에서도 큰 인기를 끌었고, 1906년에는 국한문본이나 한글본이 출간되기까지 이르렀다. ‘亡國’에 이르는 베트남의 굴욕적 상황은 한국 독립운동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고, 베트남 관련 역사서가 한국에 들어와서 번역되어 사회에서 큰 반향을 일으킨 최초의 사례였다. 1909년부터 일제 식민 정권이 이 서적의 발간과 판매를 금지했지만, 이후에도 『월남망국사』는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해외 동포들 사이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남아, 특히 베트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07년에 俞鉉兼이 編한 『中等外國地理』의 제3절은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통킹(東京), 안남(安南), 코친차이나(交趾) 지역의 연원과 식민지화 과정, 紅河 델타와 메콩 델타의 지리적 특성, 벼농사, 무역항으로서의 하이퐁(Hải Phòng, 海方)과 사이공(Sài Gòn), 후에(Huế)의 왕궁 등에 관한 정보를 다루고 있었다. ‘인도차이나’라는 용어는 재일 유학생 학회의 『太極學報』에서도 같은 해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베트남이 ‘안남’, 그리고 ‘월남’ 등으로 지칭되다가, ‘인도차이나’가 등장하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이듬해부터 국내의 『湖南學報』와 국외의 『海潮新聞』(블라디보스토크) 및 『新韓國報』(호놀룰루) 등이 현재사의 관점에서 베트남 중부의 항세 운동, 동유운동의 실패로 일본에서 축출된 베트남 학생들, 호앙 호아 탐(Hoàng Hoa Thám)의 반식민 저항 운동 등을 소개하기 시작했다.

그런데 1910년 8월 22일의 한일 병합 이후, 국내의 학회 및 언론 활동이 침체기에 접어들자, 연구 활동도 감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래서 20세기 초부터 베트남을 중심으로 발전하기 시작한 동남아시아 연구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분위기는 1919년 3.1운동 이후 시행된 ‘문화 정책’으로 완화되었다. 1920년부터 『東亞日報』, 『朝鮮日報』, 『時代日報』 등을 중심으로 베트남의 현실과 풍습, 서구인들의 인도차이나 연구, 식민 당국의 활동, 인도차이나의 화교, 국내외 독립운동 등이 소개되었다. 대중 잡지 『別乾坤』과 『三千里』는 1930년부터 프랑스-베트남 관계사, 베트남의 사회경제적 상황과 독립운동, 필리핀의 반미 운동 등을 다루었다. 그 결과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도 재개되는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사회주의자 독립운동가 李如星(1901~?)은 1930년경 世光社(京城府 花洞 24번지)에서 간행된 『世界弱小民族運動概觀』의 「安南人の 운동과 그 장래」에서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소개했지만, 일제는 치안을 불안하게 한다는 이유로 판매를 허가하지 않았다. 그리고 8세 때 부친을 따라 渡日해 東京에서 성장한

洪穆(1920~1982)은 현지의 中央大學을 졸업한 후 일본 회사에 취업하려다가 조선인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했다. 그래서 그는 “우선 남방에 진출할 뜻이 있어” 베트남어를 가르치던 興南學院에 다녔고, 여기에서 베트남어 교사이자 독립운동가였던 응오 반 민(Ngô Văn Minh, 吳文盟)을 만나 베트남의 민족운동에 대해 알게 되면서 한국의 독립운동에도 뛰어들고자 결심하게 되었다. 아울러, 홍목은 스승을 통해 입수한 판 보이 찌우의 저서 몇 권을 바탕으로 ‘오오야마 유키노부(大山幸伸)’라는 가명으로 베트남의 민족운동에 관한 『印度支那動亂四十年史』를 저술하여 東京의 軍事教育社에서 발간했고, 1943년 1월부터 일본 전국의 서점과 神田 소재 한인 식당을 통해 학생 지식층에 배포하기 시작했다. 베트남의 독립운동을 다루는 『세계약소민족운동개관』과 『인도지나동란사십년사』는 同病相憐 이웃 나라에서 교훈을 얻어 한국의 독립운동에 적용하려는 의도로 작성된 저술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베트남의 민족운동과 한국의 독립운동의 연계를 모색하고 있었다.

이여성이나 홍목 이외에도 본격적인 동남아사 연구를 진행한 인물 중에는 金永鍵(1910~?)이 있다. 『인도지나동란사십년사』와 비슷한 시기에 등장한 김영건의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東京: 富山房, 1943)는 일본과 베트남의 관계뿐만 아니라 베트남과 조선의 교류 성과에 대해서도 국내외에 소개하기 시작했다. 京城(현재의 서울) 출신의 김영건은 朝鮮總督府의 관리였던 부친 金定鉉(1868~?)을 따라 유소년 시절을 주로 黃海道 지역에서 보냈다. 그러다가 1923년 부친의 경성 전근으로 海州高等普通學校에서 京城第二高等普通學校(현재의 慶福高等學校)로 전학해 1927년에 졸업했다. 이후 김영건은 上海와 南京 등지에서 수년간 佛文學을 전공하고 경성 駐在 프랑스 總領事館에서 근무하다가, 領事館의 주선으로 1931년 4월 고국을 떠나 神戶를 거쳐 새로운 부임지 인도차이나로 향했다. 원래 좌익 사상에 영향을 받았던 문학청년 김영건은 1931년부터 1940년까지 하노이의 프랑스 원동학원(École Française d'Extrême-Orient)의 보조 사서, 일본도서관 주임 등을 역임하면서 ‘베트남학’에 점차 친숙해졌다.

김영건은 EFEO의 원장 쾨데스(George Cœdès, 1886~1969), 뮈스(Paul Mus, 1902~1969) 등의 지원을 받았고, 쩌 반 잡(Trần Văn Giáp, 1898~1973), 레 즈(Lê Du, 1885~1957) 등과 같은 현지의 학자들과도 교류했다. 그의 베트남사 연구는 1932년 중반부터 각종 학회지나 언론을 통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일본의 동남아 연구자들인 松本信廣, 杉本直治郎, 山本達郎, 古野清人 등의 도움으로 『民族學研究』(日本民族學會), 『歷史學研究』(歷史學研究會), 『史學研究』(廣島文理科學大學內 廣島史學研究會), 『史學』(慶應義塾大學文學部內 三田史學會) 등에 연구 성과들을 발표할 수 있었다. 아울러 『동아일보』나 『조선일보』와 같은 국내 언론 기관을 통해 베트남에 대한 각종 정보가 국내 독자들에게도 소개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등장한 『印度支那と日本との關係』는 그간의 개별적인 연구 성과를 집대성하는 동시에 베트남 · 일본 관계나 暹羅의 역사 혹은 베트남사 자체에 대한 다양한 내용들을 보완했으며, 특히 베트남 · 한국 교류사에 대한 새로운 내용이 첨가되었다. 김영건은 1936년 여름 황해도 甕津을 방문해서 들

은 전설과 『花山君家寶』, 『花山李氏世譜』, 『花山君本傳』, 『甕津府邑誌』 등과 같은 각종 자료를 활용해 리(Lý) 왕조(李朝, 1009~1225)의皇子 리 룡 뜨영(Lý Long Tường, 李龍祥)에 대한 전설을 ‘李龍祥의 事蹟’으로 역사화시키는 데 공헌했다. 1921~1922년 당시 옹진군 군수의 차남이었던 소년 김영건의 체험과 기억이 자신의 본격적인 한국과 베트남의 관계사 연구를 통해 되살아난 것이었다.

김영건은 10년 동안 현지를 체험하면서 베트남의 역사와 문화에 점점 친숙해졌고, 다방면에 걸친 ‘베트남학’을 선도할 수 있었다. 1930년대부터 해방 직전까지 왕성한 연구 성과물을 세상에 내놓았던 김영건의 학문 역정은 1945년 해방을 전후해 현실적인 굴곡과 굴절을 겪으면서 ‘南海史’ 연구와 같은 ‘동남아학’ 개척이라는 임무를 미완의 상태로 남겨두게 되었다.

3. 맺음말-1960년대~현재

1960년대 이후 동남아에 대한 국내 학자들의 연구는 주로 베트남전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그리고 1970년대부터 동남아사를 전공하는 전문 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劉仁善, 宋寅瑞 등과 같은 高麗大 金俊燁 전 총장의 제자들이다. 유인선은 미국 미시간 대학에서 동남아시아 역사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전통시대 베트남사가 전공이었다. 태국 쭈라롱콘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宋寅瑞는 태국 근대사를 연구했다. 그래서 1980년대까지 동남아사 연구는 거의 베트남과 태국에 집중되어 있었다. 1990년대에 태국 이외에도, 말레이시아 전공자가 등장했고, 2000년대에 인도네시아사와 태국사 전공자가 추가되었다. 연구자의 인원은 조금씩 늘어났지만, 전공 대상국이 1970년대 말~1980년대의 베트남, 태국에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가 추가되었을 뿐이다.³

더군다나 동남아사 전공 학자들이 모두 외국에서 공부했다는 사실도 주목할 만하다. 연구자의 교육 배경은 국가별로 미국(유인선, 蘇秉國[말레이시아사], 呂運京[인도네시아사], 玄詩柰[태국사]), 태국(송인서), 독일(趙興國[태국사]), 호주(崔秉旭[베트남사]), 영국(盧英順[베트남사]), 프랑스(尹大榮[베트남사]) 등인데, 일반적으로 동남아시아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교육 배경과 학문적 방법론이 교류되면서 연구 주제도 다양하게 발전되었고, 세계 학계에 이들의 연구도 꾸준히 소개되었다.

제1세대는 그렇다고 해도, 이 세대가 활동하기 시작한 지 50년이 되어가는 마당에도 아직 국내 박사가 등장하지 않았다는 현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1970년대 말에 전국 대학의 사학과와 역사교육과에 동남아사 전공 교수가 2명 있었다면, 2007년 당시에는 1명, 그리고 2023년 2월에 남은 한 명도 은퇴하여 현재는 아무도 없다. 서울대 동양사학과에는 외국인 교수가 한 명 있다고 抗辯하는 경우도 있지만, 후속 연구자를 전혀 양성하지 못하고 있다. 주로

3 최병욱은 2011년 3월 당시에 한국 역사학계에서 동남아사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0.1% 이하라고 추정했다. 지금의 상황은 더욱 열악해졌을 가능성이 높다.

한국사, 중국사, 일본사 연구 중심의 한국 대학 사회는 동남아시아에 관심이 없음을 알 수 있다. 베트남전 당시 仁川 龍現洞 독정이 고개의 黃海道 피난민 동네에서 기원한 베트남사 연구는 같은 동네의 仁荷大에서 『월남망국사』가 아니라 ‘베트남사 연구의 종말’을 선포하고 말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20세기 말부터 현재까지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자는 한국사를 어떻게 주목하며 자국의 역사와 대화를 이어 나가고자 했을까? 김영건의 ‘朝鮮學’은 유인선의 12-13세기 고려에 정착한 리 왕조의 후손 연구에 영향을 주었던 것 같다. 그리고 조흥국은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사』(2009)를 통해 삼국-신라 시대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교류, 고려 시대의 한국-베트남 교류, 14세기 말 한국과 태국의 교류, 14세기 말-15세기 초 한국과 인도네시아 자와 섬의 접촉, 16세기 말 임진왜란 당시 태국의 참전 제안과 실용주의 외교, 15-19세기 한국과 베트남의 접촉과 교류 등을 다루었다. 19세기 전반 베트남 남부 전공자 최병욱은 1597-1598년 당시 李睟光이 바라보던 베트남(2009)과 19세기 전반 베트남의 고려인삼(2012)을 연구했다.⁴

그리고 학부와 석사 과정에서 중국사와 일본사 중심의 역사 교육을 받은 윤대영은 박사논문 “Les Idées et Les Mouvements Réformistes en Corée et au Viêt Nam, 1897-1911” (1897-1911년, 한국과 베트남의 개혁사상과 개혁운동)으로 한 · 베 · 중 · 일을 아우르는 지역사와 한 · 베 비교사의 관점으로 베트남 ‘근대’의 사회지성사에 대해 ‘新書’ 현상을 통해 검토했다. 이후에도 윤대영의 연구는 근대 개항장 인천과 하이퐁(2010), 1950년대 전반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2013), 1862-1945년 당시의 한-베 관계사(2013), 베트남의 식민화와 한국(2014), 1975년 남베트남 패망 이후의 한-베 관계(2015), 김영건의 베트남 연구(2016), 1910년대 한인 청년들과 南洋(2018), 베트남전쟁 당시 인천의 市政(2021), 프랑스령 인도차이나의 한인들(2022) 등으로 이어졌다.⁵ 현재는 전통시대 베트남의 불교사 연구가 지역사적, 비교사적 관점에서 진행 중이고, 향후에도 이러한 연구 관점은 1920년대 소련의 베트남 청년과 한인 연구, 1954~1965년 남베트남의 한인 연구 등을 통해 계속될 예정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8세기에 기원한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19~20세기를 거치며 새롭게 태어났다. 식민지 시기를 지나며 각국, 특히 베트남의 상황은 독립을 바라던 한국인들에게 커다란 관심사였고, 동시에 보다 아카데미한 김영건의 연구도 출현했다. 베트남전으로 한국 사회는 동남아시아 연구의 필요성을 자각하게 되었고, 이후에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역사 연구가

4 「이수광의 베트남, 1597-1598」, 『동남아시아연구』, Vol. 19, No. 3; 「Korean Ginseng (nhân sâm Cao Ly) in Vietnam during the First Half of the 19th century」, 『동남아시아연구』, Vol. 22, No. 3.

5 「마주보는 두 역사, 인천과 하이퐁」, 인천문화재단; 「1950년대 북한과 북베트남의 관계와 문화 교류 - 1956년 조선 문화 대표단의 활동과 관련하여 -」, 『역사와 경계』, 87; 3인 공저, 『1862~1945, 한국과 베트남의 조우 - 교류, 소통, 협력의 중층적 면모 -』, 서울: 이매진; “The Loss of Vietnam: Korean View of Vietnam in the Late Nineteenth and Early Twentieth Centuries,” Journal of Vietnamese Studies, Vol. 9, Issue 1; “Korea-Vietnam Relations: From Enemy to Comrade,” ASEAN-Korea Relations: Twenty-five Years of Partnership and Friendship, Seoul; “Between Korea and Vietnam: Kim Yung Kun’s “Ever-Changing and Impermanent” Life,” Journal of Asian History, 50/2;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Young Korean Men and Nanyang in the 1910s,” Universitas: Monthly Re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 No. 526 (Vol. 45, No. 3); 「베트남전쟁과 인천의 시정 - '파월 장병 및 가족 돌기 운동'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1(35); 「20세기 전반 한인들의 프랑스령 인도차이나 이주: 어느 전씨(田氏) 일가의 사례를 중심으로」, 『아시아리뷰』, Vol. 12, No. 3.

천천히, 조금씩 등장했다. 아울러, 한-동남아 관계사, 비교사가 주로 베트남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자국사를 통해 동남아사를 서술하려는 노력은 현재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사 연구를 성찰하며 ‘돌보는’ 데에도 유용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동남아사 연구자들도 자국사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길 바란다.

제 2 세션

발표 4



화교 문제와 외교 —1959년 인도네시아 화인 탄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

가오 옌제

샤먼대

[원문은 중국어, 번역: 김단실]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인도네시아에서 불거진 중국계 주민에 대한 탄압은 화교와 화인(華人) 역사 연구에서 부각되는 큰 이슈이자 중국과 인도네시아 관계사에서의 중대 사건이었다. 이 사태는 200만 명을 웃도는 인도네시아 화교와 중국계 주민(이하 ‘인니 화인’ 이라고 통칭함)들의 운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고, 중화인민공화국 역사상 최초의 대규모 화교 송환 작전을 촉발하였다. 사태가 터지기 전만해도 중국-인도네시아 관계는 소원한 상태에서 정상화되는 복잡한 과정을 통해 1956년 수카르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이 양국 친선 관계를 새로운 차원으로 끌어올렸었다. 그런데 1959년에 불거진 인니 화인에 대한 탄압으로 인해 꾸준히 진전되던 양국 관계는 돌연 친선 궤도에서 이탈했다. 인니 화인 탄압 사태는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이 국가 수립 목표와 내부 정치적 균형을 고민한 결과였는데 이 시기에 중국 정부는 국내 경제난, 주변 외교 환경의 악화에 따른 외교 노선 조정 압력에 더해 대만 당국과 ‘화교 민심’ 쟁탈전을 벌이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러한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중-인니 양국의 화인 탄압 대응 조치를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고 외교적 선택의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1959년 인도네시아 화인 탄압 문제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이미 다양한 선행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논문은 기밀 해제된 정부 공문서와 기타 자료를 중심으로 다음과 같은 과제에 방점을 두고 탐구하였다. 첫째, 화인 탄압 사태에 대응하는 중국정부의 정책 고민 및 화교 정책의 자리매김, 둘째, 외교와 화교 보호의 우선순위를 가늠하는 중국정부의 논리, 셋째, 화인 탄압 사태 속에서 중-인니 관계가 충돌하면서도 파국에 이르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1.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 사태와 이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

인도네시아에서는 식민지 시대부터 화인을 적대시하는 현상이 존재하였는데 그 본질을 들여다보면 중국계 주민과 원주민 간 융합 문제였다.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1959년 5월, 인도네시아 상업부 장관 라하마트 물조 미세노(Rachamat Muljomiseno)는 M--제2933호 결정을 반포하여 각 현(縣=군), 주(州), 성(省=道) 및 시(市)의 행정부 소재지 이외 지역에서 외국인이 경영하는 상점과 소매점에 1959년 12월 31일까지 폐업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1959년 11월 18일, 수카르노 대통령은 이 법령을 대통령이 승인한 전국 법령으로 격상시키고 재결권을 지역 군사 장관들에게 부여하였다. 이후 인도네시아 정부와 군대가 화인의 강제 이주와 중국계 소매업 접수를 강행하였고 곳곳에서 화인에 대한 구금 추방 등 불법 행위가 자행되었다. 인도네시아 국내의 화인에 대한 이러한 차별책은 드디어 대대적인 화인 탄압 사태로 번져갔다.

중국 정부는 대체적으로 9월 들어 비로소 이에 항의하고 대항 조치를 취하기 시작하였는데 가급적 신중한 자세를 취했다. 1959년 9월초, 중국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항의 서한을 보냈다. 서한의 주요 내용은 화인에 대한 인도네시아 정부의 부당한 조치에 항의하고 이러한 조치가 중-인니 간 우호 관계를 훼손함을 지적하면서 양국간 협상을 통해 중국계 상공인과 화교들의 합법적 거주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었다.¹ 이 서한은 외교 채널을 통해 전달되었는데 중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화교 지도자들에게만 서한 내용을 통보하였다. 이 외에도 중국 외교부는 주인도네시아 대사관 직원들에게 인도네시아 정부가 중국의 항의를 무시하고 구태의연할 경우, 신뢰할 만한 좌파 화교 지도자를 통해 “소리소문 내지 않고 주요 대상을 정해 분산적 및 연쇄적으로 각 종 태만 영업을 벌이도록 화교 상공계를 책동하라”고 지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치는 극히 단기간 실시할 것, “최대 이 삼일” 이내에 마칠 것, 아울러 유혈 사태를 회피할 것, 화교와 인도네시아 국민 간 대립을 조성하지 말 것을 요구하였다.²

이와 동시에, 중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측에 양자 협상을 제안하여 문제를 신속히 해결하려 하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에 긍정적으로 반응하여 외교장관 수반드리요가 베이징을 방문해 저우언라이(周恩來), 천이(陳毅) 등 중국 지도자들과 직접 협상한 후 1959년 10월 11일에 중-인니 ‘공동 성명’을 발표하였다. 총 8개 항목으로 구성된 ‘공동 성명’은 주로 반동 회의 원칙, 민족 독립, 세계 긴장 완화 및 중-인니 양국 간 친선과 협력 비전을 부각시켰는데 화인 탄압과 관련된 내용은 교묘하게 마지막 항목에 배치되었다. 공동 성명은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적절한 방법을 도출해 냄으로써 인도네시아 경제 발전을 추진함과 동시에 화인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이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양국 외무장관의 견해를 밝혔다.³

수반드리요의 긴급 방중 협상 및 ‘공동 성명’ 출범은 중-인니 양측 모두 양국 간 우호 관계가 손상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협상은 양국 간의 갈등을 더욱 격화시켰으며, 성명문 내용은 실제로

1 《대사관이 소상공인 문제에 관해 기자에게 정보를 발표한 사건 보고报使馆就小商贩问题向记者发表消息事》, 1959년 9월 23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392-04(1).

2 주도모(周陶沫), 《화교 문제의 정치 소용돌이: 1959-1962년 중국의 인도네시아 정책 분석华侨问题的政治漩涡: 解析 1959-1962年中国对印度尼西亚政策》, 155-174쪽

3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장 천이와 인도네시아 공화국 외교부장 수반드리요의 공동 성명中华人民共和国外交部长陈毅和印度尼西亚共和国外交部长苏班德里约联合公报》,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国务院公报》 1959년 제24호, 463-464쪽

존재한 의견 차이를 제대로 담아내지 못하였다. 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중국 정부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화인 차별 법령 집행 정지를 요구하면서 인도네시아 항구 무역에 대한 제재 조치를 내비쳐 압박을 가했다. 귀국한 후 수반드리요의 반응을 보면 그는 화인 문제에 대응하는 중국의 방식에 불만이 컸다. 수반드리요는 중국인의 태도가 오만 무례하며 거칠었고 중국이 경제 관련 사무와 여타 수단으로 인도네시아를 위협했다고 비난했다. 수반드리요가 방중하여 협상을 진행한 후 화인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탄압은 누그러든 것이 아니라 날로 심각해졌다. 인도네시아 사회의 정서는 화인 배척에서 더 나아가 중국에 대한 거부, 즉 반화(反華)로까지 확대되었다.

2. 화인 탄압 문제를 둘러싼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다툼과 ‘외교장관 논쟁’

중국 정부는 처음에는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에 대해 관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제10호 대통령령이 발표된 후 중국 정부의 인식에 변화가 생기고, 화인 문제를 둘러싸고 양국 간의 갈등이 공개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1959년 12월 중순부터 《인민일보》 기사의 용어가 종전의 “화인 탄압 운동”, “화인 문제”에서 “반중국(反華) 화인 배척(排華) 운동”으로 바뀌었다.⁴ 12월 9일, 천이 외교부장이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수반드리요에게 서한을 보내 화인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조치를 제안하였고 서한의 내용은 《인민일보》를 통해 공개되었다. 천이는 서한에서 중-인니 양측이 화인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소통해 온 과정과 양국간 우호 관계를 수호하려는 중국 측의 기본 원칙을 설명한 후, 인도네시아의 상업 금지령은 “화인을 타깃으로 타격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또한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신문들이 중국과 마오쩌둥을 비방하는 발언을 퍼뜨리는 행위를 부추기고 있음을 묵시적으로 지탄했다. 천이는 양국 정부는 즉각 조치를 취해 화인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중-인도네시아 우호 관계를 수호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이중 국적 조약 교환, 화인의 권익 보호 및 국내 송환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을 제시했다.⁵

대항 조치 출범부터 천이의 공개 서한 발표에 이르기까지 중국 정부의 일련의 강경 대책은 무력으로 화인들에게 이주를 강제한 인도네시아 군부에 대한 직접적 대응이기도 했지만 그 이면에는 중국 외교 노선의 전환과 민족주의 국가와의 관계 정립 전략에 대한 조정이 있었다. 1959년 루산 회의 이후, 중국 공산당 내부에서 펑더화이(彭德怀)와 장원텐(张闻天)의 사상에 대한 비판이 진행되면

4 《우파 신문의 화인 배척 문제를 이용한 반공 선동을 규탄한다谴责右派报纸利用排华问题煽动反共》, 《인민일보》 1959년 12월 3일.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 사태를 우려한다对印度尼西亚的排华运动表示忧虑》, 《인민일보》 1959년 11월 25일. 《대규모 반중 화인 탄압에 대한 엄중 항의 및 화교 문제의 포괄적 해결을 위한 세 가지 제안严重抗议大规模的反华排华活动 提出三点建议全面解决华侨问题》, 《인민일보》 1959년 12월 12일.

5 《외교부장 천이의 대규모 반중국 화인탄압 활동에 대한 엄중한 항의와 화인문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세 가지 제안--인도네시아 공화국 외교부장 수반드리요에게 보내는 서한外交部部长陈毅关于严重抗议印度尼西亚大规模的反华排华活动并提出全面解决华侨问题的三点建议给印度尼西亚共和国外交部长苏班德里约的信》,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公报》 1959년 제29호, 560-563쪽.

서 1954년 이래 추진돼 온 ‘평화 공존’ 외교 노선이 흔들리기 시작했다.⁶ 1959년에는 인도네시아, 인도, 미얀마 등 민족주의 국가들에서 너무나 많이 이러저러한 화인 배척 활동이 벌어졌는데, 이들은 중국 지도자들이 한때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니 세계 평화 실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겼던 나라들이었다.⁷ 국내외 정세의 변화에 직면한 중국 정부는 민족주의 국가에 대한 정책을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마오쩌둥은 티베트 문제를 언급하며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화두를 내놓았다. 이어서 아시아, 아프리카와 라틴 아메리카에 “귀신” 무리가 있는데 이들은 제국주의의 앞잡이이자 반동파라고 지적했다.⁸ 구체적인 전략에 있어서 중국 정부는 사실상 “투쟁을 통해 단결을 도모”하는 노선을 채택했다. 천이는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 문제를 언급할 때 “민족주의 국가들은 결국 자본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들에 대한 정책은 한편으로 연대하고 한편으로는 투쟁해야 한다. 필요한 반격을 통해서만 단결을 이룰 수 있으며, 타협으로는 단결을 이룰 수 없다”고 말했다.⁹

외교 노선의 조정 외에, 중국 지도자들의 외교적 자존심이 상처를 입은 것도 인도네시아에 강경한 자세를 취한 중요한 이유였다. 인도네시아에서 화인 탄압이 격화된 후 천이는 “인도가 우리를 괴롭히더니 인도네시아도 괴롭히려 달려드는 것은 중국이 약골이기 때문이다”, “중국이라는 아이는 너무 만만해서 이쪽에서 한 대, 저쪽에서 한 대씩 얻어 터지고 있는데 우리라고 무조건 맞고 있을 수는 없으니 때로는 몇 대 되돌려줘야 한다”, “비우호적인 활동들, 반동적인 선전을 우리는 참아왔다. 그러나 그들이 우리를 3개월 괴롭혔으면 우리도 3일 정도는 반격해야 한다”고 말했다.¹⁰ 같은 시기에 캄보디아와 이집트도 중국에 비우호적인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고 이러한 압력 하에 중국은 국제 사회가 중국 정부를 얹잡아보지 못하도록 결연하게 강경 대응에 나섰다. 미국 학자 안토니 C.A. 데이크는 중-소 결렬, 중-인 국경 충돌 등의 요인으로 말미암아 중국이 인도네시아에 대해 유화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주장했다.¹¹ 그러나 이러한 분석은 중국측 자료가 보여주는 상황과는 상반된다. 중국정부의 관련 반응과 선전 활동을 살펴보면 중소 결렬 등의 요인이 초기에 중국에 미친 영향은 지도자들의 자존심을 자극하여 양보나 타협이 아니라 단호한 반격 조치를 취하게 만든 것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천이의 12월 9일 공개 서한은 중국의 외교 전략 조정이 인도네시아 문제에 집약적으로 반영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곧 이어 중-인니 외교 장관 간

6 뉴진牛軍, 《냉전 시대 중국의 전략적 의사결정 冷战时代的中国战略决策》, 세계 지식 출판사, 2019년, 320쪽

7 《마오쩌둥외교문선毛澤東外交文選》, 중앙 문헌 출판사, 1994년, 336-337쪽

8 《마오쩌둥외교문선毛澤東外交文選》, 중앙 문헌 출판사, 1994년, 374-375쪽

9 《천이 부총리와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북한, 몽골, 루마니아, 헝가리 주중 대사들과의 회담 기록 (인도네시아 화교 문제에 관한 담화) 陈毅副总理接见兄弟国家(苏联、保加利亚、阿尔巴尼亚、波兰、捷克、德国、朝鲜、蒙古、罗马尼亚和匈牙利)驻华使节谈话记录》, 1959년 12월 25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416-01

10 《천이 부총리와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북한, 몽골, 루마니아, 헝가리 주중 대사들과의 회담 기록 (인도네시아 화교 문제에 관한 담화) 陈毅副总理接见兄弟国家(苏联、保加利亚、阿尔巴尼亚、波兰、捷克、德国、朝鲜、蒙古、罗马尼亚和匈牙利)驻华使节谈话记录》, 1959년 12월 25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416-01

11 Antonie C.A. Dake, *In the Spirit of the Red Banteng: Indonesian Communists Between Moscow and Peking*, 1959-1965, Mouton, 1973, pp.53-55.

의 ‘공개 논쟁’이 시작되었다. 수반드리요는 천이의 서한을 받고나서 이를 후, “1959년 12월 9일 천이 선생의 서한에 대한 수반드리요의 답신”이라는 제목의 서한을 발표하였고, 천이의 원문을 첨부하여 인도네시아 정보부를 통해 공개적으로 배포했다. 수반드리요의 답신은 “선례후병(예의를 갖추고나서 공격하는)” 식으로 먼저 방중 기간 자신과 중국 지도자들과의 우호적인 교류와 공감대를 서술한 후, ‘공동 성명’의 이면에 숨겨진 “인니 화인의 역할”을 둘러싼 양국 간 입장 차이로 말문을 돌렸다. 수반드리요는 중국 대사관 직원들이 인니 화인들로 하여금 법령에 저항하도록 선동한 행위를 강력히 비난하면서 이것은 인도네시아 내정에 대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¹² 수반드리요의 비난에 대한 응답으로 천이는 12월 24일 중국 정부를 대신하여 두 번째 서한을 보냈다. 천이는 서한에서 수반드리요의 모든 비난을 조목조목 반박했다.¹³

중-인니 외교 장관 간의 ‘공개 논쟁’으로 말미암아 중국 정부의 화교 정책은 국제 사회의 초미의 관심사가 되었다. 세계 여러 나라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에 수많은 화교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에 대처하는 중국의 방식은 다른 유사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대응책 및 화교가 거주하는 국가와의 관계의 기준으로 간주되었다. 천이는 인도네시아에 공개 회신을 보낸 이튿날 중난하이(中南海)에서 소련, 불가리아, 몽골 등 8개국 주중 대사를 접견하여 회답 서한의 내용을 각국 정부에 전달하도록 함으로써 중국의 화교 정책과 외교 노선,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에 대한 처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 회동이 진행되는 동안 천이는 화교 문제 처리에 대한 중국의 세 가지 원칙을 명확히 설명했다. 첫째, 중국 정부는 화교가 거주국의 국적을 취득하여 현지 국민이 되기를 권장한다. 둘째, 중국 국적을 유지하기를 원하는 화교에 대해서는 현지 법률을 준수하면서 합법적인 상업 활동을 영위하도록 요구한다. 중국 정부는 이미 자발적으로 화교들의 당 조직을 해산시켰고 타국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셋째, 거주국 국적 취득을 원치 않으며 현지에서 생계를 꾸릴 수 없을 경우, 중국 정부는 개인의 자발적인 의사를 전제로 국내 철거를 허용한다. 천이는 이 세가지 원칙이 중국과 수교하지 않은 국가와 일부 특정 국가를 제외하고는 보편적으로 적용된다고 강조했다.¹⁴ 인니 화인에 관해 천이는 중국 정부가 화인 탄압 사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는 주장을 반박한 후 화교 국내 송환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또한 인니 화인들이 현재 생계를 유지할 방도가 없고 재산을 몰수당할 수도 있는 매우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화인의 정당한 이익을 반드시 지켜드릴 것이며 결코 양보하지 않을 것”이라고 천이는 강조

12 “Dr. Subandrio “s Reply to Mr. Chen Yi “s Letter of December 9, 1959”, *Special Release on Current Indonesian Affairs*(Nr. 81/1959), Department of Information Republic of Indonesia, 1959, p. 16.

13 《중국과 인도네시아 두 정부가 즉시 협의하여 화교 문제를 포괄적으로 해결할 것을 제안하는 외교부장 천이의 서한 - 인도네시아 공화국 외무장관 수반드리요에게 보낸 서한서한外交部部长陈毅关于建议中国和印度尼西亚两国政府立即会谈全面解决华侨问题复印度尼西亚共和国外交部部长苏班德里约的信》,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공보》1959년 제30호, 567-570쪽.

14 《천이 부총리와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북한, 몽골, 루마니아, 헝가리 주중 대사들과의 회담 기록 (인도네시아 화교 문제에 대한 담론) 陈毅副总理接见兄弟国家(苏联、保加利亚、阿尔巴尼亚、波兰、捷克、德国、朝鲜、蒙古、罗马尼亚和匈牙利)驻华使节谈话记录》, 1959년 12월 25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416-01.

했다.¹⁵

중국 정부는 두 차례의 공개 서한과 공식 성명을 통해 국제 사회를 향해 반드시 화교를 보호할 것이라는 단호한 입장을 밝히고 신속히 화교 국내 송환 행동에 돌입했다. 1960년 2월 5일 화교 송환 작업이 시작됐다. 중국 정부는 ‘미상미호(美上美號)’, ‘대보강호(大寶康號)’, ‘해황호(海皇號)’ 등 선박을 순차적으로 인도네시아에 파견하여 화교들을 귀국시켰다.¹⁶ 이로써 신중국 역사상 최초의 해외 화교 대규모 송환 및 국내 정착 사업의 서막이 열렸다.

3. 중-인니 공통의 국익과 화교 탄압 사태의 종결

화교 보호 및 국내 송환을 추진한 후, 중국은 ‘엄정대응’ 과 ‘연대’ 의 균형을 맞추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중국 지도부는 인도네시아와의 단절을 원하지 않았고, ‘교화’ 와 ‘엄정대응’ 의 목적은 여전히 ‘연대’ 를 위한 것이었다. 천이에 따르면, 중국의 반격은 “주로 인민을 교육하고 중국 인민에게 세계 제국주의의 존재를 알리고 ... 동시에 인도네시아 인민과 아프리카, 아시아의 무수한 인민을 교화하기 위한 것” 이었다.¹⁷ 중국이 중-소 관계 파탄과 중-인도 국경 충돌에 자극받아 인도네시아에 반격을 가한 적도 있지만, 중국 정부는 1959년 이후 직면한 국내의 어려움과 외교적 수세를 차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다. 중-인니 간에 전략적 이익 충돌은 없었고 인도네시아는 중국 정부가 우방으로 삼을 수 있다고 확신하는 민족주의 국가로서, 제3세계 반식민지 운동의 중요한 세력이었다.

이러한 이유로 중국 정부는 한편으로는 강력한 화교 보호와 국내 송환 작업을 공개적으로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의 직접적 응수와 정에서 양국 관계 완화를 위한 여지를 남겼다. 천이는 일찍이 1959년 12월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에게 첫 번째 강경 모드의 서한을 전달할 때 “이 서한은 전

15 《천이 부총리와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북한, 몽골, 루마니아, 헝가리 주중 대사들과의 회담 기록 (인도네시아 화교 문제에 대한 담론)》

陈毅副总理接见兄弟国家(苏联、保加利亚、阿尔巴尼亚、波兰、捷克、德国、朝鲜、蒙古、罗马尼亚和匈牙利)驻华使节谈话记录, 1959년 12월 25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416-01.

16 《우리 역사상 최초의 쾌거: 선박 4척이 출항을 준비중 화교를 본국으로 송환 예정我国历史上的创举 四艘船只升火待发来椰接运游子归国》, 《생활보》 1960년 2월 6일자 ; 《四艘接运华侨轮船离开黄埔前来印尼》, 《生活报》 1960년 2월 8일 ; 《第二批接侨船前天启程南来》, 《生活报》 1960년 2월 20일. “ ”, 1960년 2월 8일자 “4 척의 화교 송환 선이 항포를 출항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하다” , 1960년 2월 20일자 “두 번째 화교 철수 선박이 이를 전 남하”

17 《천이 부총리와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북한, 몽골, 루마니아, 헝가리 주중 대사들과의 회담 기록 (인도네시아 화교보, 파일번호: 105-00416-01.

《우리 역사상 최초의 쾌거: 선박 4척이 출항을 준비중 화교를 본국으로 송환 예정我国历史上的创举 四艘船只升火待发来椰接运游子归国》, 《생활보》 1960년 2월 6일자 ; 《4 척의 화교 송환 선이 항포를 출항하여 인도네시아로 향하다四艘接运华侨轮船离开黄埔前来印尼》, 《생활보》 1960년 2월 8일자 ; 《두 번째 화교 송환 선박단이 이를 전 출항하여 남하第二批接侨船前天启程南来》, 《生活报》 1960년 2월 20일. “ ”, 1960년 2월 20일자

《천이 부총리와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문제에 대한 논의)陈毅副总理接见兄弟国家(苏联、保加利亚、阿尔巴尼亚、波兰、捷克、德国、朝鲜、蒙古、罗马尼亚和匈牙利)驻华使节谈话记录》, 1959년 12월 25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416-01.

적으로 우리 두 나라의 오래된 친선 정신에 기반한 것” 이라고 밝혔다.¹⁸ 아울러 천이는 서한 내용을 공개할 것임을 미리 고지하면서 이는 국내 민심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천이는 또한 화상(중국계상공인) 문제는 인도네시아의 내정 문제이며, 인도네시아에 대한 중국의 우호 정책은 변치 않았다고 강조했다.¹⁹ 두 번째 서한을 전달할 때, 천이는 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우리는 그래도 친선의 길로 회귀해야 한다” 고 재차 언급했다.²⁰ 1960년 2월부터 중국 관영 매체의 선전도 차분해지기 시작했고 언론과 방송 기사들은 더욱 온화한 보도를 진행했다.²¹

중국은 공식 회답에서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했을 뿐만 아니라, 중-인니 우호 관계 복원을 위해 세 가지 주요 조치를 취했다. 첫째, ‘이중 국적 조약’ 교환 작업을 가속화했다. 1959년 12월, 천이는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 수가조에게 ‘이중 국적 조약’ 의 상호 승인 날짜를 인도네시아가 정해도 좋다고 밝혔다.²² 둘째, 외교 및 원조 측면에서 인도네시아에 대한 지원을 이어갔다. 1959년 11월, 중국 정부와 인도네시아는 공동 성명을 통해 상대국의 국가 통일 사업을 상호 지원할 것임을 표명했다.²³ 1960년 3월, 중국은 인도네시아에 수출 예정이었던 약 2,000만 달러 상당의 군사 장비를 무상 지원으로 전환했다.²⁴ 셋째, 중국 정부는 인도네시아의 우익 세력과 제국주의를 타깃으로 간주하며 수카르노 정부를 공격 대상으로 삼는 일은 교묘하게 피했다. 중국 정부의 전략은 인도네시아의 다양한 정치 세력을 차별화하여 상대하며 수카르노 본인과 그의 내각에 대해서는 여지를 남기도록 하는 것이었다.²⁵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런 자제하는 자세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긍정적인 반응을 즉각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했고 양측은 화교 송환 문제에서 계속해서 마찰을 빚었다. 1960년 7월의 ‘치마시 사건’ 이후에야 중-인니 관계는 비로소 뚜렷한 완화 조짐을 보였다. ‘치마시 사건’ 발생 후, 중국 주인도네시아 대사관은 즉각 항의하고, 인도네시아 측에 “가해자 처벌, 보상, 사과, 강제 이주 중단” 을 요구했다.²⁶ 이와 동시에 중국은 밀도 높은 선전 공세를 벌여 인도주의적 시각에서

18 《천이 부총리와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 수가조 위조프라노토의 회담 기록陈毅副总理借鉴印尼驻华大使苏加佐·维约普拉诺托谈话记录》, 1959년 12월 9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389-03.

19 《천이 부총리와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 수가조 위조프라노토의 회담 기록陈毅副总理借鉴印尼驻华大使苏加佐·维约普拉诺托谈话记录》, 1959년 12월 9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389-03

20 《천이 부총리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회신을 전달하면서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 수가조 위조프라노토와 나눈 담화 기록陈毅副总理接见印度尼西亚大使苏加诺递交致印尼外长的复信并与他的谈话记录》, 1959년 12월 24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391-03(1)

21 “Indonesia-Red China Dispute Oversea Chinese in Indonesia”, February 23, 1960, Entry-P311, Box10, Folder: Indonesia (1958-1965), RG 306, National Archives, College Park, MD.

22 《천이 부총리가 인도네시아 외무장관에게 보내는 공개 회신을 전달하면서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 수가조 위조프라노토와 나눈 담화 기록陈毅副总理接见印度尼西亚大使苏加诺递交致印尼外长的复信并与他的谈话记录》, 1959년 12월 24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391-03(1)

23 《천이 외교부장관 수반드리요 외교부장의 공동 성명陈毅外长、苏班德里约外长联合公报》, 《인민일보》 1959년 10월 12일

24 왕타이핑王泰平 주편: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사中华人民共和国外交史》(제2권), 세계지식출판사, 1998년판, 58쪽

25 《천이 부총리 소련, 불가리아, 알바니아, 폴란드, 체코, 독일, 북한, 몽골, 루마니아, 헝가리 주중 대사들과의 회담 기록(인도네시아 화교 문제에 대한 논의)谈话记录(谈印度尼西亚华侨问题)》, 1959년 12월 25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416-01, 1959년 12월 25일

26 《치마시에서 화교 여성 2명 피살, 항진 대사가 어제 외교부 장관에게 강력 항의, 가해자 처벌, 보상, 사과, 강제 이주 중단 등을 요구 就芝马圩两华侨妇女被枪杀事黄镇大使昨往外交部向外长提出严重抗议 并提出惩凶赔偿道歉停止迫害等要求》, 《생활보》 1960년 7월 5일.

인도네시아의 반중국 세력에 압박을 가했다. 1960년 7월 6일 이후, 중국 《인민일보》는 ‘치마시 사건’을 다룬 기사 20여 편을 속속 지면에 게재했다. 중국의 선전 공세는 인도네시아 정부에 압력으로 다가갔고 이 사건은 결국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 사태의 변곡점이 되었다. 수카르노가 직접 개입하여 사태를 완화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점이 그 두드러진 징표라고 할 수 있었다. 수카르노는 1960년 7월 5일 외교장관과 국가안보부 장관으로부터 ‘치마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²⁷ 인도네시아 정부가 ‘치마시 사건’ 희생자 가족에게 귀국 비용을 보상하겠다고 약속한 후, 천이는 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이에 만족을 표하고 더 이상 사건의 디테일에 관해 다루지 않겠다고 밝혔다.²⁸ 1960년 중반 들어 중국 정부는 ‘부분 송환 대량 잔류’라는 화교 송환 방침을 세웠다. 이는 중-인니 관계 완화에 도움이 될뿐만 아니라 송환 작업에 따른 재정 부담 저감으로 이어지는 것이었다.²⁹

중국 지도부가 보낸 우호적인 신호는 인도네시아 정부의 긍정적인 호응으로 돌아왔다. 8월 18일, 수카르노는 중국 주인도네시아 대사에게 저우언라이의 연설에 대한 감사를 전하며 “우리가 네덜란드와 단교할 수 있었던 것은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를 지지할 것임을 사전에 예상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는데, 인도네시아의 여타 정치 지도자들도 이 견해에 공감했다.³⁰ 이후 수카르노는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위해 인사 조정에 들어갔다. 그는 수카르니 카르토디위르조(Sukarni Kartodiwirjo)를 신임 인도네시아 주중 대사로 임명했다. 8월 22일, 수카르노는 신임 대사의 취임식에서 “화교 문제로 인한 작은 어려움이 중국과 가장 긴밀한 관계를 맺고자 하는 우리의 입장을 흔드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선언했다.³¹ 일련의 공개적인 화해 발언과 외교적 조치들이 중-인니 관계를 완화하려는 수카르노의 노력을 입증했다.

1961년 3월부터 6월 사이 천이의 인도네시아 방문과 수카르노의 재방중을 통해 중-인니 외교 관계를 괴롭혀왔던 화인 문제는 기본적으로 매듭을 지었다. 천이는 수카르노와의 회담에서 “화인 문제는 중-인니 관계에 있어서 작은 도전이었고 이제는 마무리되었다”고 말했다.³² 1961년 6월 13일, 중국 정부의 초청으로 수카르노가 두 번째로 중국을 방문했다. 양국 지도자 간 회동에서 마오쩌둥은 “우리 두 나라 사이의 화교 문제가 해결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대통령의 노력이 없었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것이다”라고 분명히 언급

27 《화교 문제와 치마시 사건에 대한 두 장관의 대통령 보고, 인도네시아 정부는 이 사건에 대한 관련 성명을 발표할 예정就华侨问题和芝马墟事件两部长向总统报告 印尼政府将发表有关该事件的公报》, 《생활보生活报》1960년 7월 6일

28 《치마시 사건에 대한 인도네시아의 항의 회신就芝马墟事件印尼覆我抗议照会》, 《생활보》1960년 7월 28일; 《인도네시아 정부 치마시 사건에 대해 사과, 천이 외교부장 이에 만족印尼政府已就芝马墟事件道歉 陈毅外长感到满意》, 《생활보》1960년 8월 8일

29 주도모周陶沫: 《화교 문제의 정치적 소용돌이: 1959-1962년 중국의 인도네시아 정책 분석华侨问题的政治漩涡: 解析 1959-1962年中国对印度尼西亚政策》, 155-174쪽

30 《주 총리 연설에 대한 인도네시아 각계의 반응印尼各方对周总理讲话的反应》, 1960년 8월 22일, 《인도네시아 서이리안 문제와 네덜란드와의 관계에 관한 보고서关于印度尼西亚西伊里安问题及与荷兰关系》,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05-00713-07(1)

31 《어제 신임 주중 대사 취임식에서 대통령이 연설, 화인 문제는 양국이 우호적으로 해결할 수 있음 확신昨为驻华大使监誓时讲话 总统确信华侨问题双方能够友好解决》, 《생활보》1960년 8월 23일.

32 《천이 부총리와 인도네시아 대통령 수카르노의 회담 기록陈毅副总理同印度尼西亚总统苏加诺会谈纪要》, 1961년 3월 31일, 중국 외교부 아카이브, 파일번호: 111-00339-13》

했다. 거의 2년에 걸친 화인 탄압 풍파를 넘어 중-인니 우호 관계는 재건되었다.

4. 결론

인도네시아는 협상 없이 신중국과 직접 수교한 최초의 민족주의 국가이자 중국 정부와 이중 국적 조약을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기도 하다. 1959년 중-인니 양국의 국내 정치 환경과 국제 정세는 모두 극심한 변동기에 있었고, 그로 인해 화인 문제의 비중이 과도하게 확대 해석되었다. 그 전 6년이란 긴 시간 동안 양국은 안정적으로 우호 관계를 유지하면서 반제국주의, 반식민지주의라는 공통된 담론을 공유했었다. 그러나 화인 탄압 사태가 발생하면서 200만 명을 웃도는 인니 화인들의 정치적 운명이 위태로워졌고 양국 관계의 향방도 불확실해졌다.

중국 정부에게 있어 이번 화인 탄압 사태는 각국과 이중 국적 조약을 체결한 후 처음으로 맞닥뜨린 엄중한 도전이었고 중국 정부의 화교 정책을 시험대에 오르게 했다. 반동 회의 이후, 중국 정부는 화인들이 거주국 국적을 취득하고 현지 국민이 되도록 권장함으로써 화인 문제가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의 우호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경 썼는데 이는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우호 관계를 발전시켜 가고자 하는 객관적 수요에 부응한 것이기도 했다.

이번 중-인니 정부가 화인 탄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줄다리기는 과정에서 사실상 몇 차례 중요한 변곡점이 있었다. 중국 정부는 결코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분석하는 것처럼 타협적 태도를 취하지 않았다. 어느 지점에서는 단호하게 반격에 나서면서 이를 중국의 외교적 강경 자세를 과시하는 신호로 삼았다. 이는 중국 정부가 정립한, 화교 사무는 외교에 종속된다는 원칙이 실은 방향성을 제시할 뿐이지, 구체적인 문제 처리에서는 반드시 그러하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나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이 외교보다 화교 문제를 우선시한 기간은 매우 짧았으며 화교 사무는 궁극적으로 거대한 외교 전략의 당위성에 부응해야 했다. 그러니 결과적으로 중-인니 간 “서로 싸우지만 파국에 이르는 일은 없는(斗而不破)” 상관 관계가 맺어진 것이다. 말하자면 양국은 국제사회를 향해 열린 장소나 언론을 통해서는 상대를 비난했지만 직접 만나는 회담에서는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함으로써 대립으로 치닫는 결과를 극구 회피한 것이다. 당시 양국 간에는 장기적으로 적대 관계를 이어가야만 할 동기와 여건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양측 모두 적대 관계의 대가를 감당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하기에 한 차례 큰 변곡점을 경험한 후, 양국 관계는 1961년 중반 다시 우호친선의 궤도로 회귀했고 이는 1965년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반제국주의 ‘동맹’ 구축의 초석이 되었다.

【지정토론】 제3세션

사회: 평 하오 (오사카공립대)

지정토론자: 【중국】 정 청 (효고현립대), 정 제시 (원저우대)

【한국】 정 재현 (목포대), 한 성민 (고려대)

【일본】 사토 유키 (릿쿄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재언 (일본어), 홍용일 (중국어)]



평 하오 9시가 되었으므로 토론을 시작하고자 합니다. 저는 본회의 사회자 평하오입니다. 오사카 공립대학 소속입니다. 저는 주로 17세기부터 19세기까지 동아시아 무역 제도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 각 선생님들 발표, 매우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몇몇 선생님들께서 논평을 준비하시느라 늦게까지 수고하셨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 역시 밤 11시까지 여러 선생님들의 의견을 받고 준비를 시작했기에 다소 피곤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초고를 읽어보니 내용이 매우 충실하고, 어제 발표처럼 큰 영감을 주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많은 선생님들이 각자 전문 분야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주셨으니, 오늘 모두 힘내시고 기대를 안고 함께 토론에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어제 토론된 주요 쟁점을 간단히 되짚어 보겠습니다. 저는 이번 토론의 핵심 문제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외교, 즉 대외 관계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동남아 연구 발전의 흐름에 관한 문제입니다. 외교 문제 관해서는, 우선 양 선생님 강연에서 대일 정책을 예로 들어, 마오쩌둥 시대와 그 이후 중국 외교 정책이 국내 여론에 의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신 점이 눈에 띄입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지도자들이 민의를 이끌어 외교를 추진했으나, 이후에는 민주주의 영향 아래 민의와 정부 여론이 서로 견제하며 영향을 주고받는 상황이 나타났다는 점이 신선하고 우리에게 큰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또한 어제 마지막에 발표하신 가오 선생님 발표 역시 외교와 관련이 있는데,

마오 시대 외교의 개별 사례 분석에 초점을 맞추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 내 반중 · 배화(排華) 활동에 어떻게 대응하고 외교 협상을 진행했는지를 다루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 가지 질문을 덧붙이고 싶은데, 인도네시아 역사에는 여러 차례 반중 · 배화 활동이 있었는데, 양 선생님 강연과 결합해 볼 때, 이 시기 중국과 인도네시아 내 민족주의가 국가 외교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어떻게 보아야 할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어제 미타니 선생님 처음 발언에서 ‘화인’ 과 ‘화교’ 의 구분, 특히 이들의 영문 표기에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언급하셨는데, 이 문제는 가오 선생님께서 답해 주시기에 가장 적절하리라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어제 두 번째로 발언하신 파타짓 선생님께서는 신진 역사가로서 태국 외교에 대해 매우 참신한 해석을 제시하셨습니다. ‘대나무 외교’ 라는 개념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제가 처음 듣는 것이어서 다소 부끄럽지만 매우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것이 태국 외교의 특징을 형상화된 수단으로 추상화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파타짓 선생님의 연구는 이 영향력 있는 학설에 의문을 제기하고, ‘소국 의식’ 에 대한 논의를 체계적으로 해체하는 작업을 수행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1990년대 또는 2000년대 이후 역사학계에서는 여러 해체주의적 흐름이 등장했는데, 예를 들어 중국 중심의 ‘조공 체제’ 해체나, 서구 역사학에서 이른바 ‘베스트팔렌 외교 체제’ 해체 등이 그러합니다. 다만 학설 체계의 구축도 전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특히 비전문가들이 역사와 사회 문제의 특성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다면 파타짓 선생님께서 태국 외교의 특징에 대해 어떻게 보시는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문제는 동남아 연구 정리에 관한 것입니다. 윤 선생님께서는 한국 측 동남아 역사를 매우 상세하게 정리해 주셨습니다. 제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몇 가지 소감을 덧붙이자면, 예를 들어 근대 이전 동아시아 각국 간의 인적 교류와 정보 전달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윤 선생님 발표에서는 우선 승려들이 법을 구하는 활동이 언급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문화와 정보가 전파되었습니다. 또한 부유민(浮游民)의 활동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 바다가 각국 간 정기적인 교류를 방해하더라도 우연한 만남을 촉진하는 사례가 종일 역사 곳곳에 존재합니다. 부유민을 어떻게 다루느냐는 문제는 제도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지는데, 예를 들어 일본 에도 시대와 동시기의 청나라에서도 ‘부유민 송환 체계’ 가 운영되었으며, 최근 이와 관련된 연구 성과도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으로의 정기적인 조공은 베이징에 외교 사절들이 모이는 ‘회동관’ 중심의 교류 네트워크를 형성하였는데, 이는 베트남, 조선은 물론 류큐 및 기타 조공국 사신들이 집결하여 비교적 안정적이고 광범위한 교류를 이루는 데 기여하였습니다. 이를 ‘회동관 사신 교류망’ 이라고 부르는 것이 적절한지 모르겠으나, 많은 공통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근대 이후 한국도 중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서구 문화의 거대한 영향을 받으면서, 세 나라 지식인 간 교류를 통해 동남아에 대한 이해가 점점 깊어졌습니다. 전후 냉전과 경제 고속 성장의 시기를 거치며 정치 · 경제적으로 동남아

에 대한 관심도 크게 증가했으나, 여전히 한국의 동남아 연구는 미흡한 점이 많다는 것이 윤 선생님의 지적입니다.

또한, 한반도에서는 이러한 동향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일본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요시다 선생님 발표는 주로 20세기 1930년대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는데, 많은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한반도의 상황과는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일본은 16세기 후반과 17세기 초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 일본인의 남양 발전의 절정을 경험하였고,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에서 이른바 일본인 거주지가 형성되었습니다. 내일 방문할 ‘아유타야(Ayutthaya)’ —중국어로는 ‘대성’으로 불리는 곳도 그 중 하나입니다.

20세기 1930년대로 돌아가, 요시다 선생님 발표를 통해 일본 학계의 ‘남양’ 연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이 동향은 일본 남진 전략의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이민이 급증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상업 자본이 동남아로 유입되면서 정치와 경제 양면에서 일본과 동남아 관계가 중요한 도약을 이룬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중국과 유사하게 동남아 문제를 전체적으로 논의할 때 ‘남양’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는데, 이는 중국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전통적으로 자국 중심으로 주변을 바라보는 인식이 반영된 것입니다.

이러한 인식은 전후, 어제 미타니 선생님께서도 언급하신 바와 같이 서구에서 사용되던 지리 개념으로 점차 대체되었습니다. 1970년대 전후 일본 역사학계에는 전환점이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본의 동남아 연구를 언급하면 저는 교토대 동남아 연구소가 생각납니다. 이 연구소 역시 1970년대 전후 설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을 바탕으로, 가능하다면 요시다 선생님과 사면대 가오 선생님께서 전후 각국의 동남아 학문 건설 문제에 대해 보충 설명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어제 여러분의 발표와 발언에 대한 간단한 회고 및 정리입니다. 이제 지정 토론 선생님들의 평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개요를 대략 검토한 결과, 토론 순서를 다음과 같이 정했습니다. 먼저 중국 측 정청 선생님과 정제시 선생님의 발언, 그 다음 한국 측 정재현 선생님과 한성민 선생님, 마지막으로 일본 측 사토 선생님과 히라야마 선생님 발언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각 선생님의 발언 시간은 약 7분에서 10분 정도입니다.

이제 토론 선생님들께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먼저 정청 선생님께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지 정 토 론 1



정 청

이번 ‘국사들의 대화’에 참가하여 귀중한 학습 기회를 얻게 되어 매우 기쁘고 영광스럽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석사과정을 마친 후, 일본으로 유학을 와서, 현재 한 공립대학에서 근현대 중국사를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지난 20년간 주로 일본어를 사용하며 일해왔지만, 이번 발표는 중국어로 하였습니다. 주최 측 규정 외에도 제 일본어가 그다지 유창하지 않다는 것도 한 이유입니다. 얼마 전 우리 대학 오픈캠퍼스 행사에서 한 고등학생이 “선생님, 한국분이신가요?”라고 물어서 놀랐습니다. 제 일본어에 특별한 억양이 있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왜 한국어 억양으로 들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좋은 일이겠죠. 앞으로 한국어를 배우는 데 분명 도움이 될 테니까요.

20년 전 일본에 와서 일본 사회와 학계를 가까이에서 접하기 시작했습니다. 역사인식을 둘러싸고 꽤 오랫동안 제 의식 깊은 곳은 중일 양국 인식과 감정이 격렬하게 충돌하는 장이 되었습니다. 근년에는 다행히 류지에 선생님이 주관하시는 ‘역사화해’ 프로젝트에 참여하면서 학술적 차원에서 역사인식과 역사화해에 대해 더욱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제 과제는 대학 교원으로서 역사 교육을 통해 어떻게 학생들이 자국중심 사관에서 벗어나, 진정한 인간의 관점에서 타국의 역사를 깊이 이해하고, 느끼고, 생각하게 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어제 오전 양 선생님의 기조 강연과 네 분 동료들의 발표를 듣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러한 느낌들을 바탕으로 역사인식과 역사화해에 대한 제 생각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 선생님의 기조 강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양 선생님께서는 중일관계 변화의 원인을 논하셨습니다. 저에게 중일관계는 단순한 학술적 과제가 아니라 제 자신과 밀접하게 연관된 문제입니다. 제 인생을 돌아보면 제 삶 속에 중일관계가 남긴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만약 중일 양국 관계가 1970년대 이후에도 변화 없이 그대로였다면, 저는 일본에 유학할 기회도, 일본에서 일할 기회도 없었을 것이고, 당연히 오늘 이 자리에서 발언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양 선생님은 강연에서 “국경을 넘어선 역사인식”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국경을 넘어선 역사인식”의 필요성을 인정하시면서도, 곧바로 낙관적인 태도를 보이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어려움을 명확히 지적하셨습니다. 양 선생님께서는 “일부 역사가들 사이에서 합의된 ‘역사인식’으로 양측 다수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려 한다면, 그 효과는 더욱 상상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양 선생님의 현실 인식은 무겁지만, 공통된 ‘역사인식’의 추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국경을 넘어선 역사인식”을 호소하셨습니다.

이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앞으로 나아가는 자세일 것입니다. 양 선생님은 역사관 문제의 해결이 가장 핵심적이라고 제시하시면서, 자신의 민족과 국가를 충분히 이해함과 동시에 다른 민족과 국가도 같은 노력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대문자로 된 ‘인간’의 관점에서, 자민족과 자국의 역사를 전 지구적 인류사회 발전사의 과정 속에 위치시키고, 그 장단점을 고찰하

고 평가하는 데 익숙해져야 한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양 선생님 말씀에 깊이 공감합니다. 역사학자의 역할이 제한적이고, 근년에는 활동할 공간도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역사학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양심을 가지고 역사 연구와 역사교육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역사학자의 역할은 정치인처럼 화려하지는 않지만, 잔잔한 비가 만물을 적시듯, 깊고 지속적입니다. 양 선생님 본인이 바로 그러한 예시입니다. 양 선생님의 연구와 저술은 많은 사람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 관점에 동의를 표하며, 중일관계의 변화 원인에 대해 제 이해를 조금 보충하고 싶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21 세기 들어 중국 민중의 감정이 고조된 데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마오쩌둥 시대 민간의 반일감정은 단지 강력하게 억압되었을 뿐, 진정한 해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 다. 일단 국족주의의 ‘망령’ 이 소환되면, 즉시 분출됩니다. 양 선생님은 마오 이후 시대 중국 지도자들이 때로는 민의에 순응하는 모습을 보이며, 마치 고조된 국족주의 감정에 휩쓸린 것처럼 보인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는 대개 표면적인 현상일 뿐입니다. 중국 정부는 늘 민의를 주도할 수 있다고 인식해왔고, 실제로도 그렇게 해왔습니다. 중국의 여론은 항상 정부의 손에 단단히 장악되어 있으며, 가끔의 통제 실패는 단지 민의가 정부의 여론 조작에 대해 일시적으로 반발한 것일 뿐입니다. 대중의 역사인식이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만의 특징은 아닙니다. 일본도 비슷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역사연구자로서 할 수 있는 일은 역사교육을 통해 학생들이 독립적 사고능력을 기르도록 돕는 것입니다.

여기서 제 상황을 소개하겠습니다. 역사수업에서 중일전쟁을 다룰 때, 저는 학생들이 중국의 관점에서 역사를 이해하도록 노력합니다. 일본의 역사교육에도 적지 않은 문제가 있습니다. 많은 일본 학생들이 수업 후 제출한 보고서에서 일본 역사교육의 몇 가지 맹점을 성찰을 통해 인식하게 되었다고 소개했습니다. 그 중 하나는 일본의 역사교육이 전쟁에서 자국의 피해 상황을 강조하면서도, 일본의 침략을 받은 국가들의 피해 상황은 거의 언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과 주변국 사이 역사인식의 깊은 간극이 생기게 된 원인 중 하나입니다. 학생들은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한 후, 중일 간 역사문제에 대해 더 많은 인문적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국의 역사교과서만 읽는 것이 아니라 양국 간 역사문제를 더욱 객관적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일부 학생들은 역사의 당사자들을 인터뷰하고 관련 역사자료를 수집하는 등 주체적으로 역사를 학습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파타짓 탕신만콩 선생님의 발표에서 언급된 태국의 ‘소국 의식’ 에 매우 관심이 있습니다. 파타짓 선생님은 각 국가가 역사과정에서 특유의 국민의식을 형성하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예를 들어 중국의 ‘피해자 의식’ , 태국의 ‘소국 의식’ 등입니다. 이러한 특정한 의식이나 심리는 흔히 해당 국가의 대외행위를 합리화하지만, 이로 인해 많은 문제가 발생한다며 파타짓 선생님은 소국 의식에 대해 비판적 태도를 보이셨습니다.

이에 대해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피해자 의식’ 이든 ‘소국 의식’ 이든 모두 일종의 자기보호 메커니즘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

리는 그 폐단을 인식함과 동시에 그것이 형성된 원인도 파악해야 합니다. 사람들은 그 형성의 원인을 이해한 후에야 이러한 심리 상태의 형성을 효과적으로 피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파타짓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어떤 구체적인 요인들이 태국으로 하여금 소국 의식을 갖게 했는지입니다.

윤대영 선생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한국 학계의 동남아시아 역사연구의 역사적 맥락과 최근의 동향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윤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최근 몇 년간 한국의 동남아시아 역사연구가 점차 쇠퇴하고 대학의 연구 인력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지입니다. 윤 선생님께서 한국의 동남아시아 역사연구를 부흥시키시고 우수한 학자들을 양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시다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1930년대부터 40년대까지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략 변화를 둘러싼 일본 학계의 다양한 역사해석에 대해 대체적으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의 발표를 통해 이 시기에 드러난 일본의 침략성의 원인을 복잡한 역사현상 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일본 학계의 오랜 과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마지막에 언급하신 점, 즉 고토 켄이치 선생님 등 동남아시아 연구학자들이 일본의 ‘해방사관’이라는 역사인식의 오류를 지적한 것이, 일본 근대사 연구자들이 중일, 일한, 일본과 대만의 역사인식 문제에서 보인 대립과는 선명한 대비를 이룬다는 점에 대해 약간 의문이 있습니다.

일본의 근대사 연구자들이 역사인식 문제에서 중국(대륙), 한국, 대만의 동료들과 많은 견해 차이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본적인 사관에 있어서 ‘침략전쟁’이었는지, ‘식민지배’였는지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 요시다 선생님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가오엔제 선생님의 발표에 감사드립니다. 가오 선생님은 당시 중국 정부의 대응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셨습니다. 역사에 대한 평가는 매우 어려운 일이며, 흔히 각도나 시간적 차원이 다르면 결론도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오 선생님께 여쭙고 싶은 것은, 만약 1965년 인도네시아 화교 배척 사건까지 시야에 넣는다면, 1959년, 60년 당시 중국 정부의 대응에 어떤 부족한 점이 있어서 수년 후 인도네시아 화교 배척의 화근을 남기게 되었는지입니다.

평 하오 | 이상으로 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정 선생님. 정 선생님께서는 본인의 연구 경험을 토대로 역사 인식과 역사 화해의 두 관점에서 평가를 해주셨습니다. 양 선생님처럼, 정 선생님도 역사가들이 역사화해를 위해 기울이는 노력이 매우 중요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고 보셨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우리 모두가 계속해서 힘써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셨습니다. 그저께 환영회에서 아카시 선생님께서도 이와 같은 인식을 제시하셨던 것이 기억납니다. 현재는 역사 문제뿐 아니라 국제 문제 등 다양한 문제들에 있어 당장 답을 찾기 어렵거나, 아무리 노력해도 명쾌한 답을 얻기 힘들더라도 문제 해결을 시도하고 계속 고민하는 자세가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정 선생님께서는 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께 몇 가지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잠시 말씀드리자면, 오늘의 진행 방식은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지정

토론 선생님들의 평가 후 각 발표자들이 문제를 정리한 뒤, 마지막에 통합하여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어제의 발언 순서에 따라 답변할 예정이며, 시간이 부족하면 다음 자유 토론 시간으로 미루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논평자인 정제시 선생님께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2

정제시



중국 원저우대학 정제시입니다. 중국에서 학부와 대학원을 마쳤고, 박사는 일본 간사이에서 했습니다만, 귀국한 지 이미 13년이 지났습니다. 부끄럽게도 일본어 실력이 많이 떨어져서 오늘은 일본어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저는 2018년 서울에서 열린 국사회의에 처음 참가했고, 이후 2021년과 2022년 두 차례 온라인 회의에 참가했으며, 이번에 네 번째로 참가하게 되어 매우 영광입니다. 어제 양 선생님 기조 강연과 네 분 학자의 발표를 듣고, 국경과 연구 영역을 넘어선 성과들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주로 제 소감과 생각나는 몇 가지 작은 문제들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양 선생님 강연에 대해서입니다. 제가 받은 가장 큰 감동은 ‘진정성’이었습니다. 양 선생님은 강연 시작부터 문제를 제기하시면서, 마오쩌둥 시대와 그 이후 중국 대륙과 일본의 관계가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지 않고, 오히려 양측이 공동으로 노력하여 만들어낸 30~40년간 점점 좋아지던 상황에서 한 걸음씩 후퇴하여 점차 미래를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양 선생님은 직접 경험, 견문, 개인적 감상을 바탕으로 ‘마오쩌둥 시대 및 그 이후 중국의 대일 태도 변화’, ‘마오쩌둥 시대와 그 이후의 민정, 민의의 서로 다른 작용’, ‘역사학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등 세 측면에서 이 문제를 탐구하셨습니다. 이론과 데이터, 분석이 있고, 특히 저자 자신의 직접적인 경험이 있어서, 제시된 역사가 특별히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양 선생님의 제안이 매우 설득력 있다고 느꼈고, 이러한 연구는 다른 대부분의 연구가 도달하지 못하는 상당한 깊이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 선생님은 강연 마지막에 특별히 “역사학자가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논하셨고, 사실의 진실성에 대한 대화에서 제시된 사례들이 매우 시사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제 경험을 보충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제 선배 한 분이 2004년 ‘일본의 대외확장에서 인민’이라는 논문을 발표하여 마오쩌둥의 ‘이분법’에 의문을 제기하고, 전체 일본 인민이 국가적으로 전쟁에 협력했다는 ‘일체론’을 제시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의 발굴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의심할 여지없이 이 논문의 의의는 인정할 만합니다. 당시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배를 매우 존경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많은 경험을 하고 학술과 사회에 대해 더 이해하게 된 후에는, 그가 제기한 문제에 사실 그 나름의 배경 요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어떤 면에서, 학자가 학문을 하면서 특정 민의에 영합하여 박수를 받는 것은 그 효과가 실제로 낙관적이지 않으며, 조심하지 않으면 사회에 일정한 부정적 영향

을 미칠 수 있습니다. 양 선생님 말씀처럼, 사실 연구를 통해 단지 상호 감정에서 출발하여 자기 입장에서만 문제를 고려하는 일반 대중의 ‘역사인식’을 바꾸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제 생각으로, 학자의 역사 연구는 단지 역사를 발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감정을 초월하여 역사를 설명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작은 문제 하나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마오쩌둥, 저우언라이가 확정한 대일 우호정책이 그 이전의 장제스, 국민정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연속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항전 승리 당시 장제스는 ‘항전승리를 전국 군민(軍民) 및 세계 인사에게 고하는 글’이라는 라디오 연설에서 “옛 악을 잊고,” “타인을 선하게 대하자”고 제안하며, 전후 국민정부의 대일 정책의 “선으로 원수를 갚는다”는 기조를 확립했습니다. 장제스의 이러한 제안은 국가 지도자의 개인적 덕성과 관련이 있고, 기독교 교리와 유교 문화라는 배경도 있으며,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분명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대만 지역과 일본 사이에는, 일본의 중국 침략 문제에 관해 중국 대륙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것과 같은 수많은 분쟁이 없는 듯하고, 어느 정도 화해를 이룬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장제스를 존경하며, 아이치현에는 장제스를 기리는 중정신사도 있습니다. 제 일본 유학 시절에도 일본 정부가 대만 학생들에게 주는 장학금 대우가 대륙 학생들에 비해 결코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작은 문제에 대해 양 선생님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국사 대화’에서 네 분 학자의 발표에 대해서도 제 소감과 작은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개의 발표 중 두 개는 학술사의 거시적 관점에서 동아시아 두 나라(일본, 한국)와 동남아시아 관계사의 학술사를 정리했고, 다른 두 보고는 모두 사례연구로, 하나는 역사비판 관점에서 동남아시아의 태국 외교 중 ‘대나무 외교론’을 탐구했고, 다른 하나는 미시적 사례 관점에서 특정한 시기 동아시아 대국 중국과 동남아시아 대국 인도네시아 간의 외교관계를 탐구했습니다. 이들의 주제 선정은 각각 달랐지만, 모두 이번 국사 대화의 주제인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를 중심으로 비교적 체계적인 고찰이나 논증을 했습니다.

네 개의 발표 중에는 이전 학계에서 다루지 않았거나 간과했던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파타짓 탕신만콩 선생님이 태국의 ‘대나무 외교론’을 해체하여, 그 배후에 숨겨진 ‘소국 의식’과 그 심층적 의미를 드러낸 것은 특별히 흥미로웠고,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이는 이전의 주류 관점에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던 것으로, 그 비판에 상당한 무게가 있으며, 이 주제는 앞으로 학자들이 계속 연구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파타짓 선생님께 작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비슷한 국력과 제도적 배경을 가진 국가들, 예를 들어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에도 비슷한 외교정책이 있는지, 횡적 비교를 통해 어떤 외교 모델의 보편성과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윤대영 선생님의 한국 내 동남아시아사의 회고와 전망에 대한 발표에서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이렇게 체계적인 연구 성과를 처음 보았는데, 한국의 동남아시아사가 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신선했습니다. 한

국에는 동남아시아에 관한 연구 성과가 매우 적은데, 이 보고서 내용이 비록 그리 풍부하지는 않지만, 역사를 발굴하고 전체를 정리하는 역할을 했다는 점에서 그 가치가 매우 소중합니다.

요시다 선생님과 가오 선생님의 연구는 모두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관계사상의 큰 문제들을 다루셨습니다. 전자는 비록 일본 학계의 1930년대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계(주로 일본의 동남아시아 경제 확장)의 학술사 정리에만 머물렀지만, 우리에게 비교적 명확한 학술 발전의 맥락을 보여주어 그 시기 역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여기서는 주로 가오 선생님 발표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오 선생님 연구는 주로 정부 문서와 기타 신문, 문집 자료를 활용하여 1959년 인도네시아 화교 배척 문제에 대한 중국 정부의 반응과 교섭 과정을 전면적으로 정리하였고, 이전에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중국 정부가 화교 배척에서 타협적 태도를 취했다는 관점을 바로잡으시면서, 중국 정부가 강력하게 반격했고 결국 양국 관계가 동요를 겪은 후 다시 우호적인 궤도로 돌아왔다고 보셨습니다.

제 개인적인 학식의 한계 내에서, 두 가지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 점은 방금 정청 선생님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인도네시아의 화교 배척이 발생하기 전, 실제로 전체 동남아시아 세계에서는 이미 400여 년 전인 16세기 후반, 대략 1593년 최초의 화교 배척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는 스페인 식민지였던 필리핀에서 스페인 식민자들이 화교를 배척했습니다. 화교 배척 이후에는 화교 철수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10년 후 첫 번째 대규모 화교 학살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법정 심리에 따르면, 2만 명 이상의 화교가 학살되었습니다. 가해자는 이후의 인도네시아와는 달랐습니다. 하나는 인도네시아 지방이었고, 다른 하나는 서방 식민자였습니다. 스페인 식민자들의 화교 배척과 학살 방식은, 처음에는 화교를 초빙하고 우대하다가, 화교들이 번영하게 된 후 압박과 착취를 시작하고, 단계적으로 화교 배척을 시작하여 점차 압박을 가중시키고, 반복적으로 시험해 본 후, 중국 정부의 반응과 한계선을 확인한 다음 마지막으로 대규모 화교 학살을 실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의 역사를 보면, 인도네시아 당국이 행한 행위는 이전 스페인 식민자들의 화교 배척, 학살 방식과 매우 유사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인도네시아의 화교 배척 이후, 양국 정부의 반복된 교섭을 거쳐 표면적으로는 문제가 해결된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1965년 대규모 화교 학살 사건이 발생했고, 심지어 1998년 다시 격렬하게 재연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볼 때, 화교와 인도네시아 당국 간 모순은 당시 실제로 해결되지 않았고, 단지 일시적으로 억제되었을 뿐, 이후 더욱 심해져 참극을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제기하고 싶은 질문은, 중국 정부의 반응, 교섭 및 그 효과에 대해, 만약 시야를 문제가 발생한 당시에만 두지 않고 긴 역사 속에 둔다면, 즉 1959년부터 1998년까지, 또는 16세기 후반부터 시작하여 이 근 300년의 전체 역사를 본다면, 우리는 새로운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화교 배척 자체에 대해서든, 중국 정부의 반응과 효과에 대해서든 새로운 평가가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이 제가 제기하고 싶은 첫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문제를 제기하고 싶습니다. 화교 배척 사건 후, 인도네시아 화교들의 경제는 큰 손실을 입었습니다. 한 사례로, 당시 동남아시아 화교 최고 부자였던 황중환(黃仲涵) 가문은 매우 막강한 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교 배척 사건 후, 즉 1961년 7월 인도네시아 정부는 법정 심판의 형식으로 그들 가문의 전체 재산을 몰수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당시 대규모 유혈 사태를 일으키지는 않았지만, 화교 배척이라는 정치 운동을 통해 법률이라는 합법적 수단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화교의 재산을 수탈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당시 인도네시아의 화교 배척의 주요 목적이 화교의 경제적 지위를 약화시키고 재산을 전면적으로 수탈하는 것이었지, 중국 정부와 적대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요? 중국 정부가 비록 저항하려 노력했지만, 실질적으로는 경제적으로 화교들의 이익을 적절히 보장하지 못했던 것이 아닐까요? 인도네시아가 ‘치마뽀 사건’에서 일견 양보한 것처럼 보였지만, 이는 단지 인도네시아 정부의 외교 전략으로, 중국의 체면을 살려주고 자존심을 세워주어 중국 정부에게 물러날 명분을 주려던 것에 불과하지 않았을까요?

화교 배척 사건에서 인도네시아는 아마도 가장 큰 승자였을 것입니다. 중국과 적대 관계로 가지 않으면서도 예상했던 효과를 달성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기울인 노력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일시적으로 화교들이 대규모로 학살당하는 불운을 지연시켰다는 점인데, 사실 이것도 당시 인도네시아 정부의 기존 전략은 아니었으며, 근본적인 효과는 아직 달성하지 못했다고 봅니다. 사실 화교들도 당시 이 점을 지적했는데, “우리를 보호해줄 강대한 국가가 우리 뒤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인도네시아 화교들은 가장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으로서 가장 큰 피해자였는데, 우리가 연구를 할 때 그들의 입장에 서서 문제를 더 전면적이고 적절하게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요? 감사합니다. 이상이 제 소감과 질문이었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정제시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우리 대화에 여러 차례 참여하시며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이번 논평에서는 주로 양 선생님 강연과 가오 선생님 발표에 대해 평가해 주셨으며, 다른 선생님들 발표에도 여러 의견과 질문을 던져 주셨습니다. 여러분, 논평자의 질문과 의견을 들으시고 혹시 잘 들리지 않은 부분이 있다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한국 측 정재현 선생님께서 논평해 주실 차례입니다. 정재현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3



정재현

안녕하십니까, 한국 국립목포대에서 서양사와 베트남사를 가르치는 정재현입니다. 중국에서 오신 정청 선생님과 정제시 선생님께서 토론을 진행해 주셨는데요. 저도 같은 한자를 쓰는 정(鄭) 씨입니다. 정 씨 3명을 연달아 배치한 것이 사회자 선생님의 배려이신지 궁금합니다.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 국사학자들과 동남아시아사 학자들의 대화에 함께 하게 되어서 영광입니다. 서로 국적과 연구 분야가 다르다고 해도, 역사학이라는 동일한 학문적 기반이 저희 사이 유의미한 대화의 기초가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 대화가 각국 역사학계 발전을 촉진하고 나아가 동아시아의 공통된 역사 기억 형성에 이바지하기를 기원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국제학술대회에서 이렇게 한국어로 발언하고 또 다른 나라 선생님들의 발언을 한국어 동시통역으로 듣는 호사를 누릴 수 있어서 기쁩습니다. 다만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이 회의는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를 주제로 방콕에서 열리는 회의인데 태국어 통역은 제공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일본어, 중국어, 한국어를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태국 역사학자들이 이 대화에서 배제되었다는 사실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모든 선생님들의 발표문이 흥미로웠습니다. 윤대영 선생님 발표문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사 연구의 역사와 현황을 소개했습니다.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사 연구는 소수의 역사학자들의 헌신적인 노력을 바탕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여기 계신 윤대영 선생님도 그러한 분들 중 한 분입니다. 그러나 윤대영 선생님께서도 지적해 주셨듯이 현재 상황은 사실 밝지 않습니다. 한국 역사학계에서 동남아시아사 비중은 너무 작습니다. 학문 후속세대의 양성은 완전히 중단될 처지에 놓였습니다. 정청 선생님께서도 질문하셨지만 저도 윤대영 선생님께 이러한 상황의 원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시는지, 또 향후 대책은 어떻게 되어야 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또한 일본과 중국에서 동남아시아사 학계가 처한 상황은 어떠한지 요시다 마사미 선생님과 가오 선생님께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파타짖 탕신만콩 선생님은 태국에서 태국사를 넘어선 동남아시아사 교육과 연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태국에서 동아시아사 교육과 연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다른 한편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가 전반적으로 크게 활기를 띠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그중 베트남 비중이 높다는 점이 특징적입니다. 윤대영 선생님 발표문도 현대 이전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접촉에 관해 설명하시면서 주로 베트남과의 관계를 언급하셨습니다. 이처럼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가 베트남에 집중된 까닭은 한국의 역사적 경험, 예를 들면 전통시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식민지배의 경험, 분단과 내전이라는 공통된 역사적 경험으로 인해 비슷한 경험을 한 베트남 역사가 유독 주목받기 때문인 듯합니다.

그렇다면 한국의 베트남사 연구는 이미 한국 사회의 문제의식이 반영된 결과이며, 한국사와 긴밀한 관련을 맺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 한국에서 주목할 만한 흐름은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에 관한 한국사학자들의 연구가

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한국에서 동남아시아사 연구자가 확대 받고 있지만 동남아시아사에 대한 관심이 없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증명합니다.

이처럼 한국사 전공자들이 동남아시아로 관심의 폭을 넓혔다는 점은 반가운 사실이며, 한국사와 동남아시아라는 공간 간 연결을 기대하도록 해줍니다. 예컨대 1960~70년대 한국의 경제성장은 한국 국민의 노고만큼이나 베트남 인민의 희생에 기초하고 있음이 최근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국사학자들의 연구는 동남아시아와 관련된 주제에 관심을 가질 때조차 동남아시아라는 공간을 자국사가 펼쳐지는 무대 정도로만 보거나, 혹은 자국민만을 행위 주체로 설정하고 동남아시아인을 타자화하는 경향을 보입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려면 한국사 전공자들이 동남아시아사 전공자들의 연구에 좀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만 국사의 편협한 관점을 넘어선 역사적 인식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시다 마사미 선생님 발표는 제가 개인적으로 일본의 인도차이나 진출에 관한 연구를 진행한 바 있기에 더 흥미로웠습니다. 일본은 한국보다 동남아시아사 연구의 역사가 훨씬 깊고, 지금도 더 활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도발적으로 들릴지도 모르지만, 한 가지 점을 이야기하지 않고 넘어갈 수 없습니다. 일본의 동남아시아 연구가 한때 제국에 봉사하는 식민주의적, 오리엔탈리즘적 학문의 성격을 띤 적이 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는 일본에 국한된 현상은 아니고, 서양의 동양학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0세기 후반 서양의 제3세계 연구는 식민주의적, 오리엔탈리즘적 성격을 탈피하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전후 일본의 동남아시아사학계는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요시다 마사미 선생님께서 혹시 답변해 주실 수 있으시지요?

물론 오늘날 일본의 동남아시아사 연구가 일본 제국주의를 정당화하려는 의도에 갇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일본은 국제학계에서 높이 평가되는 동남아시아사 학자들을 여럿 배출했습니다. 그런데 근대 일본과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다루는 많은 일본 학자들이 일본에만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는 듯합니다. 다시 말해, 근대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에 관한 연구가 일본의 팽창주의와 자본주의를 이해하려는 목적에 치중해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일본의 국사 연구에서 동남아시아를 시야에 넣으려는 시도는 높이 평가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 연구의 경우, 제가 느낀 점은 특정 동남아시아 현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가운데 일본의 남진(南進)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는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일본 학계만의 문제는 아닐 것이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국의 베트남전쟁 연구와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해됩니다.

가오옌제 선생님 발표문도 흥미로웠습니다. 중국에서 이루어진 동남아시아사 연구를 접해본 적이 전혀 없기 때문입니다. 중국의 경우에도, 중국과 관련된 사건과 현상들이 동남아시아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을 듯한데요. 화교, 화인 외에 어떤 주제를 많이 연구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동남아시아 화교, 화인에 대해 중국 사학계의 평가가 일반적으로 어떠한지도 궁금합니다. 특히 궁금한 점은 화교, 화인의 역사가 중국사의 일부로, 중국이라는 나라, 즉 ‘국사의 일부’로 여겨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발표문의 내용에 관해 조금 더 이야기하면, 중국 정부 대응보다 사실 인도네

시아의 화인 사회가 어떠했는지에 초점을 맞췄으면 더 흥미롭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화인 같은 디아스포라 집단이야말로 트랜스 내셔널 역사학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발표자께서는 1959년 인도네시아의 화인 배척 조치를, 전적으로 인도네시아 정부와 인민의 책임으로 보시는지, 혹은 중국 화인들에게도 책임 소지가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정제시 선생님께서 그 외에도 여러 화인 배척 사건들이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런 사건들이 오늘날 중국과 인도네시아 간 역사 갈등의 소지가 되고 있는지, 오늘날 양국에서 이런 사건들이 어떻게 기억되고, 평가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나무 외교론’에 관한 파타짓 탕신만콩 선생님의 발표문도 흥미로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통차이 위니짜꾼의 책을 읽었을 때 받았던 전반적인 결론과 결이 같다고 느꼈는데요. 다만 이러한 ‘대나무 외교론’이라는 담론을 만들어 내고 유지하며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대한 언급이 없어서 비판의 칼날이 다소 무뎠다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이 점에 관해서는 여기서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외국사를 전공한 역사학자인 저는 국민국가 시대의 역사 교육과 연구가 자국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을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인식론적 차원에서는 ‘우리’와 ‘너희’의 이분법적 구분을 넘어서려고 부단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의 ‘월드 히스토리’ 연구는 이미 그러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사들의 대화’ 역시 그 일환이라고 생각하며, ‘국사’라는 고정된 틀을 상정하고 서로 다른 국사들 간 대화를 하는 차원을 넘어 공통된 역사 서술을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대화와 융합이 일본, 중국, 한국 세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더 넓은 세계로 확대되기를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정재현 선생님. 선생님께서는 먼저 윤 선생님 발표에서 제기된 문제의식과 한국 내 동남아 역사 연구의 우려되는 상황, 그리고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이러한 문제들을 일본과 중국의 동남아 연구 상황까지 확대하여 다른 선생님들의 의견을 구하셨습니다. 이어 각 발표자들에게 관련 질문들을 던지셨고, 마지막으로 ‘너희와 우리’의 이분법을 넘어 글로벌 역사 관점에서 역사 연구를 진행하는 방안에 대해 간단히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중 혹시 확인하고 싶은 부분은 없으신지요? 없다면 다음으로 한성민 선생님의 논평을 부탁드립니다.

지 정 토 론 4

한 성민



안녕하세요, 한국 고려대 아세아문제연구원 소속 한성민입니다. 아주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신 ‘정 씨 삼형제’ 뒤를 이어 제가 토론을 하겠습니다.

어제 훌륭한 발표를 해 주신 선생님들께 우선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역사는 전통과 사회적 가치를 강화할 수 있지만, 한편에서는 일종의 문화적 기억 상실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사회적 가치 또는 연구자가 부여하는 의미,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역사는 아주 다양한 사정으로 인해 배제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어제 양쿠이쑹 선생님의 기조 강연은 시사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역사 속에서 한국은 일본이나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직접적 교류가 많지 않았습니니다. 또한 한국의 대학 사학과 과정에서도 동남아시아사는 거의 다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에서 공부하는 제 입장에서 이번 학술회의는 한국을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국가들 사이 교류의 역사를 복원하고 재확인하며,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소중한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미타니 선생님 기조강연에서도 확인했듯이, 현재 한국 사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인적, 물적 교류가 급격하게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동남아시아 역사와 문화에 대한 한국 사회의 이해는 높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어제 여러 선생님들의 발표는 매우 흥미로운 동시에, 동남아 지역 이해에 상당한 자극이 되었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가 낮은 저에게는 새로운 호기심이 유발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중심을 둔 국가 외에, 동남아시아의 다른 국가들에 대한 내용이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국이나 중국, 일본에 대해 어떻게 인식하는지, 또는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대해서는 그 내용이 소략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 파타짓 탕신만콩 선생님께서는 근대 이래 태국의 외교에 작용한 소국 의식의 작동 원리와 영향, 그리고 그 한계에 대해 검토하셨습니다. 이는 근대 이래 ‘약소국의 서러움’ 으로 상징되는 한국의 대외 관계에도 많은 시사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공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를 소국으로 인식하는 자기 규정은 독립된 주체로의 성장을 가로막는 한계로 작용할 뿐만 아니라, 상대적인 국가 관계에서 상대에 따라서는 스스로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인식을 몰각하게 하는 기제로도 작동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윤대영 선생님께서는 베트남을 중심으로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관계 및 연구사를 통사적으로 검토하셨고, 요시다 선생님은 근대, 구체적으로 1930년대 일본의 동남아시아 정책이 최종적으로 ‘대동아 공영권’ 으로 귀결되는 과정을, 그리고 가오옌제 선생님은 현대, 구체적으로 1950~60년대 화인 문제를 중심으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갈등에 대해 분석하셨습니다. 이렇게 세 분 선생님께서는 서로 다른 시기와 범위에 대해 주제 발표하셨으나, 공통적으로 각각 자국 즉 한국, 일본, 중국의 관점만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일 관계사 및 동아시아 관계사를 공부하는 저에게는 상대국의 인식이 궁금합니다. 관계사 연구는 서로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호 인식과 이해를 기반으로 합니다. 오늘, 어제 발표하신 선생님들이 해당 시기 동남아시아 국가

들의 동아시아 인식 내지는 한국, 일본, 중국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시기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동아시아 국가들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에 대해 답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시다 선생님께서 동남아시아 범위에 속하는 국가들을 제시하셨습니다만, 이러한 범위가 명시적인 것인지, 지역 범위의 기준이 일반적으로 합의된 것인지 동남아시아를 잘 모르는 저는 궁금합니다. 또한 지역 구분은, 통상 지리적 범위와 문화적 범위가 대체로 비슷합니다. 그런데 지리적 측면 외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인 문화 요소가 어떤 것이 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월남 망국사』 이 책은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한국의 민족 사학 전개 과정에서 반드시 언급되는 책입니다. 또한 베트남 근대사와 한국 근대사는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국권 상실 위기 속에서 동병상련으로 당시 한국 사회의 베트남에 대한 관심은 높았습니다. 이러한 동병상련의 관심이 현대에 들어와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영향을 주었을까요? 1960년대 한국의 베트남전 파병에 대해 한국 사회에서 반대의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의 현대사는 전쟁 특수로 인한 경제적 이익과 한국전쟁의 경험, 그리고 미국과의 관계 등을 강조합니다. 파병의 경비를 미국이 부담하고, 이로 인해 한국이 전쟁 특수를 누린다고 해도, 상당수 젊은이들이 타국의 전쟁에서 사망하는 것임에도 한국사회에서 반대 목소리는 거의 없었습니다. 이를 어떻게 보아야 할까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다섯 번째, 1970~80년대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주요 관심과 쟁점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그 이후에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교류가 많아지는 가운데서도, 오히려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가 축소된 가장 큰 배경, 이유는 어떤 것이었을까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후 한국 입장에서 동남아시아 연구와 관련해 가장 시급하게 연구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한국의 식민지 시기 강제동원 문제를 제외하고도, 한국사회와 동남아시아의 관계는 다양하게 존재했습니다. 이 시기 동남아시아에서 일본군의 군속으로 근무하다 종전 후 B, C급 전범으로 처벌된 상당한 규모의 식민지 조선인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국 사회에서도, 일본 사회에서도 외면받고 있습니다. 전쟁 시기 공식적인 국적이 일본인이었고 전후에는 일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양쪽에서 외면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사자로서의 한국은 구체적인 규모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독립운동사, 그리고 식민지 정책사가 강조되는 한국 근대사 연구에서 망각되고 있는 역사입니다. 그리고 인도, 버마 전선에 숫자는 얼마되지 않지만 한국 광복군 1지대가 3회에 걸쳐 파견되어 활동했다고 합니다. 이 역시도 구체적인 활동 내역은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을 단지 독립운동사 또는 일본의 식민지 정책사의 관점만이 아니라, 동남아시아와의 교류사 관점에서 연구할 여지는 없는가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1940년대 일본의 동남아시아로의 점령 확대, 일명 ‘대동아 공영권’의 구축에 대해 일반적으로는 무모한 전선의 확대라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군사력을 통한 점령과 이후 점령지 유지는 질적으로 다른 문제입니다. 동남아시아 각국과 일본과의 관계, 그리고 동남아시아 국가 간 관계 등 당시 일본이 구상하

고 실행한 동남아시아 점령지 유지 및 운영의 방식은 어떤 모습이었을지 궁금합니다.

1930년대 일본 정부와 조선총독부는 식민지 조선에서 생산되는 쌀을 일본으로 이출하고 식민지 조선의 부족한 식량을 보충하기 위해서 당시 일명 ‘안남미’라 통칭했던 동남아시아의 쌀을 조선으로 수입합니다. 이것은 단지 식량의 보충만을 의미하지 않고, 식민지 조선에서의 물가 안정책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볼 때, 대동아 공영권 내 경제 네트워크는 어떻게 작동하고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종전 후 일본의 동남아시아로의 경제력 확장에서 제2차 세계대전기 동남아시아 점령지 정책 및 경험이 어떻게 작동했을까에 대해서도 요시다 선생님께 의견을 구하고 싶습니다.

여덟 번째는 2차 세계대전 후 한국전쟁을 거쳐 냉전이 본격화되면서,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아우른 1950년대 미국의 아시아 정책은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본에는 산업시설 구축을 위한 원조를 하고, 아시아 다른 국가들에는 일본의 생산품 소비를 위한 원조를 하는 ‘2달러 정책’으로 특징지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에 대한 일본사의 인식과 반응은 어떠했을까도 궁금합니다.

마지막입니다. 가오옌제 선생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1959년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에서 촉발된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대립은 대체적으로 전면 충돌을 피하기 위한 양국의 자제와 상호 이해를 바탕으로 1961년경 마무리되었고, 1965년에는 양국이 우호적으로 반제국주의 동맹 관계를 구축하게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인도네시아 시점에서 보면, 당시 수카르노 정권은 국가통합을 위해 ‘공공의 적’을 만들 필요가 있었고, 네덜란드 식민지 시기 네덜란드에 협조적이었던 화교들이 희생양이 되었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는 수카르노 정권과 인도네시아 공산당 사이 내전이 격화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국내 문제, 무엇보다도 인도네시아 공산당과의 대립에 집중할 필요에서, 수카르노 정권이 중국과 대립 확대를 피하려 한 측면이 크지 않을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또한 중국과 인도네시아가 반제국주의 동맹 관계를 구축한 1965년은 수하르토가 인도네시아 공산당 쿠데타 사건을 날조해 권력을 장악한 해입니다. 그 이후 수하르토는 1965년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불과 반년도 안 되는 짧은 기간 동안 공산당원, 또는 공산당원으로 추정된다는 이유로 무려 50만에서 120만 명의 자국민을 학살합니다. 이때에 많은 중국계 화인들이 학살된 것은 물론입니다. 그런데 화인 탄압 이후 중국과 인도네시아의 관계를 중국의 관점에서 너무 긍정적으로 평가하시는 것은 아닌가 의견을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한성민 선생님. 한성민 선생님께서는 마닐라 회의 이후 매번 우리 대화에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성민 선생님께서는 정 선생님과 마찬가지로 먼저 한국의 동남아 역사 연구의 부족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셨고, 자신이 인지한 한국과 동남아의 관계 문제들을 언급하며 윤 선생님께 추가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또한 다른 선생님들께도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셨는데,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동남아 각국이 동아시아 국가들을 어떻게 인

식하는지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이 문제는 저 역시 매우 관심이 많아 여러분께 질문드리고 싶습니다. 상대 국가가 자국을 어떻게 인식하는가는 국사 연구자들에게 흥미로운 주제이며, 동남아와 동아시아라는 지역 구분의 타당성도 충분히 논의할 가치가 있습니다. 이제 일본 측 사토 선생님께 부탁드립니다.

지정토론 5

사토 유키



릿쿄대학 사토 유키라고 합니다. 저는 12~16세기 ‘중세’라 불리는 시대의 일본사를 전문으로 하고 있습니다. 중국을 모델로 국가 형성을 한 ‘고대’ 이후, 무사가 대두하고 무사정권(막부)이 등장하는 시대입니다. 어제 강연과 발표는 모두 20세기가 주제였습니다. 제가 전문으로 삼는 시대와는 매우 멀지만, ‘후지산 경치는 멀리서 보는 것이 아름답다’는 말처럼, 사물은 멀리서 보는 것이 잘 보이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먼 시대를 보는 제 감상을 말씀드리고 코멘테이터로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동아시아 국사대화에서 ‘동남아시아’를 생각하는 의미에 대해서입니다. 어제 미타니 선생님 강연에서 ‘동남아시아’라는 말이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정치적 배경 아래 일반화되었다고 소개해 주셨습니다. ‘동남아시아’라 해도 민족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양하고, 실체가 없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덧붙이자면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으로 인해 보이지 않는 것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중국 영향을 받는다는 공통점입니다. 중국의 정치적·경제적·문화적 영향 혹은 실제 ‘사람의 이동’ 영향을 받으면서, 독자적 지역 문화나 국가를 형성한 주변 지역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한국·일본과 함께 베트남의 존재를 꼽아야 합니다. 현재 동아시아라 불리는 ‘동북아’와, ‘동남아’는 오히려 공통점을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일본 역사학계에서는 9세기부터 17세기에 걸친 동중국해, 남중국해의 경제적, 문화적 교류 활성화에 주목해 ‘해역 아시아’라는 개념을 제기하였습니다. 중국인 상인들이 활발하게 활동하던 지역입니다. 16세기 이전 일본에도 규슈 하카타(역주: 현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중국인 상인이 거류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제 가오 선생님 발표로 인도네시아 국민국가 형성기에 화인의 존재가 큰 문제가 되었던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일본에도 중국인이 와 있었습니다. 일본은 중국에게 문명을 배웠으나, 9세기를 끝으로 ‘견당사(遣唐使)’라 불리는 정식 국가사절을 중국에 보내지 않게 됩니다. 현재 연구에서는 중국인 상인들의 동중국해 무역이 시작돼 국가 스스로가 사절을 보낼 필요를 느끼지 않게 되었다는 측면이 중시됩니다. 대체로 10세기부터 16세기까지의 일본은 국가 권력이 분열돼 내란이 계속되는 중세라 불리는 시대였지만, 중국과의 무역으로 부를 얻고 최신 문화를 수입하고 있었기에, 해상 무역의 이익을 계속 누렸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해상 무역의 세계가 결코 대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국이 유일한 초강대국으로 막대한 부를 가진 중국을 노린 주변국들이 모여드는 구조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현관은 ‘동

쪽’ 이 아니라 오히려 ‘남쪽’ 이었다는 것입니다. 일본 열도 각지의 중세 유적에서는 중국산 수입 도자기와 동전이 대량으로 나오는데, 이와 마찬가지로 베트남을 비롯한 동남아시아에서도 중국산 수입 도자기와 동전이 나옵니다. 해당 지역에서 ‘바닷길’ 활성화로, 중세 일본에도 중국인 상인이 방문해 그 이점을 일본 열도가 누렸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 라 불리는 지역은, 당시 일본에게 얼굴이 보이는 이웃은 아닐 수 있으나, 중국이라는 거대한 이웃을 함께 해 온 ‘얼굴이 보이지 않는 이웃’ 이었고, 동남아시아 지역이 존재함으로써 일본 스스로가 전혀 의식하지 않는 곳에서 큰 영향을 받은 측면이 있지 않았을까요?

어제 미타니 선생님 말씀 중에 16세기 유럽인의 방문을 계기로 일본인이 동남아시아에 진출하게 되었다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순서를 말하자면, 중국계 상인 네트워크가 이미 존재했고, 포르투갈인들이 그것에 의거하는 형태로 동남아시아로부터 중국을 목표로 삼아 이동했고, 일본에도 들르는 흐름이 보입니다. 15세기 단계에서 일본의 무사정권, 즉 무로마치 막부는 중국, 즉 명나라와의 무역을 통해 막대한 부를 얻었지만, 16세기 전국시대 내란 속에서 일명(日明) 무역은 기능하지 않았습니다. 이를 대신하는 것이 유럽인 혹은 일본인의 움직임이었습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조선침략전쟁 또한 그 동기에는 여러 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종 공격 목표가 중국이며, (중국해 교역 중심지인) Ningbo를 거점으로 한 천축(인도) 정복이 미래 구상이라는 식으로 히데요시가 말했습니다. 이처럼 중국 무역의 이권 획득이라는 무로마치 막부 이후 일본 열도의 권력 움직임이 전국시대 내란을 통일한 군사 정권에 의해 왜곡된 형태로 표출된 것과 다름없습니다.

16·17세기 일본인의 동남아시아 진출 또한 요시다 선생님 발표에 있었던 남진론과 동시기 ‘일본인의 해외 웅비’ 라는 맥락에서 이야기되었지만, 이는 일본 중심의 견해인 듯합니다. 즉 19세기 이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라는 지역구분이 성립되면서 일본인이 새로운 프론티어에 진출하는 것 같은 이미지가 생겨났던 것은 아닐까요? 전근대, 나아가 근세 이전, 즉 16세기 이전 성립한 역사적 세계의 존재가 보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남진론이나 대동아공영권에 서, 동남아시아 중국인 · 중국 문화의 존재감이 어떻게 여겨졌는지, 요시다 선생님 발표를 들으며 궁금해했습니다.

윤대영 선생님 발표에서도, 조선왕조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전근대에 존재했다는 것이 지적되었습니다. 이러한 관심이 중국에 조공하는 나라 사이의 관계성에서 유래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19세기에 중국과의 관계가 해체됨과 동시에 그 동안의 동남아에 대한 본질적인 관심이 후퇴한 것, 그에 따라 한국과 마찬가지로 식민지화 위기에 직면한 베트남에 대한 새로운 관심이 생깁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미국의 영향, 그리고 베트남 전쟁을 계기로 더욱 변화한다는 말씀이 흥미로웠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관심이 시대별 세계 질서에 의해 규정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국의 존재감이 21세기에 더욱 높아지는 가운데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가 하나로 인식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저는 이번에 태국을 처음 방문했습니다. 중국 문화의 영향을 곳곳에서 느꼈습니다. 팻타짓 선생님 발표의 ‘태국의 소국 의식’에 대해. 일본에도 ‘소국’ 의식이 있는데 실제 (역주: 일본은) 규모가 크고 주변 지역에 대해 제국으로서 행동했지만, 중국이나 미국 같은 대국보다 훨씬 작다는 포지션도 유사해, 이러한 비교는 흥미로운 과제라 생각합니다. 한 가지 질문을 하자면, 팻타짓 선생님은 ‘소국’ 의식을 외교정책론과의 관계에서 논했는데 문화적 콤플렉스의 문제로 볼 수도 있을까요?

일본은 국가 형성기부터 중국 문화 영향이 강했고, 중국 문화를 흡수해 그 힘을 바탕으로 스스로의 전통 문화를 자각해 가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헤이안 시대, 즉 10·11세기 무렵에는 ‘화한(和漢)’이라는 의식이 생깁니다. 즉 한시 등 중국 문화를 지배적인 문화로서 인정하면서도 와카(和歌) 같은 일본 전통 문화를 만들어내, 스스로의 문화 속에서 양자를 병존·병용해 나가는 형식입니다. 이러한 문화의 이중 구조는, 근대가 되면 서양 문화를 섭취·흡수하고 일본 문화 일부로서 받아들이는 형태로 변화합니다. 19세기 이전에는 중국 문명, 19세기 이후에는 서양 문명이라는 보편 문명에 대해 일본 측은 열등감을 갖는 동시에, 때로 우월감을 갖는 복잡한 태도를 취합니다. 일본의 ‘소국’ 의식에는, 일본 문화에 뿌리내려 있는 문제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윤 선생님과 요시다 선생님 발표에서 ‘자국사’ 입장에서 생각하는 중요성이 강조되었습니다. ‘자국사’라 할 때의 ‘자국’ 자체가 여러 문화나 국제 환경 요인으로부터 복잡하게 성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라 불리는 지역에서는, 전근대부터 경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도 중국의 존재감이 크다는 점, 그러한 오랜 ‘이웃’ 관계가 19세기 이후 근대화 혹은 국민국가 형성 과정 속에서 잘 보이지 않게 된다면 21세기인 현재에, 다시 근대 이전의 역사적 세계로 거슬러 올라가 이 지역의 역사와 미래를 고민하는 일에도 의미가 있을 듯합니다.

이상으로 어제 선생님들의 훌륭한 발표에 영감을 받아 제 나름대로 코멘트를 드렸습니다.

평 하오

감사합니다, 사토 선생님. 연구 분야가 주로 일본 중세사라서 이번 회의의 주제와는 다소 거리가 있지만, 매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사토 선생님께서는 먼저 ‘동아시아’, ‘동남아’ 등 개념의 한계에 대해 언급하셨고, 이어 ‘소국 의식’이 태국뿐만 아니라 동아시아·동남아에서도 유사한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전근대 중국이라는 대국의 존재가 주변 국가 및 지역 정책에 미친 영향을 강조하셨습니다. 또한 여러 유의미한 질문들을 제시하시며 전근대 지역사가 역사 연구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재차 강조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사토 선생님께 감사드리며, 이제 마지막 발언은 히라야마 선생님께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指定討論 6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학 히라야마 노보루입니다. 사토 선생님은 중세가 전문이라면서도 중세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고대부터 현대까지 폭넓게 1000년 이상 기간을 생각하고 계십니다. 게다가 일본 중세사를 전문으로 하면서도 일본에만 그치지 않는 넓은 시야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저는 일본 근현대에 특화된 코멘트가 될 것이란 점을 지금에야 깨닫고 조금 부끄럽지만, 일본 근대사를 연구하는 입장에서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어제는 선생님들의 흥미로운 발표가 제 머리와 마음을 많이 자극해 주셨습니다. 먼저 양 선생님 강연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특히 정치와, 미디어 같은 여론으로 인해 감정적으로 변하기 쉬운 주제를 역사가로서 어떻게 마주해야 하는지 깊이 생각하게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강연 중 이시하라 신타로가 출간한 『‘NO’ 라고 할 수 있는 일본』이 등장했습니다. 출판한 곳은 코분샤(光文社)라는 곳인데, 사실 이 출판사는 731 부대의 인체실험을 고발한 모리무라 세이치(森村誠一)의 『악마의 포식(悪魔の飽食)』이라는 작품을 1981년 출판했습니다. 일본 우파에게 대환영을 받은 책과, 그 반대로 매우 미움을 받은 책이 같은 출판사에서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흥미로운 일이 아닐까요?

어제 제1세션 마지막에 저는 출판사에 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한정된 엘리트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미디어에서 정보를 얻고, 미디어에서 발언할 수 있게 된 ‘20세기 대중사회화’에 대해 생각할 때, 내용뿐 아니라 ‘어떻게 정보가 확산·유통되었는가’ 하는 미디어론적 시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2000년대에 들어 일본 인터넷 상에서는 우파적인 담론이 분출했지만, 그 사람들에게 담론 패턴을 제공한 것은 이시하라 씨 책을 포함해 1990년대 인기를 끈 일반인 대상 서적이었습니다. 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애국’ 적 출판 시장이 생겨났는가 하는 것은, 당시 관계자에 대한 인터뷰 조사를 포함해 향후 역사 연구자들이 검증할 것이라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한국에서도, 인터넷상에서 ‘애국’ 담론이 넘치기 전, 출판 시장에서의 ‘애국’ 콘텐츠 상품화라는 움직임이 있었을까요? 이 문제는 2년 전 ‘국사대화’에서 한성민 선생님의 문제제기로 이루어진 ‘역사 대중화와 동아시아의 역사학’이라는 주제와도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이후 토론에서 한성민 선생님께서 뭔가 관련된 발언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세션인데요, 이 세션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국사를 통해 동남아시아사를 서술하려는 노력은 현지 역사를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자국사 연구를 되돌아보고, ‘자라나게’ 하는 데에도 유용하다”는 말씀입니다. 이 같은 내용을 염두에 두면서 지금부터 각각 코멘트하고자 합니다.

먼저 팻타짓 선생님 발표는 ‘부정적 자아의식’을 공통 키워드로 각국을 비교하면 흥미로운 점이 보인다는 영감을 모두에게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도 국가나 시대에 따라 몇 가지 패턴이 떠오를 것입니다. 근대 일본을 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일본은 작다. 그러니 더 커지고 싶다!’는 영토 확장이나 대외 침략으로 직결될 수 있는 패턴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뿐 아니라 ‘커다란 것’과 관계를 맺고 싶다! 또는 관계가 있다고 믿고 싶다! 라는 패턴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커다란 것’은 근대 일본에서 거의 예외 없이 ‘서구’였습

니다.

저는 현재 ‘성지(聖地)’라는 말이 20세기 전반 크게 변화한 데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일본어로 ‘성지’라는 말은 ‘애니메이션의 성지’처럼 상당히 자유롭게 사용되고 있지만, 사실 메이지 시대에는 기독교와 관련돼 예루살렘을 가리키는 용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일본 국내의 특정 지역을 ‘성지’라 부르는 일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이쇼 시대(역주: 1912~26년)가 되면 불교 니치렌슈(日蓮宗)라는 교파의 시조 니치렌과 연관 지어 ‘성지’라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다나카 지가쿠(田中智學)라는 사람인데, 그는 “세계 종교 역사에서 그리스도에 필적하는 인물은 니치렌 밖에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기독교에서 쓰이던 ‘성지’라는 말을 일부러 사용한 것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쇼와 시대(역주: 1926~89년)에 들어서면 ‘성지’가 황실과도 연결 지어진다는 점입니다. 즉 천황의 조상신을 모시는 이세 신궁, 혹은 메이지 천황을 모시는 메이지 신궁, 이런 곳을 성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일본 천황제는 ‘세계 속에서 일본뿐’이라는 고유성·독자성을 최고의 프라이드로 삼습니다. 그런데 실은 세계적 종교인 기독교 느낌이 매우 강한 말을 쓰면서 천황제 가치를 높이려는 움직임이 쇼와 시대 초기에 생겨났습니다. 작은 일본에서 커다란 서구로 관계를 맺고자 하는 강렬한 욕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는 이러한 연구를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의식하지 않고 해왔지만, 파타짓 선생님 발표 덕에 부정적 자기 의식 표출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보다 넓은 시야와 문맥에서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 언급하고 싶은 것은 ‘대나무 외교론’은 단점이나 폐해도 분명히 있지만 실리적인 장점도 확실히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중국과의 전쟁이 교착상태에 빠졌어도 1941년 세계 최강 미국에 대한 전쟁을 시도합니다. 늦어도 1943년에는 이미 전황이 절망적이었지만, 그로부터 약 2년 동안 전쟁을 계속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국내외에서 믿기 어려울 정도의 희생을 계속 만들어 냈습니다. 태국의 대나무 외교론은 그때그때의 파워 밸런스에 따라 유연하게 변하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담론이라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이 생각을 유지하는 한, 적어도 태국이 태평양 전쟁 말기 일본과 같은 실수를 저지를 가능성은 절대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대나무 외교론으로 인한 장점도 무시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상당히 엇나간 감상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요시다 선생님 발표인데, 우선 ‘1930년대 일본의 동남아시아 진출’은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도 거의 주목받지 못했다고 지적하셨습니다. 분명히 제 시야에도 들어와 있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요시다 선생님께 단순한 질문이 있습니다. 요시다 선생님은 ‘일본 근대사에서의 동남아시아 연구’를, 동남아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가 주도해 왔다, 왜냐하면 현지어를 이해하지 못한 일본 근대사 연구자가 이 주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는 “많은 국사 연구자들은 외국에 무관심하고,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사람도 드물다”라는 미타니 선생님 지적과도 연결됩니다. 이러한 현상을 어떻게 타개하면 좋을지에 대해 요시다 선생님 경험에서 뭔가 힌트를 주실 수 있을까요?

이어서 윤 선생님 발표를 통해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에서 식민지화나 베트남 전쟁기에 따른 배경 차이는 있지만 항상 베트남에 관심이 집중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흥미롭다고 생각한 것은 김영건이 일본의 동남아시아 연구자들의 지원으로 일본 학계에서 활발히 연구 성과를 발표했다는 것입니다. 식민지 지배 자체는 틀림없이 부정적인 역사이지만 필연적으로 종주국과 식민지 사이 지식 네트워크가 생깁니다. 이러한 지식 네트워크는 일본의 식민지 지배가 끝나자 사라졌고,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단절되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현재 한국과 일본의 동남아시아사 연구자들은 서구 대학이나 학회에서 만나는 경우가 많지 않을까요? 만약 이 예상이 맞다면, 일본에 의한 식민지 지배가 사라진 전후, 아시아 연구를 하는 아시아 각국 연구자들의 허브 역할을 하는 것은 아시아가 아니라 서구 대학이나 학회가 된 아이러니컬한 경향이 보일 지도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오 선생님 발표에 대해서, 부끄럽지만 저는 전혀 해당 역사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매우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인도네시아와의 결정적인 협상 결렬은 계속 회피했지만, ‘중국은 약한 나라’로 간주되는 것은 어떻게든 피하고 싶었기에, 인도네시아에게 일부러 강하게 대응한 장면도 있었다는 것은 부정적 자국 인식에 착안한 파타짓 선생님 발표와도 관련 지을 수 있어 흥미로웠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가오 선생님 발표와 깊이 관련돼 있고, 양 선생님, 파타짓 선생님 발표와도 관련된 사실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정확히 100년 전인 1924년, 미국에서는 일본으로부터의 이민을 금지하는 ‘배일(排日) 이민법’이 통과되었습니다. 일본에서 미국으로의 이민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이미 20세기 초부터 배척 운동이 일어났는데, 결정타가 된 것이 배일 이민법입니다. 이는 당시 일본인을 깊은 분노와 절망에 빠뜨렸습니다. 이 사실은 평소 매우 온후한 성격이었던 한 농촌 청년이 이때만큼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분노의 말들을 일기에 적었던 것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오랜 세월을 걸쳐 노력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최근 일본에서 새 지폐 얼굴이 된 시부사와 에이이치(渋澤栄一)입니다. 근대 일본 산업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인물입니다. 그는 고령임에도 스스로 미국으로 건너가 “배일 이민법을 통과시키지 말라”고 미국 유력 인사들에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성립돼 버렸기에 그의 낙담은 컸습니다.

그럼에도 일본 국내에서 “언젠가 미국에 복수하겠다!”와 같은 감정론이 분출하는 가운데, 시부사와는 결코 그에 동조하지 않았습니다. 양 선생님 기조강연에서 “감정을 정책에 앞세워서는 안 된다”는 저우언라이(周恩來)의 말이 소개되었는데, 이 말은 이때의 시부사와의 생각 그 자체였습니다. 만년의 시부사와는 일미관계 악화를 막기 위해 온 힘을 쏟았습니다. 예를 들면, 장래의 일미관계를 짚어줄 아이들이 사이 좋게 지내기 위해 미국에서 선물로 보내 준 많은 인형을 일본 소학교에 선물하는 친선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그런 시부사와가 사망하기 전, 메이지 신궁 외원에 있는 쇼토쿠기념회화관(聖徳記念絵画館)에 벽화 한 장을 봉납했습니다. 1879년 일본을 방문한 미국 그랜트 장군과 메이지 천황의 회견을 그린 것입니다. 시부사와는 ‘일미 융화’라

는 메시지를 스스로 앞장서 만든 이 신사 외원에 담았습니다. 그런데 시부사와
의 이 메시지는 1931년 그가 죽은 뒤, 최악의 형태로 짓밟힙니다. 1943년 10
월 21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회화관과 동일하게 메이지 신궁 외원에 있는 경기
장에서 행해진 것은 미국과의 전쟁에 내몰린 학도(대학생)들의 환송회였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코멘트를 마치겠습니다.

평 하오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히라야마 선생님께서는 매번 우리 대화에 참여
하시면서, 이번에도 여러 학자분들이 참고하실 만한 일본사 관련 사례들을 많이
공유해 주셨습니다. 내용이 매우 풍부하고 논점도 다양했습니다. 예를 들어 출
판사와 애국주의 담론 간 관계, 불교·신도에서 성지 참배의 역사와 국가 응집
력의 문제, 근대 일본이 강대한 서구에 주도적으로 접근했던 문제 등을 언급하
셨고, 또한 서구 사학계가 동남아시아 연구를 주도한 것에 대한 소감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많은 부분들이 우리가 앞으로 논의해 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마침 시간이 10시 30분이 되었습니다. 이후 답변과 응답을 하실 선생님들께
서 질문 내용 중 잘 듣지 못하신 부분이나, 메모를 못 하신 부분이 있으시다면
잠시 시간을 내어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방금 놓쳤던 점이 있어 죄송합니다. 방
금 정재현 선생님께서 태국어 통역이 없는 것이 아쉽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문제는 다른 발표자분들께서 답변하실 사항이 아니라,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모
든 분들께 사과드려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가 중일한 3개 언
어 간 동시통역을 제공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데, 태국어까지 추가하게 되면
최소 3명의 통역사 공간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 인공지능(AI)이
매우 발달했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러한 희망사항을 실현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
습니다.

만약 확인하실 사항이 없으시다면, 마침 시간이 다 되었으니 여러분께 충분한
휴식시간을 드리고, 이후 정 선생님이 진행하실 다음 세션에서 적극적인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유토론】 제4세션

사회: 정 순일 (고려대)

토론자: 양 쿠이쑹 (베이징대, 화둥사범대), 탕신만콩 파타짓 (도쿄대),
(발언순) 요시다 마사미 (미츠이문고), 윤 대영 (서울대), 가오 옌제 (샤먼대), 미타니
히로시 (도쿄대 명예교수),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 쑹 지용 (난카이대),
정 재현 (목포대), 한 성민 (고려대)

토론 정리: 류 지에 (와세다대)

[발언은 모국어, 번역: 윤재언 (일본어), 홍용일 (중국어)]



정 순일 제4세션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국사 대화 제4세션 사회를 맡은 한국 고려대 역사교육과 정순일이라고 합니다. 주최 측 배려로 많은 정 씨 선생님들이 참가해 주고 계시는데, 제가 정 씨 4번 타자가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 정 씨이기도 합니다.

2013년 제1회 아시아미래회의의(AFC)를 이곳 태국 방콕에서 개최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올해 2024년 제7회 아시아미래회의가 열리고 있고, 똑같은 방콕에서 개최되고 있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제1회 AFC와 이번 제7회 AFC 때 여성과 룸메이트로 숙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때 룸메이트와 지금 룸메이트가 다른 여성이라는 점입니다. 사실을 말씀드리면, 제1회 때는 저희 와이프와 같은 방을 썼고, 이번에는 제 딸과 같은 방을 쓰고 있습니다. 제1회 때 저희 집사람이 저와 같은 유학생으로서 AFC에서 발표를 했었고, 미타니 선생님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미타니 선생님께서 좌장을 맡아주셨던 때, 그 세션에서 프레젠테이션상을 받아, 학교인 도쿄대에 돌아가 지도교수님께 굉장히 칭찬받았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미타니 선생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번 주최 측의 배려인데요. 저는 9살인 딸과 함께 방콕에 와서 딸을 어떻게 해야 되나 굉장히 걱정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주최 측인 아쓰미재단과 SGRA에서 키즈룸을 마련해 주셔서, 굉장히 재미있게 노는 모습을 봤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는 키즈룸에 아이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쫄라롱쑤대학 학생들과 함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대학생들한테 말을 걸어보니, 일본어를 굉장히 유창하게 하고, 영어도 굉장히 잘하는 우수한 학생들이더라고요. 태국의 명문대학인 쫄라롱쑤대학에서 국사 대화를 할 수 있고, 또 굉장히 우수한 학생들이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면 이제 아이스브레이킹이 끝났기 때문에, 본론으로 돌아가 토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앞서 지정 토론자, 코멘테이터 선생님들이 각각 10분 혹은 10분 약간 넘는 시간 동안 많은 논점을 제기해 주신 바 있습니다. 사실 한정된 시간에 모두 토론하기에는 조금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조 강연을 해 주셨던 양 선생님을 비롯해 발표자 선생님 네 분께 우선 5분씩 답변하실 수 있는 시간을 드리고자 합니다. 5분은 굉장히 불충분한 시간입니다만, 첫 번째 로테이션에 5분씩 발언하시고, 제가 시간을 더 드릴 테니 못하신 말씀은 추가로 말씀해 주시는 방식으로 하겠습니다. 대화의 형식을 취하며 토론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순서로 양쿠이쑹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려서 코멘트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양 쿠이쑹

감사합니다. 사회자님, 그리고 질문해 주신 두 분 정씨 선생님들께도 감사드립니다. 아주 간단한데, 제 주요 문제는 두 분의 정씨 중국인 선생님에게서 비롯된 것입니다. 저는 두 가지 문제에 대해 먼저 답변하려 합니다. 정청 선생님 질문에 대해서는 한 가지 주요 문제에 대해서만 답변하겠습니다. 중국의 여론이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는 점은 당연히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문제는 시대와 집권자에 따라 그 강세가 달라진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포스트 마오쩌둥 시대에 이 점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상대적으로 덩샤오핑 시대는 강한 모습을 보였고, 오늘날도 여전히 강한 반면, 중간 단계 지도자들은 그렇게 강하지 않거나, 처음에는 약하다가 점차 강해지거나, 혹은 반대로 처음에는 강하다가 약해지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약한 지도자들이 맞닥뜨릴 때는, 어떤 문제들을 처리하는 데 매우 어렵고 곤란함을 느낍니다.

제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후야오방(胡耀邦)이 1985년 문제를 처리할 때, 덩샤오핑 주석이 계셨음에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장쩌민 시대에 들어서는 인터넷의 영향과 더 큰 개방성 때문에 이러한 문제들이 해결되기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지방에서 새로 부상한 지도자들은 많은 사안에 대해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과정이 필요하기에, 때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다른 문제는 정제시 선생님이 언급한 것처럼, 마오쩌둥과 장제스의 대일 타협이 동일한가에 관한 것입니다. 먼저 두 사람의 공통점을 말씀드리자면, 타협했던 당시 모두 일본에 대해 무언가를 요구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체적인 이유는 여기서 자세히 다루지 않겠습니다. 다만, 장제스가 어떻게 일본에 요

구했는지는 여러분도 잘 아실 겁니다. 1949년, 1950년 전후, 장제스는 일본과 조약을 체결해야 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륙 반격을 모색해야 했기 때문에 그 요구가 매우 컸습니다.

반면, 마오 시대, 특히 1950년대 중반 이후는 미국에 대항하기 위해 대일 외교를 추진하며 일본과 국교 수립을 모색했습니다. 그가 ‘이것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일본이 선거제 국가여서 집권자들이 표를 필요로 했고, 당시 중일 양국 민간 관계가 상당히 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를 잘 활용하면 정부를 압박하여 중국과 국교를 수립할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두 사람 사이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장제스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자입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일본의 침략뿐만 아니라 일본 및 영국에 대해 증오의 언사가 가득 적혀 있습니다. 그는 매일 일기를 쓰며, 항상 이 증오를 잊지 말라고 스스로에게 상기시켰습니다. 반면, 마오쩌둥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마오는 이러한 문제들을 다룰 때 계급 분석의 방법으로 외교 문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통치 계급의 정부가 아니라 국민을 위한 외교를 추진했습니다. 국민의 압력이 충분하다면, 통치 계급도 양국 간 상호 호혜, 상호 이익, 상호 작용의 관점에서 문제를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장제스의 대일 외교는 상층부에 초점을 맞추었고, 마오쩌둥의 대일 외교는 중하층에 초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마오쩌둥은 첫째, 일본의 과거 침략 전쟁이 일본 국민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보고, 둘째, 방문하는 다양한 계층 일본인들의 거들된 사과를 듣고자 하지 않았으며, 더 나아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원치 않았습니다. 그는 여러 차례 일본에 배상을 요구하면 일본 국민의 부담만 가중될 뿐이며, 일본 국민 역시 전쟁의 희생자라는 이유로, 그런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것이 그가 내세운 한 가지 출발점입니다. 저는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 순일 네, 양 선생님 알기 쉬운 답변 감사드립니다. 그럼 뒤이어 파타짓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습니다.

파타짓 많은 질문, 코멘트 감사합니다. 5분의 시간제한이 있기 때문에 세 가지로 좁혀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외교술로서의 ‘뱀부 디플로머시’, 두 번째는 역사관으로서의 ‘대나무 외교론’, 이 두 가지를 나눠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정재현 선생님께서 질문해 주신 동남아시아사에 관한 태국의 교육에 대해서입니다.

우선 강조하고 싶은 것은, 제 연구는 태국의 외교술로서의 뱀부 디플로머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태국이 지금까지 균형 잡힌 외교를 채택한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연구가 비판하는 것은 그 외교술을 정당화시키는 대나무 외교론이라는 이야기, 스토리 자체입니다. 이는 사토 선생님과 히라야마 선생님에 대한 대답이 되겠지만, 태국 외교의 특징은 ‘균형 외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걸 틀림없다고 봅니다. 뱀부 디플로머시도 태국식 균형 외교로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균형 외교로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었다는 장점의 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연구나 리더의 연설에서도 이미 지적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균형외교가 ‘근본이 없는 외교’라 할 수 있는 측면도 있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점을 강조해두고자 합니다.

여기서 균형 외교의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이 일어나 리튼 조사단이 만주에 파견되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일본의 행위는 침략적 행위로 판단되었고, 국제사회는 일본을 비판했지만, 태국은 그때 비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즉 기권하는 길을 택한 셈입니다. 현재 국제 정세를 봐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관해서도 같은 경향이 보입니다. 태국은 기권을 택했습니다.

이 외교에 대해 두 가지 시각이 태국 사회에서 생겨납니다. 보수파들은 “국익을 지킬 수 있어 옳은 판단”이라고 보지만, 다른 한편으로 좌파 혹은 혁신파에게 물으면 “근본이 없는 외교”라 합니다. 자기인식을 수정하고 책임감을 갖는 외교를 해야 한다는 소국 의식, 즉 뱀부 디플로머시는 이미 시대에 뒤떨어진 외교라는 비판도 한편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점을 제 연구를 통해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토 선생님이 지적한 것처럼, 문화적 콤플렉스가 있다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중국은 태국에게 계속 강대국인 입장이고, 태국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는 것도 자료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콤플렉스를 계속 가져도 되는가’, ‘콤플렉스를 이유로 어려운 문제에 관여하지 않는 것은 정말 좋은 일인가’, ‘이러한 소국 외교를 특징으로 전면에 내세우면 되는가’ 하는 점인 것 같습니다. 보수파에게 물어보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다”는 답변을 받을 수 있겠지만, 한편 혁신파에게 물어보면 “역시 개정하는 게 좋다, 태국이 책임을 지고 미안마 문제나 동남아시아 인권 문제에 적극적으로 관여해 달라”는 답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즉, 태국의 소국 외교, 뱀부 디플로머시를 특징으로 내세움으로써, 다른 가능성이 보이지 않게 될 수 있음을 본 연구를 통해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외교술로서의 뱀부 디플로머시라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역사관입니다. 이는 정정 선생님의 질문인데, ‘소국 외교, 소국 인식이 어디에서 어떻게 형성되어 왔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저는 소국 의식이 대나무 외교론이라는 역사관에서 비롯되었다고 연구를 통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국 의식을 탄생시키는 대나무 외교론이라는 역사관은 사실 1970년대 생겨난 것입니다. 국제정치의 산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970년대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미국이 베트남 전쟁을 통해 동남아시아에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1973년쯤, 미국은 동남아시아에서 철수해 버렸고, 당시 태국 지도자는 입장이 곤란해졌습니다. 미국이 철수해 버리면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할지 생각해야 하는데, 그 해결책으로 중국에 접근해야 한다는 대안이 떠오르게 됩니다. 이 접근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역시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사실 이게 처음이 아니라 계속 전통이 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스토리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가 국제정치의 산물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지금은 담론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비판적으로 검토되지 않은 채 주류가 된 담론이라는 점을 밝힌 것이 제 연구입니다.

세 번째는 정재현 선생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교육 상황입니다. 태국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는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교육은 뒤쳐져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 냉전 하 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무엇을 했는지, 혹은 이웃 나라에서 무엇을 했는지 모두 모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 전 제 수업에서 태국 국사 교과서를 다루었는데, 그 태국 국사에 관해서도 1932년에 끝나는 교과서가 많습니다. 1932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절대군주제가 끝납니다. 국사의 주역은 국왕이기 때문에 절대군주제가 타도된 곳에서 역사가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외도 있습니다만, 제가 본 것은 6개 출판사에서 나온 검정 교과서로, 6개 중 4개가 1932년에 끝나 있었습니다. 2곳은 예외지만, 제2차 세계대전에 관한 역사도 A4 크기 지면 절반 정도만 적혀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는 매우 놀랐습니다. 그래서 냉전 하 태국이 무엇을 했는지, 혹은 이웃 나라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전하는 것은 유감스럽게도 실려 있지 않습니다. 이것도 큰 과제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생각을 할 질문을 많이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순일 네, 감사합니다. ‘흙 어드벤처’를 적용해서 시간을 5분 더 드렸고, 이제부터 최초 발언은 5분 정도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요시다 마스미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요시다 마스미 시간 제약이 있으므로 죄송하지만 주신 질문들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평 선생님, 그리고 한국의 정 선생님, 중국의 정 선생님으로부터 일본의 동남아 연구 계보에 관한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디까지나 연보(年譜)를 중심으로 한 답변인데요, 우선 1958년 주로 재계와 통상산업성이 주도한 ‘아시아경제연구소’라 하는 싱크 탱크가 생겼습니다. 당시 경제적 긴밀화를 전망한 현황 분석이 대부분이었지만, 그 후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역사 연구를 뒷받침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5년 뒤인 1963년 교토대 동남아시아 연구센터가 평 선생님이 지적하신 대로 설치되었습니다. 발표에서 언급한 야노 등이 여기에 소속돼 후진을 양성했습니다. 통합 등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현재도 최일선의 연구소로서 존재합니다.

다음은 한 선생님의 동남아시아의 대일 인식이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주체로 무엇을 상정하느냐에 따라 상당히 달라집니다. 전쟁 전에 대해서는 동남아시아 중 어느 나라인지, 특히 종주국 사람이 어느 정도 그 나라 정부에 들어가 있는 지, 또 경제 제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즉 정치적 · 경제적 제도를 전제로 어느 정도의 일본인이 유입되어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하는 점이 큼니다. 전시에 돌입하면 물론 군정이 시작되지만, 수카르노나 수하르토 등의 활동가를 예외로 하면, 역시 일본에 의해 초래된 고난의 측면이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후에, 적어도 교과서 수준에서는 반일 논조가 강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역시 경제적 관계가 필요했기 때문이라고 상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점령지 유지를 위한 통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하는 점인데, 먼저

동남아시아 점령 지역은 육군 점령지, 해군 점령지, 엄밀히는 점령이 아닌 태국, 그리고 프랑스령 인도차이나라는 구분이 있습니다. 실체가 전혀 다른 것은 당연하지만, 공통점으로는 대만 총독부에서 많은 관료가 파견돼 실행 부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이 촌락 수장 등 현지 지도자층의 존재를 활용한 것도 확인됩니다.

유통에 관해서는, 대동아 공영권내 무역 관계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물건의 흐름을 구체적으로, 그리고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연구사는 아무래도 거시적, 수량적인 파악을 중심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념적으로는 지역 사이에 잘 제휴한다고 되어 있지만, 실체는 역시 일본이 각지로부터 직접 식량이나 자원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다만 이는 숫자에 근거한 통계상 유추이므로 아직 실증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일본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경제 원조를 둘러싼 일본 국내 반응은 솔직히 제가 지금 정확한 내용을 대답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사실을 떠나, 일본이 동남아시아를 돕고 있다, 발전시키고 있다는 인식은, 전쟁 전 일본 점령도 동남아시아를 도왔다, 독립으로 이끌었다는 해방사관을 강화한 측면이 분명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첫 번째 정 선생님의 역사인식 문제에 대해, 일한, 일중 학자들 간 공통인식이 있지 않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지는데, 이는 제가 말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발표에서 말씀드린 해방사관은 일본 학자가 그렇게 말한다기보다, 일본 국내 일부(혹은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만)가 그렇게 말한다는 전제가 있습니다. 이에 더해, 일본인의 역사수정주의와 대치하는 것은,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 근대사 연구자고, 단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는 일본 근대사 연구자가 아닌 동남아시아 연구자다, 이는 역시 하나의 차이점이 아닐까 하는 취지였습니다. 일본과 동남아시아 국가 간에는 일한, 일중처럼 역사인식 문제가 국가 간 심각한 외교 문제가 되기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국의 정 선생님과 사토 선생님 질문은 일본과 동남아시아를 주체로 해 지역을 나누면, 일본으로부터의 일방적 관계가 된다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어렵고, 쌍방향적인 영향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은 절대적인 부분이지만, 아무래도 자국사가 될 때는 정도의 차이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려움이 생긴다고 보고, 완전한 리즈널(regional) 히스토리도 존재하면서, 자국사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결국 그 균형이 중요합니다. 이를 보지 말자는 게 아니고, 정도의 차이가 다소 커다란 차원의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히라야마 선생님께서로부터 받은 현상황에 어떻게 하면 좋은가라는 커다란 질문에 대해, 자국사 연구자가 외국어를 활용한 연구를 하지 않는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근성론이 아닌 차원에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외국 아카이브를 사용하기 쉬운 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으로 목록을 볼 수 있고, 어떤 자료가 있는지 알게 되면 연구에 나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본 근세사에 한해 말하자면, 네덜란드어 전문가가 많이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일본 근세사를 뒷받침하는 매우 강력한 존재가 됐습니다. 이는 2024년 일본 근대사에 있어서 매우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중요한 문제일수록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 것 같기도 합니다만, 이상입니다.

정 순일 요시다 선생님 한정된 시간에 굉장히 알기 쉽게 말씀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곧바로 윤대영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영 5분에 맞춰서 할 수 있는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히라야마 선생님의 질문과 논평에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도 주로 베트남 역사를 공부하고 있는데, 한국사와 비교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베트남사를 공부하면서 한국사를 동시에 공부하고 되돌아보는 계기로 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연구 영역을 확장하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좀 힘들 것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에 들어갔을 때 중국사를 제일 많이 가르쳤는데, 저는 원래 일본사를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배우고, 중국어를 배우고, 일본어를 배우다가 중간에 베트남 쪽으로 관심을 옮겼습니다. 그래서 베트남어도 학습했고, 또 박사과정 공부는 프랑스에서 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자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데 자국사만 공부하셨던 분은 이런 기회를 갖기 힘들어서 어려운 측면이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연구 영역을 확장하는 작업을 혼자 하지 마시고, 동남아 각 지역 전문가들이 일본에 많으니, 협업하고 공동 연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히라야마 선생님이 식민지 종주국과 식민지의 질적 네트워크에 대해 말씀을 해 주셨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특히 대동아 공영권 시기 일본으로서는 일본과 동남아 사이 어떠한 관계가 있었는지를 밝혀내는 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한국 사람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 연구를 한 사람도 있지만, 김영건의 계기는 약간 특수합니다. 본인 자의로 프랑스 베트남의 프랑스원동학원에서 일본학, 조선학 도서관 사서로 이력을 시작했습니다. 거기서 10년 정도 체류했는데, 1940년 9월 일본군이 베트남으로 들어옵니다. 이 사건이 현지를 떠나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프랑스원동학원의 원장이 가지 말라고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본인은 “일본군이 여기에 들어와 있는 이상 일할 수 없다”고 답했습니다.

물론 김영건이 프랑스원동학원에서 근무할 때, 이 기관을 찾아온 일본 학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는 이 사람들과 교류했는데, 이 교류가 바탕이 되어 인도차이나를 떠난 이후에도 한국과 일본의 학계를 오가면서 활동합니다. 물론 본인의 책도 일본에서 출판이 되기는 합니다. 이 책의 서문을 보면 대동아 공영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래서 김영건의 경우에는 판단하기 모호한 측면들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람은 한국전쟁 이후 실종되어버렸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사정 때문에 이 사람에 대해 저도 평가하고 싶지만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베트남이나 한국의 관계사를 연구할 때 상호 인식의 관점을 한성민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베트남 측에서 한국을 인식하는 자료를 구하기 힘들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베트남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베트남 연구자들이 향후 한국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게 더 적절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제 답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 순일 윤대영 선생님 너무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어보니 더 재미있는 논점, 그리고 논의를 심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동시에 들기도 합니다. 가오엔제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려 코멘트를 부탁드립니다.

가오 엔제 여러 선생님들께서 제기해 주신 질문들 감사합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사실 몇몇 질문들은 통합해서 답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분의 정 선생님들, 즉 정청, 정제시, 그리고 정재현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질문들은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는데, 바로 연구 대상국인 동남아시아 인도네시아를 어떻게 볼 것인가, 그리고 인도네시아에 살고 있는 화교들이 이 과정에서 중국을 어떻게 보고 자신들의 처지를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1959년 사건을 보면, 인도네시아는 사실상 국가 또는 국족(國族) 건설의 급속한 발전 단계에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히 중국과 화교만을 겨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화교가 주요 대상이기는 했지만요.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7년에도 네덜란드 기업들에 대한 대규모 공격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민족주의적 경향이 계속 상승했고, 인도네시아 소매업을 장악하고 있던 화교들이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제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화교 자산을 수탈하려는 성격이 있었지만, 더 큰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사실상 이는 비교적 극단적인 민족주의가 급속히 발전하는 단계에서 나타난 구체적인 반영이었습니다. 사토 선생님과 히라야마 선생님의 논평도 제가 구체적 사례에서 벗어나 역사적 현상으로서 연구 대상을 바라보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인들과 인도네시아 화교들이 어떻게 보았는가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는, 우리는 한 사건의 배후에 중대한 쟁점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인도네시아 화교들의 인도네시아 발전에 대한 공헌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중국 정부와 인도네시아 정부 사이에는 모순이 존재했는데, 여러 차례 회담에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화교들의 인도네시아 경제발전에 대한 공헌을 부정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네시아 화교들에 대해, 즉 우리가 사람에 초점을 맞추면 주목할 만한 현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문제가 해결되기 전에, 그들이 과연 중국인인가 인도네시아인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1945년 인도네시아에서 네덜란드에 대항하는 독립투쟁이 발발한 후, 우리는 화교들이 중립을 지켰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화교들은 자경단을 설립했는데, 이는 총독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 토착민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당신들은 인도네시아인인데 어떻게 중립을 지킬 수 있느냐”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사례는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의 특수한 정치적, 심리적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큰 문제입니다.

두 번째는 한성민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동남아시아 국가가 동아시아 삼국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제가 알게 된 상황으로는,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가 중국과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점입니다. 제가 든 예시를 제외하고 보면, 1965년 양측은 거의 동맹관계를 맺었다가 1967년 곧바로 단교했습니다.

단교 이후 중미관계가 완화되면서 다른 동남아 국가들, 이전에 우호적이지 않았던 국가들도 모두 중국과 수교했지만, 인도네시아는 가장 늦게 수교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이는 인도네시아가 중국에 대해 가진 의구심, 심지어는 공포를 보여줍니다. 우리가 보는 일부 문헌에서 인도네시아 고위층은 중국의 통일을 매우 우려한다고 명확히 표현했습니다. 이 통일은 단순히 대만과의 통일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해외 화교사회를 동원하여 더 큰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입니다.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하면, 1970년대 미국이 인도네시아와 동남아시아 전체, 나아가 아시아의 지역질서에 대해 논의할 때, 누가 지역질서의 지도자 역할을 할 것인가에 대해, 인도네시아 지도자들은 일본이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명확히 말했고, 심지어 대화 중에 일본의 문화를 부정하기도 했습니다. 한국 관련된 내용은 보지 못했지만, 이 문제는 매우 흥미로운 토론을 이끌어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국이 대국을 어떻게 보는가의 문제가 아니라, 때로는 한 국가가 다른 국가의 문화와 그 문화의 수용도를 어떻게 보는가 하는 문제와 연관됩니다.

제가 매우 흥미롭게 본 현상은, 우리가 묵고 있는 호텔 뒤에 일본 거리가 있어서 스시 식당이 많고, 직원들 다수가 일본어도 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는 중국이 일본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생각으로 이어집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역사적 이유로 인해 여전히 일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중국에서 기모노를 입고 사진을 찍으면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지만, 흥미롭게도 스시를 먹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같은 일본 문화인데 왜 의복과 음식에 대해 다르게 대하는지, 이는 실제로 매우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일본 거리, 스시 식당이 도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한 국가가 과연 어느 정도까지 다른 국가와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지, 이는 실제로 간단히 결론을 내릴 수 없는, 깊이 있게 토론할 가치가 있는 문제입니다.

세 번째 문제는 한성민 선생님께서 제기하신 중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에 관한 것입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지난 몇 년간 매우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중국에는 동남아시아연구회가 있는데, 제가 있는 샤먼대학에 설립되어 있으며, 등록 인원이 600명을 넘습니다. 하지만 이 숫자는 다소 부풀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남아시아 연구를 한다고 하지만, 단지 한두 편의 논문에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다룬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국가, 예를 들어 태국, 미얀마, 캄보디아를 볼 때, 실제로 이러한 대상국들을 장기적으로 연구하는 사람은 매우 적습니다. 중국에는 캄보디아사, 미얀마사, 라오스사와 같은 질 높은 저작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중국이 주목하고 있는 동남아시아 연구 분야 중에서 최근 몇 년간 특히 많은 것은 다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과 관련된 연구입니다. 둘째는 미국과 일본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동남아시아 간의 관계에 대한 연구입니다. 셋째는 글로벌 역사(Global History)나 초국가적 역사(Transnational History)의 시각에서 중국과 동남아시아 간의 물질적 · 문화적 교류를 탐구하는 연구로, 특히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급속히 성장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동남아시아 연구에 종사하는 중국인 연구자 수에 비해 동남아시아의 역사 연구에 전념하는 사람은 매우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제 추산에 따르면, 중국에서 발표되는 중국어 논문 중 역사 연구와 관련된 것은 전체의 10~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의 논문은 현황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교수님들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러한 시공을 초월한 역사적 현상들은 현재의 행동과 활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유용합니다. 저 역시 중국 연구자들이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자가 이렇게 적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저는 한국이 동남아시아에서 매우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연구자 수와 지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이 전혀 비례하지 않는 듯합니다. 시간이 허락된다면, 이에 대해 매우 흥미로운 논의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정 순일

가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가오 선생님이 한국 학회에 대해 코멘트 해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는 그렇게 많은 인구가 있는데, 동남아 지역에 대한 수준 높은 연구가 생각보다 조금 불충분하다는 말씀이 있으셔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지금 양 선생님부터 가오 선생님까지 기조 강연자, 그리고 발표자 선생님들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을 받아, 코멘테이터 선생님들, 실행위원 선생님들께서도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혹은 질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잠시 후부터 거수를 하시고 발언권을 얻으셔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그에 앞서 제가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동남아시아사 교육에 대해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선생님들께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역사교육과라는, 일본식으로 말하면 ‘문학부 역사학과’가 있을 것이고, ‘교육학부 역사교육과’가 있을 텐데, 한국은 그게 따로따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교육학부 역사교육과에 근무하는 교원인데, 그러다 보니 국가 레벨의 교육과정 개정에 대해 민감하게 받아들이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한국의 새로운 교육과정이 공표됐습니다. 2022년에 만들어졌다고 해서 ‘2022 개정 교육과정’이라고 부르는데, 역사과와 관련해 굉장히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가 기존에 있던 ‘동아시아사’라는 교과목이 조금 변화해 ‘동아시아 역사기행’, 즉 여행이라는 뜻입니다. ‘동아시아 역사기행’이라는 새로운 교과목으로 변화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교과목 이름만 바뀐 게 아니라 해당 교과목에서 다루는 대상 지역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의 동아시아사에서는 주로 한중일에 대해 다루었다면, 동아시아 역사기행에서는 이름은 똑같이 동아시아라 하지만, 동남아시아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서의 동아시아를 다루게 됩니다.

교과서 집필과 관련해 윤대영 선생님께서 쓰신 여러 책들을 참고해 썼을 텐데, 약간 비전문가들이 교과서 집필을 했다고 제가 듣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는 윤대영 선생님을 비롯해, 여러 선생님들이 지적해 주신 대로, 굉장히 미진한, 불충분한 수준이지만, 한국 시민들

의 동남아시아나 동남아시아사에 대해 배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인식이 대단히 높다는 것입니다. 니즈와 연구 상황의 괴리가 대단히 큰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윤대영 선생님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자들의 역할이 앞으로 더 기대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해보곤 합니다.

그러면 이제 코멘테이터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고자 하는데, 먼저 미타니 선생님이 거수해주셨기 때문에 선생님께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발언을 가능한 한 3분 이내로 짧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미타니 히로시 저는 사실확인 차원의 질문만 하고자 합니다. 윤 선생님은 한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 자리가 없어졌다고 말씀하셨는데, 동남아시아 연구, 즉 현대 연구는 상당히 있지 않은가요? 어느 정도로 현대 연구가 있는지, 그리고 역사 연구와의 관계는 어떤지,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 순일 네, 윤 선생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윤 대영 동남아 사회과학을 전문으로 하는 연구자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동남아 역사 연구, 특히 역사학과와 역사교육과에 국한을 시켜보면 한 분도 없습니다. 서울대 동양사학과에 독일 출신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고요. 그래서 그런지 후속 연구자가 배출되고 있지 못합니다. 제가 졸업한 서울대 동양사학과에는 베트남 연구를 계속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저 이후에 그런 상황입니다.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이 역사학계의 0.1% 이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연구의 쟁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저도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두터지처럼 땅을 파면서 연구하는 수준입니다. 저는 제 위치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할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정 순일 저한테는 굉장히 슬프게 들리기도 하고, 한국의 역사학자의 한 사람으로 큰 책임감을 느끼게 되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추가 말씀 있으신지요?

미타니 히로시 그 사람들의 숫자는 어느 정도 있나요?

윤 대영 한국에 ‘한국동남아연구소’ 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사회과학을 주로 하시는 분들이지만, 회원이 대략 7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2년에 한 번씩 교토대 동남아연구소와 연계해 학회를 개최하는 상황입니다.

정 순일 윤대영 선생님, 미타니 선생님 질문은 현대사를 전공하는 연구자가 얼마나 있는지를 물어보시는 것 같습니다.

미타니 히로시 우선 제가 여쭙본 것은 현재 동남아시아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어느 정

도인지, 그리고 어제 말씀하셨는데, 한국과 동남아시아 관계가 심화되었다는 최근 20년은 굉장히 짧은 기간입니다. 그러니 현대 연구를 하는 사람들이라도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게 두 번째 제 질문입니다.

윤 대영 현대사를 연구하는 사람은 현재 3명이 있고요. 20년간 한국 동남아 관계에 대해서는, 주로 사회과학을 하시는 분들이 관련 연구 내용을 메꾸고 있습니다.

정 순일 미타니 선생님 괜찮으십니까? 그러면 뒤이어서 파타짓 선생님께 마이크를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파타짓 감사합니다. 하나 확인하고자 합니다. 제가 아는 한에서, 서강대에 동남아시아연구소가 있는데, 거기에 ‘트랜스 (TRaNS)’ 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술저널이 있고, 태국의 연구자에게도, 동남아시아의 연구자에게도 투고 잡지로 인기가 있습니다. 서강대 동남아시아연구소를 선생님은 어떻게 평가하고 계신가요?

윤 대영 제가 이전에 서강대 동아연구소에서 근무했습니다. 이 기관의 학술지 ‘트랜스’가 처음 나왔을 때, 치앙마이대학에 가서 ‘트랜스’를 직접 소개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예를 들면 동아연구소에 현시내 선생님, 즉 태국 현대사를 공부하는 분이 있는데 다른 선생님들은 원래 동남아를 연구하시는 분들이 아니었습니다. 원래 중국을 연구하시든가, 다른 학문을 하는 분들이 동남아와 연결되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술 문화 분야로 특화돼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본질적인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하고는 좀 거리가 있는 상태입니다. 서강대학교에서 ‘트랜스’를 내면서 여러 가지 홍보를 많이 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긴 합니다.

정 순일 파타짓 선생님, 그리고 윤대영 선생님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조금만 더 보태드리면, 오히려 윤대영 선생님은 당사자시기 때문에 말씀하시기가 힘들 텐데, 저도 역사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서강대 동아연구소 같은 경우, 원래 중국 역사나 중국 미술사 혹은 동양 예술사를 하시는 분들이 동아연구소에 전임 교수로 취직하시면서, 연구 분야를 동남아까지 넓힌 케이스가 많습니다. 따라서 텍스트 기준으로 하면, 한문과 한자 텍스트를 바탕으로 할 수 있는, 가령 베트남을 연구하시는 전문 연구자들 관점에서 봤을 때는 하이 레벨이 아닌 수준으로 다른 지역까지 확장해 나가는 연구 패턴이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오해하는 것일 수도 있지만,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윤대영 선생님께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동남아시아 역사를 20대부터 체계적으로 훈련받아 전임 교수직에 착임하게 되면 더 높은 수준의 연구를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고, 학문 후속세대를 길러낼 수 있다, 대학원생을 길러낼 수 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을 한국 학계, 한국 대학은 소화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부분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계신 것으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코멘테이터 선생님, 혹시 거수를 해 주시면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오데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시오데 히로유키 교토대 시오데 히로유키라고 합니다. 귀중한 발표 감사합니다. 아까 종합토론 중에 정재현 선생님께서 가오엔제 선생님 발표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화교나 화인의 역사를 중국의 역사 혹은 중국인의 역사로 보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질문이 매우 흥미롭게 들려 잠시 생각했습니다. 제 자신이 일본인 이민의 역사를 연구해왔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미국 등 외국에 간 일본인 이민의 역사는 일본사인가’ 라는 질문이 당연히 제 입장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렇지 않다, 일본사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는 견해를 갖는 사람도 아마 많을 것입니다. 혹은 사실상 무시하는 일도 많다고 생각합니다. 미국 등 외국에 간 일본인 이민 역사가 일본사에서 제외되면, 거기에는 어떤 선택이 작용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국경선으로 역사를 구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일본 영토 안에서 일어난 일이 일본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럴까요? 그렇지 않은 견해를 가져도 좋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기조강연 중에 양쿠이쑹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국가의 역사, 즉 국사를 인류 사회 역사로 이어간다는 점에 한 가지 힌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자주 논의할 가치가 있는 문제라고 코멘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은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라는 주제인데, 사토 유키 선생님으로부터 동남아시아라는 개념으로는 전근대 이 지역의 역사, 즉 동남아시아도 동아시아와 마찬가지로 중국 영향이 강했다는 점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근대에 관해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가 분단되어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렇게 분단되었는가를 생각하면, 기본적으로 동남아시아는 역시 태국을 제외하고 서양 국가들에 의해 식민지화되었습니다. 동아시아는 그와 달리, 일본의 영향력이 매우 강한 상황으로 변해 갔고, 그래서 커다란 분단이 생겼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동남아시아 개념에 한계와 제약이 있다는 것이 사토 선생님 지적이었습니다만, 중요한 점은 동아시아라는 개념 자체가 역사적으로 만들어진 것이고, 역사적으로 제약된 것이라는 것을 다시 생각할 기회가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정 순일 시오데 선생님 감사합니다. 시오데 선생님 특정한 선생님께 질문하신 것은 아니시고, 코멘트나 감상을 나눠주신 것으로 이해해도 괜찮겠습니까? 지금 시오데 선생님이 해주신 것과 같은 방식으로 감상을 말씀해 주셔도 되고, 또 특정한 선생님께 구체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는 방식으로 발언해 주셔도 괜찮겠습니다. 혹시 다른 선생님 발언해 주시겠습니까? 가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가오 엔제 화교사가 중국사의 연장선상에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학술적 문제입니다. 실제로 상당히 오랫동안 중국 학자들은 화교사를 중국사의 일부로 여겨왔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술적 심리만이 아니라, 실제 학과 구분에서도 많은 중국

학자들이 화교화인사 연구를 하면서 자신의 학과가 중국사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는 실제로 청나라 말기부터 시작된 화교에 대한 기록이 모두 중국사의 일종의 연장선으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에 주목했냐면, 우리는 단지 중국인들이 다른 나라에 가서 그들의 생존 상황이 어떠했는지에만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여전히 중국 국사의 관점에서 이러한 화교들을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20년 동안 이러한 시각은 변화했습니다. 전통적으로 화교를 중국사의 연장선으로 보았던 학자들의 연구 발표가 거의 정체 상태에 빠졌고, 학술계는 이러한 문제들에 더 이상 관심을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신 현지에서 장기 거주하며 살아가는 화교들, 즉 방금 여러 선생님들께서 언급하신 것처럼, 그들이 자신이 살고 있는 국가와 모국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현지 정부와의 융합, 현지에서 담당하는 역할, 그들이 겪은 고통 등이 우리의 주요 관심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새로운 학문적 성장점으로, 대부분 중견·청년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 실제로 화교나 소수민족이 일본사나 중국사의 연장선인가를 논할 때, 우리는 여전히 전통적인 민족국가의 틀에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대부분의 소수민족은 초국경 민족으로 민족국가 개념을 초월합니다. 따라서 현재는 이를 ‘글로벌사’ 혹은 ‘초국가사’라는 이동하는 대상으로 연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가 민족국가의 틀에서 벗어났다고 생각합니다만, 물론 아직 갈 길이 멀죠. 하지만 어떻게 벗어나든 피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세 주체 간의 실제 관계입니다. 모국, 민족, 거주국, 이 셋이 어떻게 서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 영원한 논리이자 화제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제가 느낀 점입니다. 감사합니다.

정 순일 가오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히라야마 선생님 거수를 해 주셨는데요. 말씀 부탁드립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가나가와대학 히라야마입니다. 아까 선생님들께서 여러 가지 답변을 주셨는데, 제 이해가 괜찮은지 짚아질 선생님께 확인하고 싶습니다. 아까 답변에서 말씀하신 것은, 대나무 외교론을 만든 사람들은 이를 수단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요컨대 진심으로 옳은 것이라고 믿고 있던 것은 아니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모두 납득할 수 있다든가, 나라를 컨트롤 할 수 있다든가 하는 어디까지나 수단으로서 전략적으로 선택하거나, 만들어 내거나 한 것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일단 그것이 퍼져나가자, 이제 의심할 필요가 없는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타나 정착하게 되었다, 그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고 있다는 의견이라 느꼈습니다.

만약 이렇게 파악하고 계시다면, 저는 완전히 타당한 견해라 생각합니다. 대나무 외교론뿐만 아니라, 다양한 나라에서 볼 수 있는 각국의 내셔널리즘 이데올로기나 이론 등도, 일본도 그렇지만, 처음 만든 1세대는 일종의 ‘페이크(fake)’라는 것을 당연히 알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2세대 이후가 되면, 조금 종교적이 되어 버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깔

끔하고 알기 쉽고 보편 모델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이해가 맞을까요?

파타짓 네, 잘 정리해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문제 제기하고자 것은, 처음에 수단으로 만들어져 정착했지만, 모두가 계속 재생산한 결과, 진실로 이야기되고 연구자도 무비판적으로 그러한 담론을 정착시킨다는 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 순일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타짓 선생님 질문과 답변 감사드립니다. 송지용 선생님께서 거수해주셨기 때문에 마이크를 전해드립니다.

송 지용 가오 선생님 발표에 대해 간단히 보충 설명을 하겠습니다. 중국의 동남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상황에 대해서입니다. 최근 몇 년간 중국은 교육부 지도 하에 ‘지역국별 연구기지’ 라는 큰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이 지역국별 연구기지는 전국 대학 400여곳에 설치되었습니다. 이 중 동남아시아 지역 및 동남아시아국 연구와 관련된 것이 적어도 10여곳 될 것입니다. 이는 앞으로 동남아시아 지역 연구에 상당히 큰 추진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의 큰 동향은, 중국 대학의 외국어 학과가 큰 변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어 학과 내 지역국별학이 설립되었습니다. 지역국별학은 중국의 학과 분류상 원래 2급 학과로 분류될 예정이었으나, 그들의 노력으로 현재는 1급 학과로 승격되었습니다. 즉 우리의 역사학과 같은 급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동남아시아 외국어를 구사하고, 현재 동남아시아 지역 언어들을 가르치고 있는 많은 선생님들이 동남아시아 종합 연구로 전환할 것이고, 이 중 상당수가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로 전환할 것입니다. 앞으로 중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그리고 동남아시아 역사 연구가 상당히 큰 발전을 이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보충하고 싶었습니다.

정 순일 송 선생님 감사합니다. 중국 대학에서 보이는 지역별 연구 움직임이나 동남아시아 연구의 새로운 동향에 대해 말씀해주셔서 이해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특별히 질문을 하신 건 아니기 때문에, 곧바로 다른 분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시다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요시다 마사미 팻타짓 선생님과 지금 히라야마 선생님 답변에 대한 질문이랄까, 코멘트입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메이지 유신 후, 한국, 중국과 관계를 생각할 때 후쿠자와 유키치 등은 대외 팽창론을 주창했지만, 사상으로서도, 논리로서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반도에서 쿠데타가 일어났을 때는 후쿠자와 한 사람 안에서 논리가 바뀌기도 합니다. 일본은 영토가 좁고 인구가 많아 자원이 적다는 논의에는 반드시 단순화할 수 없는 부분이 깔려 있고, 이런 식으로 동시대의 대외 팽창론이 거론되는 것입니다. 혹은 일본은 옛부터 경제학적으로 제국주의임을 마르크스 경제학 등에서 설명해 왔습니다만,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밖으로 향하냐고 할 때, 지금 말한 것처럼 매우 복잡한 일본인의 사

고방식이 있는 것입니다. 이를 근거로 태국과 비교했을 때, 태국의 소국 의식이 사상사적으로 어떤 계보가 있는가 하는 것을 그냥 겉으로만 드러난 것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전근대든, 왕조든 주변 국가와의 변화 속 풍요로움 같은 것이 있을까 하는 점을, 일본과의 대비로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정 순일 요시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파타짓 선생님께서 답변을 해주셔야겠네요.

파타짓 지적 감사합니다. 분명히 그러한데, 단순화하는 것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 대나무 외교론과 소국 의식의 관계성을 지적하는 연구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 연구는 우선 그것을 지적한 점에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연구자가 계승해가거나, 저 스스로가 연구를 계속해 향후 과제로 삼고자 합니다.

정 순일 네, 파타짓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타니 선생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미타니 히로시 지금 주제와는 관계가 없지만, 저부터 논의라고 할지, 조금 큰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금 방콕에서 회의를 열고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에서 생각하듯 ‘일본 영토에 살고 있는 사람은 모두 일본인’이라는 느낌이 없습니다. 이곳에는 다양한 기원을 가진 사람들이 함께 살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어디서나 이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서 가오엔제 선생님께서 모국과 이민들, 그리고 거주국의 삼자관계가 중요하고 영원한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호스트 사회’입니다. 원래 거기 살던 사람들이 빠져 있습니다. 지금 저는 일본 이야기를 했지만, 일본 열도에 살고 있는 사람들 대부분이 자신은 일본인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90프로가 넘었을 것입니다. 즉, 일본은 원주민이 아직도 다수파로 살고 있는 사회입니다. 외국에서 온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 반대가 북아메리카로, 이곳에는 원래 살던 사람들이 거의 지워져 버렸고, 그 사회는 무너져 버렸습니다. 일본의 경우는 굳건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러한 양극단이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는 그 중간이라고 할지, 어느 쪽이 될까요?

그래서 문제는 당사자인 이민과 모국 정부, 또 출신국 정부와 거주국 정부와의 관계를 먼저 보는 것이 아니라, 우선 중요한 것은 이전부터 살았던 사람들의 호스트 사회입니다. 이 시점이 우선 첫째입니다. 여기에 이민이 더해져 양자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가 개입을 시작한 것은 최근 일로, 19세기에 이르러서일 것입니다. 정부측이 논의를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그 사회에 살고 있는 다수 인구, 즉 호스트 사회가 보이지 않게 됩니다. 이 역시 앞으로 세계인에게 놓인 커다란 문제이기에 주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정 순일 미타니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모국, 이민 그리고 거주국, 이 3자 관계가 중요하고, 원주민이라는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강하게 해 주셨는데, 이 건 선생님의 문제 제기로 이해하면 될까요? 이 부분에 대해 좀 더 논의를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이신지요? 선생님 어떻습니까?

미타니 히로시 여기서 무리하게 논의하자고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모처럼 이 동남아시아에서 회의를 하고 있으니, 국민국가라는 틀을 전제로만 논의하기는 아깝다는 말씀입니다. 일본은 이민에 대해 가장 엄격한 제한을 둔 사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상당히 불리한 입장에 놓인 면도 없지 않습니다.

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지만, 저는 가능한 한 받아들이는 쪽으로 벽을 엮게 하고, 한 번 받아들인 이상 원래 있던 사람들과 완전히 대등한 대우를 해 주어야 한다고 봅니다. 특히 교육이라는 것부터 시작하는데, 이것이 일본에는 결여되어 있습니다. 일본인의 감각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한 들여보내지 않고, 들여보내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극단적 사회입니다. 일본의 경우는 극단적이지만, 다른 사회, 예를 들면 유럽에서도 최근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민과 호스트 사회의 관계를 어떻게 컨트롤하느냐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정부가 어느 쪽 입장에 설지, 그리고 정부의 방식에 따라 문제가 더 커질 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 순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미타니 선생님께서 제기해 주신 문제에 대해서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다고 합니다.

히라야마 노보루 히라야마입니다. 방금 미타니 선생님 문제제기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황 인식에 일부 오류가 있으므로 지적해 두고 싶습니다. 이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은 일본 정부, 도쿄 중앙정부는 계속 그런 방침을 취하고 있지만,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20여 년 전부터 일본 국적 없이 외부에서 온 사람들, 혹은 계속 일본에 살고 있지만 일본 국적은 없는 사람들을 같은 동네에서 함께 사는 파트너로 인정하려는 움직임이 상당히 선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를 방해하는 것이 일본의 중앙정부입니다.

예를 들어, 지방 공무원, 시청과 같은 지역 관청 직원으로 일본 국적이 없어도 같은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일할 수 있도록 일본에서 처음 시작한 것이 가나가와현 가와사키시입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근무하는 가나가와대학이 있는 요코하마에는 중국계 분들을 포함해 다양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요코하마에서 함께 살아가 수 있도록 하고, 정부로부터 여러 방해를 받으면서도, 시 차원 또는 주민 차원에서 다양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도쿄는 거대한 예외입니다. 미타니 선생님도 그렇지만, 도쿄에 계속 살고 있으면 알기 어렵지만, 중앙 정부가 좀처럼 움직일 수 없는, 혹은 좀처럼 새로 바꿀 수 없는 것에 대해 이미 지역 사회에서는 움직임이 시작된 일이 드물지 않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미타니 선생님도 부디 상황 인식을 재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면, 미타니 선생님은 이민정책이 좀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앞으로 50년 안에 극적으로 변할 것이라 확신합니다. 인구가 점점 줄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10년 간, 저는 인구 변화가 사회 속에 사는 사람들 사고방식에 이렇게나 큰 변화를 주는구나 하고 여러 부분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7년간 살았던 후쿠오카현 후쿠오카시에서는 10여 년 전부

터 하카타역 주변 편의점에 외국인으로 생각되는 점원이 깜짝 놀랄 정도로 늘었습니다. 외국에서 온 분들이 없으면 지역 사회가 성립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라도 알 수 있는 상황이 됐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는 예전에 매우 힘든 일이나 더러운 일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했지만, 지금은 편의점이라는 누구나 아는 곳에서 다수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은 사실 지자체 차원에서는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국가, 즉 국회나 중앙정부의 방해를 어떻게 제거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여기 중세 역사를 연구하는 사토 유키 선생님이 계십니다. 이제 중앙정부에 의지해서만은 방법이 없다, 나라가 가라앉을 때 우리도 거기에 그대로 끌려 들어가서는 안된다, 각각의 지방이 살아남기 위해 독자적인 움직임을 시작하는, 그것이 고대에서 중세로의 변화였을 것입니다만, 비슷한 움직임이 앞으로 일본에서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나중에 사토 선생님 견해를 들었으면 합니다.

정 순일 히라야마 선생님 감사합니다. 참고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미타니 선생님과 히라야마 선생님 사이가 안 좋은 것인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히라야마 선생님은 미타니 연구실 출신입니다. 정재현 선생님 손을 들어주셨고, 한성민 선생님 들어주셨는데, 시간 관계상 한 2~3분 정도로 콤팩트하게 두 분께 부탁드립니다.

정 재현 히라야마 선생님께서 방금 이민자들이 늘어난다는 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굉장히 흥미로운 문제입니다. 한국도 아직 그렇게 이민자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점점 늘어날 것이고, 시간의 문제지, 언젠가는 일본도 마찬가지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민자들이 늘어날 텐데, 그렇게 되면 저희 역사학자들, 국사학자들 입장에서 국사의 의미가 바뀌어야 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느끼는 건데, 프랑스는 3분의 1 정도가 이민자 출신이라고 합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중세 시대에 일어났던 100년 전쟁이나 루이 14세가 도대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한국사에서도 예를 들면 임진왜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사를 새로 써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날 프랑스에서는 국사를 어떻게 쓰느냐 하면 이민자들이 들어오는 과정으로서 국사를 새로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 다양한 이민자들이 어떻게 들어오는가’, ‘정착해서 그 사람들은 어떠한 경험을 하는가’로 국사의 의미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당장 동아시아에서 저희가 직면한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향후 국사학자들에게 제기되는 문제가 아닐까 합니다. 대대로 여기 살지 않았던 이민자 출신들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가 제기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순일 정재현 선생님께서 이른바 다문화화하는 각국 상황과 새로운 역사 서술의 필요성, 요구되는 점에 대해 말씀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뒤이어 한성민 선생님 부탁드립니다.

한 성민 정재현 선생님과 비슷한 생각인데, 어느새 생활 속에서 외국에서 들어온 사람들을 만나는 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울에서도 편의점을 가면 대부분 종업원들이 외국인들이기 때문에, 다문화화를 인정할 거냐, 인정하지 않을 거냐, 그 선은 이미 넘었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이 되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국민 국가를 중심으로 해, 그것도 혈연을 바탕으로 한 단일민족 신화가 강한 동아시아 국가, 사회에서 ‘국민국가사’로 서술하는 건 솔직히 말하면 역사가들에게 가장 쉬운 방편입니다. 그 기준 하나로 이야기를 해버리면, 일관된 서술이 편하기 때문에 그 역사 서술이 아직도 힘을 발휘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국민이라는 기준을 변화시킨다면 역사에 다양한 서술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먼저 벗어나는 건 역사학자들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현실은 그냥 인정을 해야 합니다. 계속 신화를 이어나갈 수 없는 거잖아요?

정 순일 감사합니다. 지금 정재현 선생님, 한성민 선생님의 코멘트도 있었습니다만, 제 방식으로 이해를 하자면, 어제 양쿠이쑹 선생님 기조 강연에서 ‘국족주의’라는 말이 나와서 ‘번역을 잘못된 것 아닌가, 내셔널리즘을 ‘국족주의’라 번역을 하다니’ 이렇게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강연에서 미국 사회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서, 국민, 민족 중심이 아닌 ‘아메리카’라는 다문화화한 여러 루트를 가지는 민족들이 함께 살고 있는 사회를 상정한 개념으로 민족주의라는 말씀을 하셨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었거든요. 어제의 기조 강연과, 오늘 선생님들의 마지막 코멘트가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부러 ‘마지막’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제4세션의 토론을 정리해 주시는 말씀을 청해 듣고자 합니다. 와세다대 류지에 선생님께 말씀을 청해 듣겠습니다.

토 론 정 리

류 지에 감사드립니다. 선생님들의 활발한 논의에서 많은 점들이 제시되었습니다. 2~3개의 코멘트라 할까,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라는 주제를 설정했습니다. 이 주제는 이번 개최지가 방콕인 것과 관련 있습니다. 주제 설정을 통해 새로운 문제가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동남아시아와의 관계 속에서 대국 · 소국이 키워드로 주목받은 것도 그 중 하나입니다. 또 의식하지 않았지만, 이번 대화를 통해 대화가 대상으로 한 시기가 전쟁 전(역주: 패전 이전 시점, 이하 동일)부터 전후로, 의식하지 않은 채 이행해 왔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전후 역사, 특히 냉전 시대 역사에 대해 어떻게 대화하면 좋을지 아직 우리는 충분히 논의하지 않았습니다. 별로 준비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그 대화가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번엔 조금 깨달았습니다.

전후 역사가 대화의 대상이 되면 당연히 문제설정이 바뀝니다. 문제설정이 바

핀다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의 역사 대화에서 논의된 문제는 전쟁 전 아시아, 즉 태평양 전쟁까지 동아시아의 국제관계였습니다. 즉 이 시기 일본의 변모, 즉 일본의 행동이 이 지역에 준 임팩트 그 자체가 문제의 핵심, 논의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전후로 시점을 바꿀 경우, 특히 현재까지 시점을 넓혀가면 이 지역에 큰 임팩트를 주는 요소로 역시 중국 문제에 주목해야 합니다. 이렇게 될 때, 즉 전쟁 전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이 역사 대화를 하나의 연속된 역사 속에서 논의할 경우 어떻게 문제 설정을 하면 좋을지, 무엇을 문제로 삼을지, 이 지역을 어떻게 이해하고 생각할지 고민해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새로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이민 이야기가 있었습니다만, 만약 전후를 포함해 전쟁 전부터 전후까지 역사 전반을 논의 대상으로 한다면, 역시 대국이나 소국 같은 논리뿐만 아니라 양 선생님이 기조강연에서 특히 강조한 ‘인간의 논리에 근거한 역사상’, 이를 아시아에서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를 아시아의 역사가가 고민해 나가야 한다, 그리고 그것을 세계에 발신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 바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놓인 커다란 과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의 대화 속에서 의식한 것은 각국 역사가들이 다른 학문 공간, 혹은 생활 환경 속에서 어떻게 국경을 넘으려 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즉 국경을 넘어 역사 대화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이지만, 각국 역사가들이 직면하고 있는 국경과 그 내부의 상황은 모두 다릅니다. 이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미타니 선생님이 개회사에서, “외국과의 과거는 정치문제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그것은 과거 자체에 대한 인식보다 상대국 상황이나 행동, 국내 정치 문제에 얽혀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 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역사 인식 문제는 상대방 문제라기보다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고, 자국 안에서 매우 복잡한, 각기 다른 사정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역사가와 정치’, ‘역사가와 연구’, 혹은 ‘역사가와 역사’ 라는 문제도 우리의 대화 속에서 항상 의식해 나가야 할 문제입니다. 그리고 서로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도 다시금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전후의 역사, 혹은 냉전기 역사도 대화의 대상으로 한다면, 전쟁 전과 전후를 연속적으로 논의하는 하나의 틀을 고민할, 새로운 문제제기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 바입니다.

정 순일 류지에 선생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이제 제4세션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자유토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까, 시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많이 남지 않을까 걱정이 있었지만, 쓸 데 없는 걱정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토론에 열심히 참여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함께 손뼉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폐회사

송 지용

난카이대



[발언은 중국어. 번역 홍용일]

이틀간 긴장된 일정을 통해, 우리의 회의(제9회 국사들의 대화,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가 예정된 내용을 모두 마치고 원만하게 폐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회의 일정에 따라 제가 폐회 인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중국 난카이대학 송지용입니다. 실제로 이번 회의에는 많은 훌륭한 분들이 참석하셨고, 저명한 학자분들이 한자리에 모이셨습니다. 기조 보고든, 논문 발표든, 토론이든 모두 매우 훌륭했고 내용도 매우 풍성했습니다. 각 세션 좌장들께서 각 세션 논문 발표에 대해 매우 좋은 논평을 해주셨고, 류지에 선생님께서도 회의 토론에 대해 훌륭한 정리를 해주셔서 회의가 이미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습니다. 이제 제가 회의에 참가한 소감을 바탕으로 폐회 인사를 하고자 합니다.

첫째, 회의 준비가 매우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번 회의를 위해 실행위원회는 약 6개월 전부터 각종 준비를 시작했으며, 특히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이마니시 준코 님과 학술 지도를 맡아주신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 류지에 선생님 등께서 회의 개최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셨습니다. 이번 회의 개최지인 태국 쫄라롱껀대학도 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고, 자원봉사 학생들도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들에게 감사를 표합니다. 동시통역을 맡아주신 선생님들께서도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높은 수준의 통역을 제공해 주셨고 많은 수고를 해주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둘째, 학술적 성과가 풍부했습니다. 류지에 선생님께서 국사대화의 취지에 대해, 미타니 히로시 선생님께서는 이번 회의가 동아시아를 벗어나 태국에서 개최된 의의에 대해 이미 좋은 소개 말씀과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양 선생님의 기조 강연은 전후 중국의 대일 정책의 특징을 이해하는 데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주었고, 다른 국사 연구에도 좋은 참고가 되어 많은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회의에서 네 분 선생님들께서 논문 발표를 하였고, 여섯 분 선생님들께서 토론에 참여하셨으며, 내용이 매우 풍부했습니다. 이틀간 열띤 토론을 통해 학자들은 국사 연구의 의의, 국별과 지역 연구의 관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의 관계에 대해 더욱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중일한 삼국 국사 연구 발전에 긍정적인 심화와 촉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와 동시에, 여러 신진 연구자들이 이번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이 분들의 참여와 발표는 회의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었고, 국사 연구자 네트워크가 새롭게 확장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학술 연구의 심화와 연구자 네트워크의 확대는 모두 우리 회의가 이미 예정된 목표를 달성하고 원만한 성공을 거두었음을 보여줍니다.

셋째, 앞으로의 국사 연구 방향에 대해 여러 학자분들께서 다수의 지혜롭고 건설적인 의견을 제시해 주셨으며, 이는 국사 연구를 심화하는 데 많은 시사점을 주었습니다. 회의 후 재단과 전문가들이 앞으로의 국사 연구 계획을 더욱 완성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제9회 국사들의 대화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 연구회 폐회를 선언합니다. 감사합니다.

강연자 약력
(발표순)

■ 양 쿠이송 (楊奎松 / YANG Kuisong)

베이징대학 교수(정년퇴직), 화둥사범대학 자강학자(紫江學子). 1953년 북경에서 태어남. 1982년 중국인민대학 중국공산당 당사학과 졸업. 중국공산당 중앙당교 『당사연구』 편집위원, 중국인민대학 중국공산당 당사학과 강사, 중국과학원 근대사연구소 연구원, 베이징대학 역사학과 교수, 화둥사범대학 자강학자 및 겸임교수 등을 역임. 주요 저서로는 『中華人民共和國建國史研究』, 『毛澤東與莫斯科的恩怨』, 『中間地帶的革命: 中國革命的策略及其在國際背景下的演變』, 『西安事變新探: 張學良與中共關係研究』, 『國民黨的“聯共”與“反共”』, 『“忍不住”的關懷: 1949年前後的書生與政治』, 『“邊緣人”紀事——幾個“問題”小人物的悲劇故事』 등이 있음.

■ 탕신만콩 파타짓

(Pattajit TANGSINMUNKONG / พัชจิต ตั้งสินมunkong)

2010년 왕립쥘라롱껀대학 문학부 중국어전공 학사과정 졸업 후, 재중국 태국대사관에서 대사 비서로서 근무. 2012년 일본으로 와, 2016년 와세다대 사회과학연구과 석사과정, 2019년 와세다대 사회과학연구과 박사과정 졸업. 사회과학박사. 그 후, 와세다대학 사회과학연구과 조교, 강사를 거쳐, 2022년부터 현재까지 도쿄대 동양문화연구소 강사. 전문 분야는 동남아시아 현대사, 특히 동남아시아의 대외인식, 역사기술, 외교담론에 주목.

· 주요 저작: พัชจิต · 탄신만콘 (2024, 출판예정) 『タイ外交史を読み直す——「竹の外交論」からの脱却』 東京大学出版会, Pattajit Tangsinmunkong and Sato, Jin. (2024, in print). "Experiencing Development: Resistance and Adaptation of Thailand over Half a Century," Editorial Committee at Institute for Advanced Studies on Asia, the University of Tokyo, Indo-Pacific: History and International Relations in Emerging Asia. Springer Nature. พัชจิต · 탄신만콘 (2023) 「反日運動からジャパナイゼーションへ—1970 ~ 1990 年代のタイにおける対日認識転換の再検討—」 『東南アジア研究』 61 (1), 1-32.

■ 요시다 마스미 (吉田ますみ / YOSHIDA Masumi)

2019년 3월 도쿄대학원 인문사회계연구과 박사(문학). 2021년부터 미쓰이문고 사회경제사연구실 연구원. 전문분야는 일본근대사, 특히 경제문제를 둘러싼 정치외교와 기업 · 국가관계.

주요 저작: ① 「전간기 아시아의 해운질서: 자유통상과 제국의 논리(戰間期アジアの海運秩序: 自由通商と帝国の論理)」(박사논문), ② 「제1차세계대전 후의 일본 외무성과 ‘통상자유주의’ (第一次世界大戦後の日本外務省と『通商自由主義』)」 『東アジア近代史』 24호, 2020.6, ③ 「제국일본의 종전과 재외재산조사(帝国日本の終戦と在外財産調査)」 『三井文庫論叢』 56호, 2022.12

■ 윤 대영 (尹大榮 / YOUN Dae-yeong)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문학사(1995).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문학석사(1998). 파리7대학 역사학박사(2007).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성신여자대학교, 연세대학교, 인하대학교에서 동남아역사 관련 강의(2007-2022). 인하대학교와 서강대학교에서 연구교수와 조교수(2007-2017). 역사학회, 동양사학회, 한국동남아학회에서 연구이사. (사) 한국동남아연구소의 총무이사. 현재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 재직 중.

주요 저작: Dae-yeong YOUN, Les idées et les mouvements réformistes en Corée et au Viêt Nam, 1897-1911 : la tradition, le nouveau savoir à travers les nouveaux écrits, et leurs interactions, Editions universitaires européennes, (4 janvier) 2011, 804 p. ISBN-10: 6131540977 ISBN-13: 978-6131540974, YOUN Dae-yeong, "Between Korea and Vietnam: Kim Yung Kun' s "Ever-Changing and Impermanent" Life," Journal of Asian History (Harrassowitz Verlag, ISSN: 0021-910X), 50/2 (November 2016), pp. 235-278., YOUN Dae-yeong (尹大榮), "Between China and Southeast Asia: Young Korean Men and Nanyang in the 1910s (在中國與東南亞之間: 1910年代的韓裔青年與南洋)," Universitas: Monthly Review of Philosophy and Culture (哲學與文化月刊, 哲學與文化月刊雜誌社, TAIWAN, ISSN: 1015-8383), No. 526 (Vol. 45, no. 3) (Mar., 2018), pp. 27-43.

■가오 엔제 (高 艶傑 / GAO Yanjie)

샤먼대학교 국제관계학부/남양연구소 교수, 샤먼대학교 아세안 연구센터장. 중국동남아시아협회 부회장. 중화인민공화국 외교사학회 상무이사.

연구분야: 냉전시기 미국의 동남아세아 외교정책, 중국-인도네시아 관계사, 화교사 등.

연구프로젝트: 중국 교육부 인문사회과학 핵심 연구기지의 대형 프로젝트 《미국 정부의 ASEAN 인식의 역사적 추이와 이른바 인도-태평양 전략에 미치는 영향》, 중국 국가사회과학펀드 일반 프로젝트 “동남아시아 화교에 대한 미국의 심리전 연구 (1949-1965)”, 중국 국가 사회 과학 펀드 청소년 프로젝트 “미국의 인도네시아 영토 문제 관련 정책 연구 (1956 -1966)’ 등 10종 이상 프로젝트를 주관 중.

주요 저작: (논문) “냉전 초기 미국-인도네시아 관계중의 중국 요인에 대한 분석”, “국제 관계를 시야에 둔 화교 역사 쓰기: 역사적 맥락, 이론적 탐구 및 실천 경로”; 외교 “: 초기 냉전 인도네시아 관계(1949-1954)의 중국과 중국”, “인도네시아 중국어 신문이 중국-인도네시아 관계 연구에 가지는 역사적 가치” 외 20여 편.

(단행본) “냉전 시기(1949-1976) 미국의 인도네시아 영토 문제에 관한 정책 연구”(중국 사회 과학 출판사, 2024년 12월 출판 예정).

후기를 대신하여

김경태 전남대

제74회 SGRA 포럼 / 제9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와 동남아시아’는 2024년 8월 10일~11일, 태국 왕립쭈라롱껀대학교에서 개최되었다. 2020년 1월 필리핀에서의 대화 이후, 감염병 사태로 한동안 온라인에서 대화가 이루어졌고, 지난해(2023년) 8회가 오랜만에 일본에서 대면으로 개최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대면으로, 그리고 비교적 먼 곳에서 대화를 이어가게 되었다.

본 회의 전날 저녁 참가자들이 만나 저녁식사를 하며 대화를 시작했다. 참가자 중에는 근 5년 만에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누게 된 이들도 있었고, 처음 만나는 이들도 있었지만, 모두 비슷한 고민과 문제의식을 가진 연구자로서 화기에 애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다음날부터 시작될 “대화”를 기대하게 하였다. 전 유엔 사무차장 아카시 야스시(明石康) 선생의 환영사는 자국의 국사와 국사 간의 대화를 고민하는 연구자들에게 큰 용기를 주었다.

8월 10일, 화창한 날씨 속에 회의가 열렸다. 이번 대화는 총 다섯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첫째날은 기조강연과 발표로 두 세션을 진행하고, 다음날 이 내용을 기반으로 한 제3세션의 지정토론, 그리고 제4세션의 자유토론, 마지막으로 앞으로의 국사들의 대화를 고민하는 제5세션이 준비되었다. 첫번째 세션은 류지에 선생(와세다대)이 진행하였다. 우선 이번 대화의 취지를 설명하였다. 이어서 국사대화를 처음 시작할 때와 국제정세가 크게 변한 현 시점에서 새로운 장소와 주제로 대화를 나누게 되었다는 것은 의미심장하며, 이를 기회로 앞으로의 대화도 모색하자고 하였다.

이어서 미타니 히로시 선생(도쿄대)의 개회사가 있었다. 선생은 동북아시아 삼국의 관계에 영향을 준 현대사의 궤적을 서로 이해하고 공유한다면 역사 대화는 언제나 안정적으로 될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한중일 세 나라의 동남아시아에 대한 연구의 차이점에 대해 국사학자로서의 의문점을 가지고 있는데, 이번 대화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면서 - 이 새로운 지역에서 이루어진 유대감, 대립에 주목하여 - 우리들의 유대감을 어떻게 심화할지 생각해보자고 했다.

양 웨이송 선생(베이징대, 화동사범대)의 기조강연은 “포스트 콜로니얼 시대의 ‘내셔널리즘’ 충돌의 원인을 둘러싼 고찰-마오쩌둥 시대의 영토 분쟁에 관한 전략 변화를 단서로”라는 주제였다. 요컨대 마오를 비롯한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는 자신의 재량으로 외교관계의 갈등을 봉합(혹은 무마)하는 정치력을 발휘했으나, 이후 그와 다른 성향의 지도자들은 그러한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고(혹은 못했고), 때로 포퓰리즘을 중앙에서 활용하기도 했으나, 오히려 반대로 영향을 받는 주객전도 상황이 나타나기도 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 상황은 마오를 비롯한 지도자들이 행한 정책의 그림자이기도 하다는 평가로 생각되

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서로의 역사를 공감하고 이해하기 위해 역사 연구자들이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 제언했다. 요컨대 어떠한 민족적이고 국가적인 ‘역사 인식’ 이든지 그 제한성을 가진다는 것을 인정하고, 인류 사회의 역사 과정 속에서 민족과 국가의 역사를 자리매김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다음으로 한중일 연구자 및 태국 출신 태국 연구자의 주제발표 세션이었다. 남기정 선생(서울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파타짓 탕신만콩 (도쿄대)의 “대나무 외교론’에서의 대국관계와 소국의식”은 외교에 능숙한 나라로 알려져 있으며 이를 자부하는 태국 외교의 역사적 사실 관계를 다시 탐구하고, 더불어 그 이면에 숨겨진 ‘소국의식’이 지니고 있는 문제점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소국(관)’, ‘소중화의식’ 등, 한국사에서 사용되는 용어와 유사하여 친근감을 느꼈으나, 그와는 상당히 다른 맥락에서 사용된 용어였기에 매우 흥미로웠다. 태국의 과거와 현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며 한편으로, 한국의 “평화를 사랑하는 백의의 민족”이라는 관념과의 유사성도 떠올리게 되었다.

다음으로 세 나라 연구자의 주제 발표가 이어졌다. 요시다 마스미 선생(미쓰이문고)의 “일본 근대사와 동남아시아-1930년대의 평가를 둘러싸고-”는 전후 일본 근대사 연구에서 일본과 동남아시아 관계가 어떻게 이야기되었는지에 대해 당대의 시대배경과 학계의 조류를 소개해주었다.

윤대영 선생(서울대)의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는 한반도와 동남아시아의 관계를 고대 해초 시기부터 고려, 조선을 거쳐 근대 한국에 이르기까지 통시대적으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의 동남아시아사 연구의 다소 아쉬운 현황에 대해 지적해주었다.

가오 옌제 선생(샤먼대)의 “화교 사무와 외교: 1959년 인도네시아 화인 탄압에 대한 중국 정부의 대응”은 1959년부터 1961년 사이 인도네시아에서 불거진 중국계 주민에 대한 탄압과 이에 대응한 중국의 외교정책을 논하였는데, 가오 선생은 중국은 강경한 자세로 대응하면서도 양국의 우호 관계발전을 위한 수요에 반응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번 대화에서는 중국 학계 권위자의 기조강연과 태국 출신 연구자의 발표가 포함되었다. 이는 새로운 시도였다. 국사학계의 권위자로부터 중국의 역사 인식 내지 서술의 특징을 들어보는 기회였으며,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태국의 자국사 인식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였다.

이렇게 첫날의 두 세션을 마치고 야외에 마련된 식사 장소에서 맛있는 태국 음식으로 점심식사를 했다. 아시아미래회의 환영행사에 이어진 스탠딩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전날에 이어 화기애애한 대화가 이루어졌다. 모두가 그날 일정을 마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원격지에서 이루어진 행사의 ‘장점’이었다. 지정토론자들은 기조강연과 발표문을 듣고 생각을 정리하여 작성한 토론문을 이날 밤까지 통역자에게 전달했고, 이는 다음날의 토론을 원활하게 진행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8월 11일, 세번째 세션은 평하오 선생(오사카 공립대)의 사회로 진행된 지정토론이었다. 한국에서는 정재현 선생(목포대)과 한성민 선생(고려대), 일본에서는 사토 유키 선생(릿쿄대)과 히라야마 노보루 선생(가나가와대), 중국에서는 정제시 선생(원저우대)과 정 정 선생(효고현립대)이 토론자로 나섰다.

토론의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았다.

“역사학자가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이나 교육자로서 현장에서 역사교육을 정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 “중일관계 변화 원인에 대한 개인적 생각으로, 정치의 영향을 받는 것은 중국만이 아니라는 것, 교육을 통해 역사 인식을 고양해야 한다는 것”, “소국의식, 자국보호의식 - 등에 대한 원리를 이해할 수 있어야. 극복할 수 있을 것” (정정)

“과거 원한을 잊고 좋은 마음으로 소통하자고 한 장제스의 항일전쟁 승리연설” “인도네시아 화인탄압 전, 이미 화인 배척사태가 발발했었음. 필리핀 및 인도네시아의 이전 시대의 사례. 탄압의 패턴이 다르지만 유사한 점도 있다”, “중국의 반응은 문제가 발생한 시점에 국한하지 말고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본다면 새로운 평가가 나오지 않을까”, “화교의 입장에서 살피볼 필요가 있다” (정지예시)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는 베트남의 비중이 높은 것이 특징인데, 전근대 관계도 주로 베트남 관계를 소개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베트남 전쟁 참전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한국 연구자, 자국사가 이루어지는 무대, 혹은 자국민만을 대상, 동남아시아인은 타자화하는 경향”, “일본의 동남아연구가 식민주의적, 오리엔탈리즘적 시각이 깔린 적이 있었던 것으로 보임, 전후 일본 학계는 여기서 탈피하기 위해 어떤 노력 기울였는지” (정재현)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 교육의 한계 지적. 새롭게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음.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한중일을 어떻게 생각하지는 소략한 것은 아쉬움”, “동병상련의 관심이 한국의 베트남 파병에 영향을 주었을 것. 이에 대해 한국의 현대사에서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동남아시아에 있던 B급, C급 전범들에 대한 터부시 경향의 문제”, “인도네시아의 화인 탄압은 내부의 정치적 문제가 아닌지. 수하르토 정권 탈취 이후 공산주의자 탄압과정에서도 화인 탄압 사례가 있었다는 것” (한성민)

“산의 경치는 멀리서 보는 것이 좋다는 입장에서 코멘트”, “근대 이전 동아시아-동남아시아의 교류에서 중국인 커뮤니티가 형성되었고, 중국을 통해 일본은 얼굴을 보지 못하는 이웃인 동남아시아를 접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생각해 봐야”, “조선왕조의 동남아시아 관심은 중국에 조공하는 이웃나라로서의 관심이었고 중국과 관계가 해체되면서 동남아 관심이 후퇴되는 것, 피식민지 위기에서 새롭게 재편된다는 점이 흥미로웠음”, “소국의식을 외교정책론으로 이야기했는지 문화적 콤플렉스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사토 유키)

“많은 정보를 미디어에서 얻는 현재, 어떻게 정보를 얻고 확산되는가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90년대 우익적 대중서가 등장하는데, 왜 이런 것들이 생겨났을까. 중국과 한국에서도 이러한 사례가 있는가” “‘소국의식’ = 큰 것과 연결되고 싶다는 의지도 포함된다고 생각”, “일본에서 ‘성지’의 출현 (기독교, 다이쇼 시대 니치렌, 이후 천황가의 관계 장소) 은, 작은 일본이 커다란 구미로 연결되고 싶다는 의지의 표현 아닌가. 네가티브한 자기인식의 표출 중 하나로서 ‘소국의식’ 과 연관된다고 생각” (히라야마 노보루)

여섯 분의 지정토론자들은 각자의 전공분야에 입각하여 깊은 고민이 담긴 진솔하고 날카로운 질문을 해주었다.

네번째 세션은 자유토론이었다. 정순일 선생(고려대)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우선 지정토론자의 질문에 대한 기초강연자와 발표자의 간략한 답변으로 시작하여, 자유로운 토론의 시간을 가졌다. 제의식이 질문으로, 질문이 발전되고 공감대를 얻는 새로운 문제의식으로 이어졌다. 질문과 답변이 수시로 교차했음에도 대화는 상당히 자연스럽게 진행되었고, 이는 오랜 기간 함께 해온 통역자들의 덕이었다. 오랜 기간 함께 대화를 했던 참가자들, 그리고 문제의식을 공유하는 새로운 참가자들이 함께 했기에, 효율적인 토론이 가능했다.

기초강연, 발표, 토론자들의 코멘트 중 인상 깊은 것 위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장제스는 민족주의자로서 (일본 등에 반감), 마오 계급투쟁적 면에서 (외교는 인민의 외교) 양국 관계(사)에 접근했다”, “균형에 또 다른 면이 있다는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균형이 반드시 옳은 길은 아닐 수 있었다. 문화적 콤플렉스 때문에 많은 것들에 눈감아도 되는지, 내세워도 되는지 의문”, “완전한 (광역의) 지역적 역사와 각국의 역사 사이의 상호관계에 대한 고민”, “동남아가 보는 한중일은 어떠했을까. 인도네시아는 가장 마지막에 중국과 수교. 중국에 대해 회의심, 공포감이 있지 않았을까”,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연구 활발한 편으로 보이나, 부풀려진 면이 있다. 장기적으로 주목하고 연구하는 학자는 적은 편”, “상호인식의 관점에서 베트남에서 한국인식에 대한 자료를 구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다. 한국에서 공부하고 돌아간 베트남 연구자들 많은데, 이런 연구를 해주는 편이 적절하지 않을까”, “화교, 화인의 역사가 중국의 역사인가 아닌가는 매우 흥미로운 질문으로 생각. 일본인 이민자의 역사는 일본사인가. 국가사-인류사의 확대라는 면에서 중요한 논점으로 생각”, “(소국의식 등을) 만든 사람은 수단으로 개발한 것인데, 그것이 확산 정착되어 사실처럼 의심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지게 된 것. 여러 나라에서 볼 수 있는 민족주의, 이데올로기, 유사하다고 생각. 처음에는 페이크라는 것을 일지만 세대가 넘어가면 종교적이 되기도 한다”, “이민과 역사. 국사학자들 입장에서 (이민자들에게도 의미 있는 역사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국사의 의미가 바뀌어야 할 것”, “국민이라는 기준을 변화시키면 다양한 서술 가능할 것. 그것이 가능하려면 역사학자들이 해야 할 것”

이와 같은 열띤 토론을 마치고, 류지에 선생이 논점을 정리하였다. 요컨대 이번 테마를 선정하면서, 새로운 발견이 있었다. 이번 키워드 대국, 소국. 주목받았는데, 시기가 전전에서 전후로 자연스럽게 이동했다. 전후 역사로 오면, 문제설정이 달라진다. 전전-전후 연속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문제로 설정할 것인지 생각해야만 할 것이며, 각자 다른 공간에서 어떻게 국경을 넘어서려 하고 있는지, 국경을 초월한 역사대화는 우리들의 일이나, 각국 역사가들이 각국 안에서 직면하고 있는 국경의 문제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그리고 역사인식 문제는 자국내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제5세션은 본 주제에서 조금 벗어나 시오데 히로유키 선생(교토대)의 사회로 앞으로의 국사들의 대화의 방향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중국의 평하오 선생, 한국의 정순일 선생, 일본의 무라 카즈아키 선생(도쿄대)이 차례로 의견을 제안했다. 공통되는 의견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앞으로 지속해야 한다는

것이였다.

“은둔형” 국사연구자를 한 사람이라도 많이 끌어내자는 미타니 선생의 취지를 앞으로도 고민하자는 히라야마 선생의 의견, 형식을 조금 바꾸어 연구자들이 함께 답사하고 그곳에서 서로의 거리를 더욱 좁힐 수 있는 스몰토크를 하는 자리를 만들자는 한성민 선생의 의견도 경청해야 마땅할 코멘트였다.

마지막으로 송지용 선생(난카이대)이 폐회 인사를 건넸다. 첫번째로 회의준비와 진행 매우 성공적이였다. 아쓰미 재단의 이마니시 준코 상무이사, 미타니 히로시 선생, 류지에 선생, 태국 쯔라롱콘대학에 감사하며, 동시 통역과 스태프들에게도 감사를 표한다는 것. 두번째, 학술적 성과가 풍성하다는 것. 마지막으로 향후 국사연구 방향에 대해 지혜롭고 건설적 의견을 들었다는 것, 요컨대 국사연구 깊이 더해가는 데 시사점이 있으며, 회의 이후 재단과 참가자들이 머리 맞대고 밝은 미래 설계할 것 믿어 의심치 않는다는 말씀이였다.

마지막의 마지막으로, 국사들의 대화의 성과를 확산하기 위한 새로운 작업 중 하나인 교재화 프로젝트의 현 상황을 보고하는 자리가 있었다. 새로운 미디어를 활용한 작업은 큰 기대를 갖게 해주었다.

국사들의 대화가 대면 회의와 코로나 시기 온라인 회의를 거치며 9회에 이르렀다. 개인적으로 장소와 주제를 상당히 바꾸는 새로운 시도를 감행한 이번 대화는 기억에 남는 점이 특히 많았다. 우선 한국의 동남아시아 연구가 많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절감했다. 일본, 중국에 비해 연구자가 적은 것은 당연할 수도 있겠지만, 연구 주제가 다양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학계 차원의 고민도 필요할 것이다. 다양한 연구, 시도를 포용해주는 분위기가 국사 내부에서부터 만들어진다면, 나라들 간의 대화도 보다 잘 이루어지지 않을까. 한 사람의 국사연구자로서 생각을 하게 되었다.

또한 지금까지의 국사 대화에서도 느낀 바지만, 연구자의 폭이 더 넓어진 이번 대화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이 나와 비슷한 고민 (정치와 학문, 사회가 바라는 학문과 나의 연구 사이에서의 고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용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한편, 화인, 화교 배척사건은 동남아시아에서만 일어났던 일은 아니다. (화교 사회가 동남아에 아주 크게 형성된 것은 사실이나) 중국인들이 다수 진출한 다른 지역에서도 그들에 대한 배척 사건이 일어났었다는 사실도 환기해야 할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도 중국인 배척 사건이 일어났으며, 중국에서는 조선인에 대한 배척사건도 있었다. 이와 같이 각 국에서 일어난 이민자 커뮤니티에 대한 배척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 함께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둘째 날 저녁. 국사대화 참가자 대부분이 자신의 과제를 마친 후의 한결 홀가분한 마음으로 아름다운 야외 음식점에서 자유롭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학술적인 대화만큼, 얼굴을 맞대고, 어깨의 짐을 살짝 내려놓고, 서로의 속내를 교환하는 사적인 대화도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자리였다.

(제7회 아시아미래회의 원탁회의 / 제9회 국사들의 대화 보고: 김경태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에서 전재)

■ 김경태 Kim Kyongtae

대한민국 포항시 출신. 한국사 전공.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 박사과정 중인 2010 년~2011 년 도쿄 대학 대학원 일본문화연구전공(일본사학) 외국인 연구생 자격으로 유학. 2014 년 고려대학교 한국사학과에서 박사학위 취득. 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고려대학교 인문역량강화사업단 연구교수를 거쳐 현재 전남대학교 역사교육과 부교수로 재직 중. 전쟁의 파괴적인 본 성과, 전쟁이 초래한 황무지에서도 끊임없이 자라나는 평화 사이에 존재한 역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주요 저작 : 허세와 타협 - 임진왜란을 둘러싼 삼국의 협상 - (동북아역사재단, 2019).



제 74 회 SGRA 포럼 제 9 회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참가자 목록

	성명 (알파벳)	성명 (일본어)	성명 (한국어)	성명 (중국어)	소속 (한국어)
기조강연					
1	YANG Kuisong	楊 奎松	양 쿠이송	杨 奎松	베이징대 · 화둥사범대
발표자					
2	GAO Yanjie	高 艶傑	가오 옌제	高 艳杰	샤먼대
3	Pattajit TANGSINMUNKONG (Jay)	タンシンマンコン・パッタジット	파타짓 탕신만콩	陈玉珍	도쿄대
4	YOSHIDA Masumi	吉田 ますみ	요시다 마스미	吉田纯巳	미쓰이문고
5	YOUN Dae-yeong	尹 大榮	윤 대영	尹 大荣	서울대
지정토론자					
6	SATO Yuki	佐藤 雄基	사토 유키	佐藤雄基	릿쿄대
7	HIRAYAMA Noboru	平山 昇	히라야마 노보루	平山 升	가나가와대
8	ZHENG Jiexi	鄭 潔西	정 제시	郑 洁西	원저우대
9	ZHENG Cheng	鄭 成	정 정	郑 成	효고현립대
10	HAN Sungmin	韓 成敏	한 성민	韩 成敏	고려대
11	JEOUNG Jaehyun	鄭 栽賢	정 재현	郑 栽贤	목포대
실행위원					
12	Chen Lu	陳 璐	첸 루	陈 璐	와세다대
13	Chong Soonil	鄭 淳一	정 순일	郑 淳一	고려대
14	Kim Kyongtae	金 キョンテ	김 경태	金 喆泰	전남대
15	Liu Jie	劉 傑	류 지에	刘 杰	와세다대
16	Mitani Hiroshi	三谷 博	미타니 히로시	三谷 博	도쿄대 명예교수
17	MURA Kazuaki	村 和明	무라 가즈아키	村 和明	도쿄대
18	Nam Kijeong	南 基正	남 기정	南 基正	서울대
19	Peng Hao	彭 浩	펑 하오	彭 浩	오사카공립대
20	SHIODE Hiroyuki	塩出浩之	시오데 히로유키	盐出浩之	교토대
21	Song Zhiyong	宋 志勇	송 지용	宋 志勇	난카이대
동시통역					
22	Ding Li	丁 莉	딩 리	丁 莉	베이징대
23	Song Gang	宋 剛	송 강	宋 剛	베이징외국어대
24	Lee Hyeri	李 ヘリ	이 헤리	李 惠利	한국외대
25	Ahn Younghee	安 ヨンヒ	안 영희	安 暎姫	한국외대
26	Jin Danshi	金 丹実	김 단실	金 丹实	통번역자
27	Piao Xian	朴 賢	박 현	朴 贤	교토대
번역					
28	Hong Yongil	洪 龍日	홍 용일	洪 龙日	도쿄대
29	Noh Joo-eun	ノジュウン	노 주은	盧 珠璉	—
30	Yu Ning	于 寧	유 닝	于 宁	도쿄대
31	Yun Jae-un	尹 在彦	윤 재언	尹 在彦	도요대
사무국					
32	Imanishi Junko	今西淳子	이마니시 준코	今西淳子	아쓰미재단
33	Nagai Ayumi	長井亜弓	나가이 아유미	长井亚弓	아쓰미재단
34	Miyake Aya	三宅 綾	미야케 아야	三宅 綾	아쓰미재단

SGRA レポート バックナンバーのご案内

- SGRA レポート01 設立記念講演録 「21世紀の日本とアジア」 船橋洋一 2001.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2 CISV 国際シンポジウ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への挑戦：多様性の中に調和を求めて」
今西淳子、高 偉俊、F. マキト、金 雄熙、李 來賛 2001. 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技術の創造」 畑村洋太郎 2001.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04 第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の皆さんへ」 関 啓子、L. ビッヒラー、高 熙卓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5 第2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なかの新しい東アジア：経済協力をどう考えるべきか」
平川 均、F. マキト、李 鋼哲 200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6 投稿 「今日の留学」「はじめの一步」 工藤正司 今西淳子 2001.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07 第3回フォーラム講演録 「共生時代のエネルギーを考える：ライフスタイルからの工夫」
木村建一、D. パート、高 偉俊 2001. 10. 10 発行
- SGRA レポート08 第4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 教育革命：ITは教育をどう変えるか」
臼井建彦、西野篤夫、V. コストブ、F. マキト、J. スリスマンティオ、蔣 惠玲、楊 接期、
李 來賛、斎藤信男 2002. 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09 第5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と民族主義：対話と共生をキーワードに」
ペマ・ギャルポ、林 泉忠 2002. 2. 28 発行
- SGRA レポート10 第6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とイスラーム：文明間の対話のために」
S. ギュレチ、板垣雄三 200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11 投稿 「中国はなぜWTOに加盟したのか」 金香海 2002. 7. 8 発行
- SGRA レポート12 第7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環境診断：地球の砂漠化を考える」
建石隆太郎、B. プレンサイン 2002.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13 投稿 「経済特区：フィリピンの視点から」 F. マキト 2002. 12. 12 発行
- SGRA レポート14 第8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グローバル化の中の新しい東アジア」 + 宮澤喜一元総理大臣をお迎えして
フリーディスカッション
平川 均、李 鎮奎、ガト・アルヤ・プートゥラ、孟 健軍、B. ヴィリエガス 日本語版2003. 1. 31 発行、
韓国語版2003. 3. 31 発行、中国語版2003. 5. 30 発行、英語版2003. 3. 6 発行
- SGRA レポート15 投稿 「中国における行政訴訟—請求と処理状況に対する考察—」 呉東鎬 2003. 1. 31 発行
- SGRA レポート16 第9回フォーラム講演録 「情報化と教育」 苑 復傑、遊間和子 2003.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7 第10回フォーラム講演録 「21世紀の世界安全保障と東アジア」
白石 隆、南 基正、李 恩民、村田晃嗣 日本語版2003. 3. 30 発行、英語版2003. 6. 6 発行
- SGRA レポート18 第11回フォーラム講演録 「地球市民研究：国境を越える取り組み」 高橋 甫、貫戸朋子 2003. 8. 30 発行
- SGRA レポート19 投稿 「海軍の誕生と近代日本—幕末期海軍建設の再検討と『海軍革命』の仮説」 朴 榮濬
2003. 12. 4 発行

- SGRA レポート 20 第1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環境問題と国際協力：C O P 3 の目標は実現可能か」
外岡豊、李海峰、鄭成春、高偉俊 2004. 3.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21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 「アジア共同体構築に向けての日本及び韓国の役割について」2004.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2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民族紛争－どうして起こるのか どう解決するか」 明石康 2004.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23 第1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宮島喬、イコ・プラムティオノ 200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24 投稿 「1945年のモンゴル人民共和国の中国に対する援助：その評価の歴史」 フスレ 2004. 10.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25 第14 回フォーラム講演録 「国境を越えるE-Learning」
斎藤信男、福田収一、渡辺吉裕、F. マキト、金 雄熙 2005. 3.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26 第1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この夏、東京の電気は大丈夫？」 中上英俊、高 偉俊 2005. 1. 24 発行
- SGRA レポート 27 第1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軍事同盟の過去・現在・未来」
竹田いさみ、R. エルドリッチ、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8 第1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 地球市民の義務教育-」
宮島 喬、ヤマグチ・アナ・エリーザ、朴 校熙、小林宏美 2005. 7.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29 第18 回フォーラム・第4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韓流・日流：東アジア地域協力におけるソフトパワー」 李 鎮奎、林 夏生、金 智龍、道上尚史、木宮正史、李 元徳、金 雄熙 2005. 5.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0 第19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文化再考－自由と市民社会をキーワードに－」
宮崎法子、東島 誠 2005. 1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1 第20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雁はまだ飛んでいるか」
平川 均、渡辺利夫、トラン・ヴァン・トウ、範 建亭、白 寅秀、エンクバヤル・シャグダル、F. マキト
2006. 2.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2 第2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は外国人をどう受け入れるべきか－留学生－」
横田雅弘、白石勝己、鄭仁豪、カンピラパーブ・スネート、王雪萍、黒田一雄、大塚晶、徐向東、
角田英一 2006. 4.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3 第2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戦後和解プロセスの研究」 小菅信子、李 恩民 2006. 7.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4 第2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日本人と宗教：宗教って何なの？」
島蘭 進、ノルマン・ヘイヴンズ、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ミラ・ゾンターク、
セリム・ユジェル・ギュレチ 200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5 第24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ごみ処理と国境を越える資源循環～私が分別したごみはどこへ行くの？～」
鈴木進一、間宮 尚、李 海峰、中西 徹、外岡 豊 2007. 3.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6 第2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ITは教育を強化できるか」
高橋富士信、藤谷哲、楊接期、江蘇蘇 2007.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37 第1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 「パネルディスカッション『若者の未来と日本語』」
池崎美代子、武田春仁、張 潤北、徐 向東、孫 建軍、朴 貞姫 2007. 6.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38 第6 回日韓フォーラム in 葉山講演録 「親日・反日・克日：多様化する韓国の対日観」
金 範洙、趙 寛子、玄 大松、小針 進、南 基正 2007. 8. 31 発行
- SGRA レポート 39 第2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における日本思想史～私たちの出会いと将来～」
黒住 真、韓 東育、趙 寛子、林 少陽、孫 軍悦 2007.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0 第2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アジアにおける外来種問題～ひとの生活との関わりを考える～」
多紀保彦、加納光樹、プラチヤー・ムシカシントーン、今西淳子 2008. 5.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1 第2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いのちの尊厳と宗教の役割」
島蘭進、秋葉悦子、井上ウイマラ、大谷いづみ、ランジャナ・ムコパディヤヤー 2008. 3.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2 第2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新疆講演録 「黄土高原緑化協力の15 年—無理解と失敗から相互理解と信頼へ—」 高見邦雄 日本語版、中国語版 2008. 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43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主義」 平川均 2008. 3. 1 発行
- SGRA レポート 44 第29 回フォーラム講演録「広告と社会の複雑な関係」 関沢 英彦、徐 向東、オリガ・ホメンコ
2008. 6.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45 第30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教育における『負け組』をどう考えるか～
日本、中国、シンガポール～」 佐藤香、山口真美、シム・チュン・キャット 2008.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46 第31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水田から油田へ：日本のエネルギー供給、食糧安全と地域の活性化」
東城清秀、田村啓二、外岡 豊 2009.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47 第32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オリンピックと東アジアの平和繁栄」
清水 論、池田慎太郎、朴 榮濬、劉傑、南 基正 2008. 8. 8 発行
- SGRA レポート 48 第3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延辺&北京講演録 「一燈やがて万燈となる如く—
アジアの留学生と生活を共にした協会の50 年」 工藤正司 日本語版、中国語版 2009. 4.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49 第33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経済統合が格差を縮めるか」
東 茂樹、平川 均、ド・マン・ホーン、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09. 6.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0 第8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 「日韓の東アジア地域構想と中国観」
平川 均、孫 洌、川島 真、金 湘培、李 鋼哲 日本語版、韓国語 Web 版 2009.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1 第35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テレビゲームが子どもの成長に与える影響を考える」
大多和直樹、佐々木 敏、渋谷明子、ユ・ティ・ルイン、江 蘇蘇 2009. 11.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2 第36 回フォーラム講演録 「東アジアの市民社会と21 世紀の課題」
宮島 喬、都築 勉、高 熙卓、中西 徹、林 泉忠、ブ・ティ・ミン・チイ、
劉 傑、孫 軍悦 2010. 3.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53 第4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上海講演録 「世界的課題に向けていま若者ができること～
TABLE FOR TWO～」 近藤正晃ジェームス 2010. 4.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4 第37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エリート教育は国に『希望』をもたらすか：
東アジアのエリート高校教育の現状と課題」 玄田有史 シム・チュンキャット
金 範洙 張 健 2010.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5 第38 回フォーラム講演録 「Better City, Better Life ～東アジアにおける都市・建築のエネルギー事情とライフスタイル～」木村建一、高 偉俊、Mochamad Donny Koerniawan、Max Maquito、Pham Van Quan、葉 文昌、Supreedee Rittironk、郭 榮珠、王 劍宏、福田展淳 2010. 1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6 第5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中国の環境問題と日中民間協力」第一部（北京）：「北京の水問題を中心に」高見邦雄、汪 敏、張 昌玉 第二部（フフホト）：「地下資源開発を中心に」高見邦雄、オンドロナ、ブレンサイン 2011.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57 第39 回フォーラム講演録 「ポスト社会主義時代における宗教の復興」井上まどか、ティムール・ダダバエフ、ゾンターク・ミラ、エリック・シッケタンツ、島蘭 進、陳 継東 2011. 12.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58 投稿 「鹿島守之助とパン・アジア論への一試論」平川 均 2011. 2.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59 第10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1300 年前の東アジア地域交流」朴 亨國、金 尚泰、胡 潔、李 成制、陸 載和、清水重敦、林 慶澤 2012. 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60 第40 回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の少子高齢化問題と福祉」田多英範、李 蓮花、羅 仁淑、平川 均、シム・チュンキャット、F・マキト 2011. 11. 30 発行
- SGRA レポート 61 第41 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共同体の現状と展望」恒川恵市、黒柳米司、朴 榮濬、劉 傑、林 泉忠、ブレンサイン、李 成日、南 基正、平川 均 2012.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62 第6 回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フフホト講演録 「Sound Economy ～私がミナマタから学んだこと～」 柳田耕一 「内モンゴル草原の生態系：鉱山採掘がもたらしている生態系破壊と環境汚染問題」郭 偉 2012. 6.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4 第43 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東アジア軍事同盟の課題と展望」朴 榮濬、渡辺 剛、伊藤裕子、南 基正、林 泉忠、竹田いさみ 2012.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5 第44 回SGRAフォーラム in 蓼科 講演録「21世紀型学力を育むフューチャースクールの戦略と課題」赤堀侃司、影戸誠、曹圭福、シム・チュンキャット、石澤紀雄 2013. 2. 1 発行
- SGRA レポート 66 渥美奨学生の集い講演録「日英戦後和解（1994-1998 年）」（日本語・英語・中国語）沼田貞昭 2013.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67 第12 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太平洋時代における東アジア新秩序の模索」平川 均、加茂具樹、金 雄熙、木宮正史、李 元徳、金 敬熙 2014. 2.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68 第7 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北京講演録「ボランティア・志願者論」（日本語・中国語・英語）宮崎幸雄 2014. 5. 15 発行
- SGRA レポート 69 第45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紛争の海から平和の海へー東アジア海洋秩序の現状と展望ー」村瀬信也、南 基正、李 成日、林 泉忠、福原裕二、朴 榮濬 2014.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0 第46 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インクルーシブ教育：子どもの多様なニーズにどう応えるか」荒川 智、上原芳枝、ヴィラーク ヴィクトル、中村ノーマン、崔 佳英 2015. 4.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1 第4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科学技術とリスク社会－福島第一原発事故から考える科学技術と倫理－」崔 勝媛、島 蘭 進、平川秀幸 2015. 5.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72 第8回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近代日本美術史と近代中国」佐藤道信、木田拓也 2015. 10.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3 第14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第4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経済のダイナミズム－物流を中心に」李 鎮奎、金 雄熙、榊原英資、安 秉民、ド マン ホーン、李 鋼哲 2015.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4 第4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円卓会議「日本研究の新しいパラダイムを求めて」劉 傑、平野健一郎、南 基正 他15名 2016. 6.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75 第50回 SGRA フォーラム in 北九州講演録「青空、水、くらし－環境と女性と未来に向けて」神崎智子、斉藤淳子、李 允淑、小林直子、田村慶子 2016. 6.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6 第9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 in フフホト&北京講演録「日中200年－文化史からの再検討」劉 建輝 2020.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77 第15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これからの日韓の国際開発協力－共進化アーキテクチャの模索」孫赫相、深川由紀子、平川均、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 2016. 11.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78 第51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今、再び平和について－平和のための東アジア知識人連帯を考える－」南基正、木宮正史、朴榮濬、宋均營、林泉忠、都築勉 2017. 3. 27 発行
- SGRA レポート 79 第52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劉傑、趙珖、葛兆光、三谷博、八百啓介、橋本雄、松田麻美子、徐静波、鄭淳一、金キョンテ 2017.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80 第16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韓の国際開発協力－新たなアジア型モデルの模索－」金雄熙、李恩民、孫赫相、李鋼哲 2017. 5.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1 第56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人を幸せにするロボット－人とロボットの共生社会をめざして第2回－」稲葉雅幸、李周浩、文景楠、瀬戸文美 2017.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2 第57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2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蒙古襲来と13世紀モンゴル帝国のグローバル化」葛兆光、四日市康博、チョグト、橋本雄、エルデニバートル、向正樹、孫衛国、金甫枕、李命美、ツェレンドルジ、趙阮、張佳 2018. 5.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83 第58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を結ぶ？『一带一路』の地政学」朱建栄、李彦銘、朴榮濬、古賀慶、朴准儀 2018.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84 第11回 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アジアからみた中国美術史学」塚本磨充、呉孟晋 2019. 5.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85 第17回 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北朝鮮開発協力：各アクターから現状と今後を聞く」孫赫相、朱建栄、文昊鍊 2019. 11. 22 発行
- SGRA レポート 86 第59回 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3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7世紀東アジアの国際関係－戦乱から安定へ－」三谷博、劉傑、趙珖、崔永昌、鄭潔西、荒木和憲、許泰玖、鈴木開、祁美琴、牧原成征、崔姪姫、趙軼峰 2019. 9.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87 第61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日本の高等教育のグローバル化!？」
沈雨香、吉田文、シン・ジョンチョル、関沢和泉、ムラット・チャクル、金範洙 2019. 3. 26 発行
- SGRA レポート 88 第12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日中映画交流の可能性」
刈間文俊、王衆一 2020. 9. 25 発行
- SGRA レポート 89 第62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再生可能エネルギーが世界を変える時…?——不都合な真実を超えて」
ルウェリン・ヒューズ、ハンス＝ヨゼフ・フェル、朴准儀、高偉俊、葉文昌、佐藤健太、近藤恵
2019.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90 第63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4回 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東
アジア』の誕生—19世紀における国際秩序の転換—」三谷博、大久保健晴、韓承勳、孫青、大川
真、南基玄、郭衛東、塩出浩之、韓成敏、秦方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91 第13回SGRA-V カフェ講演録「ポスト・コロナ時代の東アジア」林 泉忠 2020. 11. 20 発行
- SGRA レポート 92 第13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国際日本学としてのアニメ研究」大塚英志、秦 剛、
古市雅子、陳 龔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93 第14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西思想の接触圏としての日本近代美術史再考」稲賀
繁美、劉 曉峰、塚本磨充、王 中忱、林 少陽 2021. 6. 18 発行
- SGRA レポート 94 第65回SGRA-V フォーラム講演録「第5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19
世紀東アジアにおける感染症の流行と社会的対応」朴 漢珉、市川智生、余 新忠 2021. 10. 05 発行
- SGRA レポート 95 第19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岐路に立つ日韓関係：これからどうすればいいか」
小此木 政夫、李 元徳、沈 揆先、伊集院 敦、金 志英、小針 進、朴 榮濬、西野 純也
2021. 11. 17 発行
- SGRA レポート 96 第66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6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
人の移動と境界・権力・民族」塩出浩之、趙 阮、張 佳、榎本 渉、韓 成敏、秦 方、大久保健晴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7 第67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誰一人取り残さない』如何にパンデミックを乗り越えSDGs実現
に向かうか—世界各地からの現状報告—」佐渡友 哲、フェルディナンド・C・マキト、杜 世鑫、
ダルウィッシュ ホサム、李 鋼哲、モハメド・オマル・アブディン 2022. 2. 10 発行
- SGRA レポート 98 第15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アジアはいかに作られ、モダンはいかなる変化を生ん
だのか?—空間アジアの形成と生活世界の近代・現代—」山室信一 2022. 6. 9 発行
- SGRA レポート 99 第68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夢・希望・嘘—メディアとジェンダー・セクシュアリティの関係性
を探る—」ハンプルトン・アレクサンドラ、バラニャク平田ズザンナ、于寧、洪ユン伸 2022. 11. 1 発行
- SGRA レポート 100 第20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進撃のKカルチャー——新韓流現象とその影響力」
小針 進、韓 準、チュ・スワン・ザオ 2022. 11. 16 発行
- SGRA レポート 101 第69回SGRA フォーラム講演録「第7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歴史
大衆化』と東アジアの歴史学」韓 成敏 2023. 3. 22 発行
- SGRA レポート 102 第16回SGRA 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モダンの衝撃とアジアの百年—異中同あり、通底・反転
するグローバリゼーション— 山室信一 2023. 6. 14 発行

- SGRA レポート 103 第70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木造建築文化財の修復・保存について考える」 竹口泰生、姜 璿慧、永 昕群、アレハンドロ・マルティネス、塩原フローニ・フリデリケ 2023. 11. 10発行
- SGRA レポート 104 第21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講演録「新たな脅威（エマージングリスク）・新たな安全保障（エマージングセキュリティ）—これからの政策への挑戦—」 金 湘培、鈴木一人 2023. 11. 15発行
- SGRA レポート 105 第71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20世紀前半、北東アジアに現れた『緑のウクライナ』という特別な空間」オリガ・ホメンコ、塚瀬 進、ナヒヤ、グロリア・ヤン ユー、マグダレナ・コウオジェイ 2023. 10. 30発行
- SGRA レポート 106 第72回SGRAフォーラム講演録「第8回日本・中国・韓国における国史たちの対話の可能性：20世紀の戦争・植民地支配と和解はどのように語られてきたのか—教育・メディア・研究—」 金 泰雄、唐 小兵、塩出浩之、江 沛、福間良明、李 基勳、安岡健一、梁 知恵、陳 紅民 2024. 4. 12発行
- SGRA レポート 107 第17回SGRAチャイナ・フォーラム講演録「東南アジアにおける近代〈美術〉の誕生」 後小路雅弘 2024. 6. 13発行
- SGRA レポート 108 第22回日韓アジア未来フォーラム・2024現代日本学会春季国際学術大会講演録「ジェットコースターの日韓関係——何が正常で何が曇気楼なのか」 西野純也、李 昌玟、小針 進 2024. 11. 14発行

■ レポートご希望の方は、SGRA 事務局（Tel：03-3943-7612 Email：sgra@aisf.or.jp）へご連絡ください。

SGRA 레포트 No. 0109

제 74 회 SGRA 포럼

제 9 회 한국·일본·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편집·발행 (공익재단) 아쓰미국제교류재단 세키구치글로벌연구회 (SGRA)
〒112-0014 東京都文京区関口3-5-8
Tel: 03-3943-7612 Fax: 03-3943-1512
SGRA 홈페이지: <http://www.aisf.or.jp/sgra/>
전자 메일: sgra@aisf.or.jp

발행일 2025년 8월 20일
발행 책임자 이마니시 준코 (今西 淳子)
한국어판 감수 최 고은 (崔 高恩)
인쇄 (株) 平河工業社

©세키구치 글로벌 연구회 무단전재를 금합니다. 본지 기사에 대한 문의나 인용이 필요할 경우에는 연락주세요.

©Sekiguchi Global Research Association Copying is Prohibited. For inquiries or quotes, please contact us.

한국 · 일본 · 중국 간 국사들의 대화 가능성

동아시아의 국사, 와 동남아시아

